

제 21 호
2014

城南文化研究



城南文化院

附設 城南學研究所



54

9 772092 792408
ISSN 2092-7924

城南文化研究

제21호 · 2014



城南文化研究

제21호 · 2014

 城南文化院
附設 城南學研究所

지역학으로서의 ‘성남학(城南學)’ 연구 성과

성남문화원은 1993년 9월 20일에 부설 기구로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한 이후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학술회의와 학술토론회 개최, 마을지 편찬, 금석문 자료 정리, 선현묘역과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 문화유적 보호활동, 전통 민속놀이 발굴과 재현 등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가 300여 편이 넘으면서 문화융성의 새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연구소의 명칭을 ‘성남학연구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학계의 움직임은 향토사의 영역을 뛰어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학, 충남학, 천안학, 용인학, 수원학 등 새로운 개념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성남학연구소도 문화로 살기 좋은 도시, 문화로 행복한 도시로서의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미래지향적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성남시의 41년 역사를 반추해 보



김 대 진(성남문화원장)

면, 광주대단지 사업으로 시작된 열악한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거만족도 1위 도시로 변모해 온 성남시 발전의 역사는, 분당신도시 건설에 이어 위례신도시 건설과 판교신도시 판교 테크노벨리 건설로 이어져 세계 도시발전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선입주 후개발'의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에서 '선개발 후입주'의 도시개발 원칙도 성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남학연구소는 민족문화와 역사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그 체계를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문화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지역사랑과 올바른 역사를 전승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학연구소의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학술회의(19회), 학술토론회(11회), 학술세미나, 성남문화해설사 양성 교육(6기) 성남향토문화총서(1~9호) 발간, 향토유적지정 청원 성과(1~10호), 2005년 7월 <강정일당, 이달의 문화인물 지정> 청원, 성남 천림산 봉수지 복원 추진, 2008년 11월 <남상목 의병장—이달의 독립운동가> 지

정 청원, 『성남시 40년사』 편찬 사업 등 굵직한 연구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남학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인문학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는 등 시민을 위한 교육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업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사업의 성과인 『성남문화연구』는 해마다 발간되었고, 올해 제2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제21호까지 1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여기에는 우리 시와 관련한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성남문화연구』는 성남을 주제로 하는 지역학 연구로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학술지라고 자부합니다.

이번에 제21호를 발간하면서 귀한 원고를 써 주신 집필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학연구소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내년부터는 『성남문화연구』 논문을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등 개혁을 거듭해 나가면서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남학연구소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고장을 위한 역사와 문화 연구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 9. 20

목 차

발간사	지역학으로서의 ‘성남학(城南學)’ 연구 성과 김대진(성남문화원장)	10
홍대한	망경암 마애불상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	15
최만순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분석 및 지명유래에 대한 주민인지특성 연구 ...	49
김웅호	조선 전기 군사훈련과 성남	74
한동익	漢城百濟와 南漢山城의 再照明	103
정태열	風水地理的 觀點에서 바라본 城南	143
윤종준	‘성남학’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184

부 록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현황.....	214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혁.....	216
	성남문화연구 1~20호 연구 논문 총목록	220
	성남향토문화총서 1~9.....	230
	학술회의 1~19회 연구 논문 총목록	239
	학술토론회 1~11회 연구 논문 총목록	249

여 백

망경암 마애불상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

— 조선시대 경기지역 마애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 대 한

(숙명여자대학교)

◆ 차례 ◆

1. 머리말
2. 경기지역 고려 · 조선시대 마애불의 특징
3. 망경암 마애불의 양식과 제작시기
4. 망경암 마애불의 조성배경과 미술사적 의의
5. 맺는 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마애불은 7세기를 전후한 시기 백제지역을 시작으로 조선 시대까지 제작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00여 곳에 분포하고 있다. 마애불의 기원은 인도와 중국의 석굴사원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석굴암, 군위삼존석불, 골굴암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인도와 중국의 경우 강안(江岸)을 따라 형성된 비교적 무른 암질의 사암 또는 석회암 절벽에 위치"한 반면, 우리는 견고한 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대규모 석굴보다는 석굴사원의 조성의지를 반영한 마애불이 상대적으로 유행하였다.

삼국시대 조성된 초기 마애불의 분포는 대부분 서해안을 따라 한강 이남지역에 집중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마애불이 북방계통보다는 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조성되었음을 암시한다. 고구려는 아직까지 마애불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완료된 불상 대부분이 금동 제품인 점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지역의 마애불 제작과의 친연성을 보여준다.²⁾

과거부터 우리는 산악숭배 신앙이 보편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재래 신앙과 석굴사원의 조형 의지가 결합되어 마애불의 유행을 가져온 것이다. 다시 말해 마애불은 불교수용 이래 한국의 지형과 전통신앙 속에서 재창출된 독자적인 문화인 점에서 당대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논의 대상인 망경암(望京庵) 마애불상은 시기상 전통 마애불의 마지막 작품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남한산성과 인접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 등을 통해 특별한 제작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마애불의 제작목적, 제작기법, 위치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국 마애불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전국적인 확산을 거치면서 지방양식을 수용한 고려시대 마애불, 조선시대 마애불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망경암 마애불상의 미술사적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宿白, 《中國石窟寺院》, 北京, 文物出版社, 1996.

2) 현재까지 삼국시대 마애불 가운데 고구려 제작으로 알려진 사례는 거의 없지만 영주, 봉화, 중원의 마애불은 삼국시대 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경기지역 고려 · 조선시대 마애불의 특징

1) 고려시대 마애불의 현상

(1)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경향

고려시대 불교조각은 무신정변(武臣政變)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후삼국이 통일되는 936년까지의 불교조각은 신라 계승양식과 후백제를 중심으로 한 복고(復古)양식으로 구분된다.

고려 건국은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왕권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종(光宗) 이전까지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통제가 미치지 못했다. 과거제 시행의 확산과 지방관 파견이 본격화 되는 성종(成宗) 때를 거치면서 고려는 강력한 중앙집권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불교미술에 있어서도 고려적인 이른바 고려식(高麗式) 양식이 발생했다.

불교를 국교로 숭상하던 고려는 다수의 사찰창건이 이어졌고 다양한 종류의 불교미술품이 함께 제작되었다. 고려 후기의 불상양식은 원의 라마양식이 강해지는 1276년을 기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며, 현존 불상 역시 대부분 후대의 것들이기 때문에 전반기 양식은 오직 마애불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고려 후기 불상의 주류 양식은 봉림사 · 문수사 · 장곡사 불상에서 보듯 단아하고 귀족적인 특징이 표현된 사실주의 양식을 바탕으로 라마양식과 전대의 추상적인 전통이 절충된 석불조각 양식이 보이고 있어 다양한 양식의 혼재기로 평가할 수 있다.

마애불이 가장 많이 조성되는 시기는 고려시대로 마애불과 미륵불을 동일시하는 사상이 정착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포 양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라 말부터 뿌리내린 지방호족 세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그

들의 기복적인 성향을 반영해 마을 단위까지 확산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불교미술은 고려불화나 변상도에서 보듯 섬세한 아름다움과 화려한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신라 말 이래 선과 교학이 병행하는 추세를 반영해 교학의 정론이 도상표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고려불화나 사경은 이러한 당대 불교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빼어난 조형미 이외 그 자체로 경전의 교학을 도해(圖解)함으로써 불교 대중화와 민중화 되어가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고려시대 마애불은 후대로 갈수록 신라시대 불상의 권위를 탈피해 신격(神格)이 사라진 인간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것은 조각기술의 퇴화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무속신앙을 수용하거나 현실 속 중생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아 조상활동을 추구한 결과다. 동시에 라마불교의 확산과 함께 세속의 기쁨, 기복을 추구하는 사조가 반영되어 보다 인간적인 불상의 도상을 추구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초 불상의 중요한 특징은 대형불상의 유행이다.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과 같이 건국 초기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형불상은 이 시기 불교미술의 새로운 특징이며 당시 불사(佛事)가 왕실주도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마애불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파주 용미리 마애불의 경우 전체 높이가 17m에 달하는 대불로 조성됐다.

이 불상은 묘길상 마애불좌상·덕주사 마애불입상·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안동 이천동 마애불상 등으로 이어지는 대형 마애불 계보의 한 획을 긋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들 대형 마애불은 바위산 전체를 불상의 신체로 삼아 부처의 불격(佛格)을 강조했으며, 산 전체가 부처라는 명확한 의식 아래 조성되었다.

(2) 고려시대 마애불의 현상

고려시대 대형 마애불 중 고려 특유의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

로 대형 암석을 신체로 삼고 환조로 별도 제작한 불두(佛頭)를 덧붙인 마애불이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한다.

경주 남산 약수계 마애불(9세기 후반), 파주 용미리·안동 이천동 마애불 등인데 이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계룡산 용화사지 마애불, 원주 평장리 불두 등도 같은 방식으로 조성됐다.

고려시대는 이와 같이 10m 이상의 대형 마애불 이외에도 4~7m 내외로 건장한 체구의 마애불들이 대거 조성되었다. 천안 삼태리 마애불·속리산 법주사 마애불의상·북한산 구기동 마애불좌상·해남 대둔사 북암 마애미륵보살좌상·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좌상·문경 대승사 마애불좌상·함양 대대리 마애불입상·안성 굴암사 마애불좌상·원주 주포리 황산사지 마애불좌상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고려시대 마애불은 무신란 직전까지 점차 대형화 되면서 신라 마애불의 사실적 표현이나 양감·세부 조각의 세련미가 점차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바위 전체를 불상의 신체로 삼거나 대충 조각한 듯 거친 정자국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신라 마애불이 바위면을 깨끗이 치석 후 불상을 조각한 반면 고려시대 마애불은 바위 석질에 대한 고려가 적었고, 조각 역시 정치(精緻)한 면이 감소해 기법상의 후퇴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바위 자체에 내재된 신이성(神異性)을 강조하기 위해 마애불을 조성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고려 마애불 조각의 신경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존하는 200여 곳의 마애불 가운데 7~80%가 고려시대 제작으로 조사되었는데, 양식이나 표현기법에 있어 일관성이 적고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 마애불에 대해 자유표현 의지가 강했다고 평가하거나 지방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제작연대가 확인된 고려시대 마애불은 977년 하남 교산리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 981년 이전 장암리 태평흥국6년명 마애보살좌상 · 985년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 1090년 원주 홍양리 입석사 마애불좌상 · 1111년 거창 가섭암지 마애삼존불 등 5구에 그치고 있다. 이들 5구의 마애불은 도상이나 조각기법, 조성 위치에 있어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교산리 마애불은 통일신라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였는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근육표현과 사실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화려함을 잃지 않는 옷주름을 특징으로 한다. 입석사 마애불은 살찐 얼굴에 짧게 움츠러든 목으로 인해 위축된 모습이나 옷주름을 상대적으로 단순히 처리해 신체 모델링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특히 가슴 앞에서 가로로 흐르는 옷 매듭 장식은 11세기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이 불상이 고려불화의 도상표현 기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장암리 마애보살상과 개포동 마애보살상은 황제나 고위관료가 착용하던 통천관(通天冠)과 유사한 관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왕건의 청동상과



도1 : 고려 태조 왕건의 청동좌상



도2 : 개태사 석조삼존석불입상

같이 고려시대 국왕의 모습을 재현한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와 얼굴의 비례가 어색하며 머리를 크게 표현하였고 안면 역시 얇은 미소가 스며 있으나 어딘가 바보스러운 민화풍을 닮아 있다.

이들 고려 초기 마애불 제작은 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양식으로 불리던 자유로운 표현기법이 혼재하던 시기로, 지역호족의 취향에 따라 실험적인 불상들이 제작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반에 조성된 입석사 마애불과 가섭암 지 마애삼존불을 보면 오히려 순수 신라양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기는 고려문화의 황금기로 평가할 수 있는데, 불교 조각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고적인 경향이 유행한다. 무신란 이후 복고주의 경향은 새롭게 권력을 창출한 무신집단의 취향과 대몽항전기간을 통해 강조된 호국사상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 위치 역시 대부분 마을 부근에 위치하나 입석사 마애불은 산 중턱 벼랑·가섭암지 마애삼존불은 깊은 산속 자연 석굴 내에 있어 신라시대 마애불의 조성 위치와 동일하다. 신라 하대의 전통을 계승한 마애불은 산 정상에 조성한 사례가 많은데 파주 용미리 마애불을 비롯해 구례 사성암 마애불·원주 주포리 마애불·이천 영월암 마애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왕래가 빈번한 교통로 상에 마애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천 장암리 태평흥국6년명 마애보살입상·안동 이천동 마애불입상 등이다. 그리고 괴산 원풍리 마애불좌상·봉암사 마애불좌상·남원 여원치 마애불좌상 등은 마을 진입로에 위치한다. 불상 조성은 사찰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사찰 경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마애불의 경우 마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산 정상, 오래 전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기도처 부근,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불교적인 목적이의 조성자의 기복의지와 비보(裨補)사상, 안전 기원 등 조성목적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³⁾ 특히 남한강 주변에 조성된 많은 마애불은 수운을 이용해 왕래하던 상인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여주 계신리 마애불, 충주 창동리 마애여래입상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통일신라에 비해 다소 뒤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전대에 비해 돋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통일신라부터 이어져 오는 불교조각의 전통 위에 중국의 송·요 그리고 원대 불교미술의 영향을 수용,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전통을 이룩하는 등 한국 조각사의 발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불사의 조성, 발원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조각자에 대한 기록은 소수에 불과한데, 한 가지 참고 되는 것은 사찰내에 다수의 사역(使役)과 공장승(工匠僧)이 존재하였고 고려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 그들의 인원수는 물론 역할이 증대된 것이다.⁴⁾ 고려 중기 마애불에 보이는 기량이 우수한 저부조의 형식이 두드러진 점, 그리고 수량에 있어서도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점은 마애불을 제작한 이들과 그 사역·공장승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마애불의 조형적 특징 중 주목되는 부분은 토속적인 경향이 고려 전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토속성은 객관적인 조화에 기준을 두지 않고 주관적인 생동감에 따라 부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개념이다. 곧 민불(民佛)의 제작과 양적 팽창은 그만큼 마애불 조성이 대중화되었음을 증명한다. 동시에 마애불은 전통신앙과 강하게 습합

3) 홍대한, 《高麗 石塔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50~86.

4) 임영정, 《고려시대의 사역·공장승에 대하여》,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상, 가산불교문화진흥원, 1992, pp.758~783.

되는 모습을 보이며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변화되면서 불상제작의 새로운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고려는 유학이 관인(官人)교육으로 강화되었으나 불교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민중들의 의식에는 산악숭배 같은 토착신앙이 더 지배적이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⁵⁾

그리고 대불(大佛)의 경향을 보이면서 신체비례를 정확히 맞추지 않은 점은 신이한 불력을 마애불 조성의 새로운 척도로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마애불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자 마애불 제작이 대중화됨에 따라 나타난 기층 내지 토착화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 마애불은 토착화 경향 속에서 상호가 통일신라의 둥글고 입체감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나 아름다운 곡면 처리에서 변모해 넓적하고 얇아지면서 광대뼈가 돌출되는 등 변화된 조형미를 만들어 낸다.

3) 경기지역 조선시대 마애불의 현상

경기도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지속해 왔다. 이른바 근기(近畿)라는 개념 아래 고려로부터 수도 개경 방어나 과전법 제도에서 중요한 토지 분급대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신라 경순왕의 귀부와 함께 왕족을 비롯한 관료계층 다수가 개경과 근기지방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이들은 이후 근기지방 문화를 주도했으며 이곳에 신라의 조형미술과 친연성이 강한 미술활동을 가져오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고려 초 개경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창건된 사찰과 불교미술이 신라와 친연성이 강한 것은 이와 같이 신라계 세력들이 고려정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태조 왕건 역시 통일왕조의 정통성을 신라로부터 찾은

5) 허흥식, 《고려의 불교와 융합된 사회구조》, 『고려초기불교사론』, 민족사, 1992, p.11.

것이 주요했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기득권 세력의 제거를 위해 불교의 지나친 정치참여와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 결과 폐단을 명목으로 유교를 학습한 성리학자들이 주도하는 사대부 문인문화에 기반한 국가를 건국했다. 불교에서 유교로 정치이념이 변모한 조선시대는 불교미술, 특히 마애불 조성이 급격히 감소한다. 성리학을 표방한 유교사회라는 특징과 함께 지역이나 마을공동체에 불교를 대신해 민속신앙이 융성해진 결과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 민중들이 마애불을 ‘미륵불’로 불렀던 것과 같이 조선 초 민중들은 마애불을 민불 내지 미륵으로 여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불교 억압은 공개적인 불상조성의 감소를 가져왔고 그 결과 사찰을 벗어나 바위면에 조성하는 마애불 제작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고려시대 전국적으로 조성된 마애불을 통해 이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마애불 조성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 역시 일조했다.⁶⁾



도3 : 김제 문수사 마애불좌상



도4 : 예산 장신리 마애불입상



도5 : 화순 벽리리 민불

6) 임진왜란 이후 불교계 보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된 사찰복구 지원, 왕실발원 사찰 창건과정에서 불상 조성이나 불구 제작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마애불 조성 기록이 없는 점은 대조를 이룬다.

조선시대 마애불의 새로운 경향은 조각 대상이 거대한 암면을 떠나 비석과 같이 이동가능한 소형으로 축소된 것이다. 물론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전히 대형의 마애불이 조선 후기에 조성되고 있지만, 소형 석재를 이용한 마애기법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이며, 동시에 전통적인 불상숭배가 감소하면서 마을 가까운 곳에 민간신앙적인 목적으로 불상을 건립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마애불은 고려와 달리 제작연도를 기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장소 역시 한양 인근지역에 밀집됐다. 임진왜란 이전 조성된 가장 이른 시기인 1465년 제작의 예산 장신리 마애불입상과 1469년에서 1472년 사이 조성된 진도 금골산 마애불좌상, 1896년 통도사 지장암 마애삼존불, 그리고 김제 문수사 마애불좌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예산 장신리 마애불입상은 석비(石碑)형 바위면에 얇은 선묘방식으로 조각해 고려의 전통을 유지한 표현기법이 조선 초기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공주 일락산 마애지장보살은 풍화가 심해 정확한 도상을 살필 순 없으나 오른쪽 윗면에 명문 ‘대자회향성화□년중추(大慈回向成化□年中秋)’ 이 음각되어 있어 장신리 마애불입상과



도6 : 금골산 마애불 전경



도7 : 금골산 마애불



도8 : 도선사 마애불입상

같이 성화연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화연간은 조선 세조의 집권 시기로 말년 불교에 귀의해 다수의 불사를 후원했던 인물이다. 1459년(세조 5) 중창된 수종사는 왕실의 추복을 담당했던 사찰로, 성화연간 다수의 마애불이 조성된 것은 이 같은 왕실차원의 불교계 후원에 힘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도 군수 유효지가 시주해 3년에 걸쳐 제작한 금골산 마애불은 진도 앞바다가 조망되는 금골산 정상부에 위치하는데 선묘식(線描式) 제작기법과 함께 자세와 불두 표현 등에서 김제 문수사 마애불좌상과 양식적 친연성이 강하다. 이들 마애불은 고려시대 지방 마애불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으며, 조성 위치 역시 비보(裨補) 목적으로 선정된 고려시대 마애불의 위치와 궤(軌)를 함께 한다.

서울과 경기지방 마애불 중 토속화적인 고려 전통이 엿보이는 사례로는 삼각산 도선사 마애불입상이 있다. 만경봉·인수봉·백운대 등 삼각산의 주봉을 배경으로 조성된 마애불은 왕실에서 국가기도 도량으로 지목했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도선사 사적에 따르면 철종 14년(1863) 김좌근(金左根)의 시주로 중수하고 칠성각을 신축하였으며 고종 24년(1887) 임준(任準)이 5층 석탑을 건립 후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했다. 이어 1903년에는 고종의 명으로 혜명(慧明)이 대웅전을 중건한 후 이듬해인 광무 8년(1904) 국가기원도량으로 지정되었다.⁷⁾

조선은 갑오개혁 이후 유교 중심의 엄격성이 완화되었고, 때를 같이해

7) 도선사 마애불 앞에는 조선시대 칠층석탑과 신목(神木)이 배치되어 있어 불교와 무속이 결합된 신앙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마애불입상의 조각기법 역시 저부조로 체구가 길고 수염이 강조되어 여래상 보다는 무속의 도인(道人) 풍모에 가깝다. 도상에서 고려 10~11세기 경 제작으로 추정되는 구미 금오산 마애불입상과 유사하다. 금오산 마애불입상은 얇은 선묘를 이용한 회화기법으로 제작했는데, 두 줄 두광과 신풍을 가는 선각으로 새겼고 양손은 길게 늘어뜨려 손바닥이 드러나 있다.



도9 : 관악산 봉천동 마에미륵불좌상



도10 :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신분제도의 붕괴가 나타나면서 불교에 대한 가혹한 통제 역시 감소했다. 도선사 마애불입상은 국가기도 도량이라는 명분 이외에 사회혼란을 수습하면서 무력해진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고종(高宗)과 왕실의 노력이 집결되어 조성된 것이다. 조선 말 왕실지원으로 조성되거나 원찰 명목으로 유지되던 사찰은 이와 같이 무력해진 왕실 재건과 국가 안녕을 목적으로 발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악산 봉천동 마에불은 불상 우측 두광 높이에 ‘미륵존불(彌勒尊佛)’ 4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그 옆에 ‘숭정삼년경오사월일(崇禎三年庚午四月日)’ 9자와, 그 밑 연화대좌 부근에 ‘대시주 박산회양주(大施主 朴山會兩主)’ 라는 글자가 종으로 3자와 5자의 2줄로 새겨져 있다. 따라서 인조 8년(1630) 박산회 부부의 시주로 조성된 미륵불임을 알 수 있다.

봉천동 마에미륵불좌상은 고려불화와 유사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가는 선각을 이용해 상호와 가슴 부분은 볼륨감이 크지 않게 돋을새김했다. 반면 의습과 광배, 연화대좌는 음각의 선묘로 표현해 선묘를 바탕으로

로 신체의 입체감을 추구했던 고려시대 불화제작 기법을 토대로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불교계 지원정책에 따라 사찰중수가 진행되는데, 이때 공주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련의 화승들이 경기지방까지 진출해 불화제작에 참여했다. 봉천동 마애불을 비롯해 17세기 서울, 경기지방 마애불들이 표현기법에서 불화 요소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 화승집단의 불화 초본(草本)을 이용했거나, 직접 마애불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1872년 제작된 서울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은 13m가 넘는 수직 절벽에 외곽선 주변을 파내어 입체감을 살린 융기된 선묘로 조각했고, 옷주름 처리, 화불(化佛)을 더한 화관(花冠), 연화대좌, 칠보문(七寶紋) 표현 등 불화의 도상을 그대로 바위에 옮겨놓은 점 역시 화승집단이 마애불 조성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마애불 좌측 바위 면에는 불화 화기(畵記)와 같이 증명비구 혜묵(惠默)과 축문을 음불한 통주(通呪)와 실질적으로 마애불을 조각한 금어(金魚)의 명단을 남겼는데 마애불 조각가를 불화제작을 담당하는 금어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은 역불기간을 통해 전문적인 조각장 기능이 감소하고 불화제작을 담당했던 화승들이 조각에까지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조사가 진행된 전국 마애불 중 조선시대 제작으로 밝혀진 사례는 17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방에는 7구의 마애불이 조성되었다. 조사 대상 마애불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역분포에서 유의미한 통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역불정책이 시행되던 조선에서도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울·경기지역 마애불 중 봉천동 마애불과 삼막사 치성광삼존불, 망경암 마애불좌상을 제외하면 관음보살상이 압도적인데, 당시 불

표 1 : 조선시대 마애불 목록⁸⁾

명칭	제작시기	규모(m)	소재지
봉천동 마애미륵불좌상	1630년	전고 1.6	관악구 봉천동
도선사 마애불입상	17~18세기	전고 8.4 불두고 2.2	강북구 우이동
안양 삼막사 마애치성광삼존불	1763년	전고 1.6 삼존 폭 2.5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1872년	전고 7.0	노원구 중계본동 학도암
망경암 마애불좌상	1897년	전고 1.2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1909년	전고 3.5	종로구 창신동 안양암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28년	전고 9.2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예산 장신리 마애불입상	1465년	전고 2.0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공주 일락산 마애지장보살입상	成化연간	전고 0.94	공주시 금학동
진도 금골산 마애불좌상	1471년	전고 2.0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	17~18세기	전 약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남원 노적봉 마애불좌상	조선 17세기	전고 6.0 폭 4.0	남원시 사매면 소도리
양산 호계동 마애불좌상	18~19세기	전고 2.2	양산시 호계동
김제 문수사 마애불좌상	18~19세기	전고 1.5	김제시 황산동
화순 벽라리 민불	18~19세기	전고 4.0	화순군 벽라리
한산사 마애불	조선	전고 3.0	제천시 남천동 한산사
통도사 지장암 마애삼존불	1896년	전고 4.0 폭 4.0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8) 명문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작시기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더욱이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불교가 위축되었던 시기로 불교미술 역시 새로운 조형의 창출과 양식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려시대 불상양식 모방이 주류를 차지했다. 표에서 제시한 목록은 마애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작시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사례로 한정했으며,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일제강점기 제작이지만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근대로 이어지는 사례로 차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목록에 포함시켰다. 전국 마애불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마애불》 부록으로 게재된 전국 마애불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이태호 외, 《한국의 마애불》, 다른 세상, 2001.)

교신앙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관음보살은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구제하는 대중에게 친근한 보살이다.

《삼국유사》 권3 ‘백월산의 두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조의 관음보살 영기(靈記)를 비롯해 꾸준히 독립상과 삼존불의 협시상으로 유행했다. 아미타불을 협시하는 보처보살(補處菩薩)이면서 동시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예배대상이 되었고 불화나 불상으로 빈번하게 조성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관음보살 불화가 크게 유행했으며, 마애불에서도 서울 홍은동 보도각(普渡閣)보살좌상과 같이 예외는 아니었다. 학도암 마애불을 시작으로 19세기에 관음보살 조성이 유행한 배경에는 내부 정치 불안과 외부에서 서구열강의 진출이 증가하는 시대상을 반영했을 것이다.

이외 부산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에서도 표현기법에서 불화와의 관계성을 살필 수 있다. 상호와 머리 부분만을 음각으로 처리하고, 두광·신광과 신체, 연화좌 등 나머지 대부분을 양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양각 부분 역시 조각선이 깊지 않아 불화의 선묘처리 기법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배는 조선후기인 17~18세기 조성 불화의

표 2: 전국 마애불 목록

지역	서울·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금강산
수량	25	6	16	18	49	21	9	20	2
시대별	삼국	·	·	1	3	4	·	·	·
	통신	1	·	2	2	29	6	1	2
	고려	14	5	12	10	14	9	5	11
	조선	7	·	2	1	·	3	2	2
	미상	3	1	·	2	2	3	1	5

주존불(主尊佛) 광배처럼 방사선 문양을 새기고 있어 마애불의 제작시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옥련선원이 위치한 백산은 경상좌수영이 있었고, 백산의 정상부에 첨이대가 있는 등 남해를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명대사와도 관련이 깊은 곳이다.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은 해난구제와 수군의 귀의불(歸依佛)로서 기능을 가지고 조성된 것이다.

옥련선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제작된 마애지장보살은 공주 일락산과 통도사 지장암 지장보살 등은 모두 왜구 침입이 심했던 곳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의 전후복구 과정에서 전쟁기간 희생자를 위로하고 왕생을 염원하며 지장보살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조선시대 마애불 이외에도 고려시대 마애불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표2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된 166구의 마애불 중 약 15%에 해당하는 25기의 마애불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경상북도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수량인데 경상북도가 통일신라의 중심지배지였음을 고려한다면 고려시대 이후로 마애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동시에 서울과 경기지역이 그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중심대상인 망경암 마애불은 시기적으로 고종이 열강의 침탈과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광무개혁이 있던 1897년 조성되었다. 따라서 고려로부터 이어져 온 마애불 조성양식이 1910년 이후 근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시기에 제작된 마애불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주변에 세워진 비문 기록을 통해 조성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도11 : 망경암 마애불상 전경



도12 : 망경암 마애불좌상

3. 망경암 마애불의 양식과 제작시기

1) 망경암 마애불의 현상과 양식

망경암 마애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2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망경암 경내에 위치해 있다. 망경암 마애불 정면에선 한강과 서울의 관악산·남산 그리고 원거리에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 망경암은 남한산성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북서향 암벽 중앙 상단에 사각형 감실을 거칠게 판 후 돌을새김으로 새긴 결가부좌의 소형 불상이다.

현재 불신높이 120cm, 무릎 폭 75cm로 오른손은 오른쪽 종아리 위에, 왼손은 손등을 드러낸 채 가슴 앞에 대었다. 머리는 소발로 보이며 상체에는 목 부분만 살짝 드러나도록 짧은 U자형을 이룬 두꺼운 법의를 표현했다. 결가부좌한 무릎 아래론 석질불량으로 대좌를 확인할 순 없다.

망경암 마애불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위 면적에 비해 소형 불상을 단독으로 조성한 것이다. 비록 암질이 조각에 불리한 측면을 고려해야겠지만 불상 주변으로 14곳의 사각형 감실을 파낸 후 명문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구만의 불상을 조각한 것은 예외적이다.

단독 불상의 경우 바위 면을 압도하는 대형으로 조각하는데 망경암 마

애불은 이와 반대로 소규모에 속한다. 다만 불상 주변의 감실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의 축원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원찰과 같은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기에 불상 조각보다는 왕실 기도처를 상징하는 수준에서 불상을 조성한 결과 우수한 조각을 창출하지 못했고 축원을 위해 방문했을 때마다 불상을 대신해 감실에는 축원 내용을 음각했던 것으로 보인다.⁹⁾

이 불상은 여래(如來)보다는 일반인의 모습에 가까우며 머리와 수평으로 표현된 어깨가 직접 붙어 있어 매우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안면과 이목구비는 부처의 신이성을 상실한 채 반개한 눈으로 원경을 향하고 있다. 의습은 두껍고 형식적이며 가슴 앞으로 도식화된 U자형 옷주름을 일부 표현했다. 양 손 중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린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 크고 사실성이 떨어진다. 무릎 위에서 축지인을 취한 오른손 역시 사실성이 떨어지며, 왼손에 비해 평판 적이다.

이 불상은 군위 불로리 마애보살입상과 양산 호계동 마애불좌상과 친연성을 보인다. 불로리 마애보살입상은 불암(佛巖)으로 불리는 13세기 말 또는 14세기 초 제작의 고려시대 마애불이다. 마애불은 머리에 두건을 쓴 보살상으로 사각에 가까운 각진 얼굴은 작은 눈, 넓적한 삼각형 코, 뺨죽 튀어나온 작은 입술과 전반적으로 어색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다. 비록 망경암과 달리 입상이나 입체감이 감소하고 형식적으로 안면부를 표현한 점, 사실감이 사라진 형식적 양 손 표현 등은 상호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제작시기에 있어 망경암과 불로리 마애불상 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 직

9) 망경암 칠성대에 마애불이 단독으로 조각된 것은 기복을 위한 기도처로서 기능이 유지되는 가운데, 각별한 발원목적이 발생하면서 과거 종교행사에선 진행되지 않던 불상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 내용 중 세종 두 아들에 대한 왕생추복 기원을 목적으로 불상으로 조성한 점 역시 단순 기원이 아닌 수명연장 같은 왕실 위급상황에 특별히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도13 : 군위 불로리 마애보살입상



도14 : 양산 호계동 마애불좌상

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무신난과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불상의 민불화 경향과 고려 특유의 토속적 이미지가 반영된 전통이 조선말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호계동 마애불좌상은 나발이 뚜렷하고 굽고 큰 코에 비해 입을 상대적으로 작게 조각했다. 초승달 모양의 두 눈에는 열은 미소를 담았고 두 귀를 정면과 중심으로 크게 표현했다. 안면 표현이 돌을 새긴 인데 비해 몸을 덮은 법의는 선각이다. 법의는 양 어깨를 덮은 통견이며 가슴부터 결가부좌한 다리 위까지 선각으로 반복적인 옷주름을 조각했다. 머리와 어깨를 직접 연결한 듯 목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망경암 마애불좌상과 같이 경직된 느낌이 강하다.

양 무릎은 폭이 넓어 비례가 맞지 않으며 양복련으로 구성된 대좌를 선각으로 표현했다. 오른손은 마모로 명확하지 않으나 어깨 끝의 자세로 보아 가슴 앞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왼손은 결가부좌해 왼쪽으로 이동한 오른발 위에서 손등이 정면을 향한 채 축지인을 취하고 있으며 엄지손가락을 벌린 채 크게 조각했다.

불로리와 호계동 마애불상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가속화되는 불교와 민속, 무속신앙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민불(民佛)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민불 등장은 단순히 불교의 위축과 성리학을 토대로 한 유학의 발

전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역동성이 감소하면서 조형미술 역시 후퇴하는 고려 말과 조선시대 새로이 나타난 민중미술의 새로운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지방 민중이 지향하던 생활의 안전과 무속의 확대로 나타나는 기복신앙의 유행으로 불상은 외형은 유지한 채 무속의 신선이나 도가(道家)의 도인으로 성격이 바뀌어 갔다. 망경암 마애불상은 광무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의 국운을 상징하는 동시에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불상조각양식의 마지막 작품이며, 후술할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던 기도처와 불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불교조각의 마지막 작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망경암 마애불의 위치와 제작기법

고려가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후원한 결과 불교미술이 발달했는데, 강원·경기·충청지역에 고려 초기 사찰유적과 불상 등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태조가 정치세력 강화를 위해 지방호족들과 결탁하거나 인척 관계를 유지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선시대는 비록 국가차원의 불교계 지원은 미미했으나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세종과 세조뿐만 아니라 왕실 여인들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적극 후원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불교문화와 이로부터 파생된 생활 관습을 단 시간에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반면 공식적으로 성리학에 기반한 사대부를 주축으로 불교계 지원이 차단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국가 또는 귀족 중심의 불교는 쇠퇴했지만 민중 중심의 종교로 변화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조선시대 마애불 조성은 이와 같이 왕실의 사적(私的) 지원과 일부 사대부, 피지배 계층 주도로 불교가 신앙으로 유지됐음을 보여준다. 조선 말은 국가차원의 불교계 통제가 이완되고 설

령 대규모 불사(佛事)여도 그것이 국가안녕과 왕실축원이 목적이라면 거부할 수 없었기에 적지 않은 불교미술이 한양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마애불은 환조의 석불이나 금동불과 달리 고정된 대형 암석에 조각되기 때문에 본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불상양식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고려시대 마애불상은 대부분 교통로나 비보지형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나 현재나 교통로는 경제·군사 요충지로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었고 사찰 역시 이곳을 중심으로 다수 건립되었다.

신라시대 마애불이 깊은 산속이나 사찰과 가까운 산 정상 부근에 조성된 반면 고려시대는 교통로를 끼고 왕래가 빈번한 지형에 위치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전자는 불교와 재래 산악신앙이 습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마애불이 위치한 산하가 불국토(佛國土)라는 관념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은 통일신라 초에 등장한 이래 우리나라 마애불의 중요한 특징으로 정착되었다. 산 속에 마애불을 조성하는 사례는 고려에도 이어졌는데 고려 초 제작의 경기도 소래산 마애불, 중기 북한산 승가사 마애불, 후기 구례 사서암 마애불 입상 등이다.

교통로 부근에 마애불이 조성된 것은 마애불이 이동로를 경계하는 수호자 역할뿐 아니라 사원의 교통기능¹⁰⁾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부분적으로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입석(立石) 등 민속신앙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였다.

망경암 마애불의 위치는 수도 한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승지이며 동시에 기록을 통해 왕실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처 역할을 해왔음이 확인됐다. 동시에 망경암이 위치한 영장산(靈長山)이 조선시대 대표 관

10) 김병인, 《高麗時代 寺院의 交通機能》, 『全南史學』 13, 전남대학교 사학회, 1999, pp.31~58.

방시설인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부근의 봉국사(奉國寺) 역시 국가평안을 비는 사명(寺名)임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이 조선시대 수도 관방(關防)과 태평,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던 핵심지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마애불의 제작기법은 크게 부조(浮彫)와 선각기법(線刻技法)으로 구분된다. 부조의 경우에도 바위 면과 조상의 높이에 따라 고부조와 저부조로 나뉘며, 선각은 깊은 선각과 얇은 선각 그리고 연속된 점을 이용해 표현하는 점각(點刻) 기법으로 세분할 수 있다.

마애불과 같은 부조는 양각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류를 차지하는데, 표현대상이 되는 조각상 외형을 최대한 돋보이기 위해 바위 면을 제거함으로써 상(像)의 형태를 강조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 마애불을 대표하는 삼국시대 서산 마애불·예산 사방불·굴불사 사방불 등은 모두 고부조 기법으로 조성된 사례로, 비교적 이른 시기 제작된 마애불은 모두 고부조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마애불의 기원이 인도와 중국의 석굴사원을 충실히 재현하려던 당시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삼국시대 초 전래된 환조불상을 구현하기 위해 비록 마애불이라고 하더라도 입체감을 강조함으로써 환조불상을 표현하려던 조형 의지에 기인한 것이다.

후대에 고부조 기법을 사용한 마애불로는 통일신라 초 제작의 가흥동 마애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환조에 가깝게 측면 석재를 제거해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이 시기 마애불은 정면에서 관찰하면 마치 환조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입체감이 뛰어나다. 저부조는 고부조에 비해 불상 주변의 바위를 적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선각기법을 일정 부분 응용한 것이다. 신체 모델링이나 옷주름 등 특징적인 부분은 양각으로 표현하고 단순히 주변 석재를 얇게 파내어 고부조에 비해서는 입체감이 줄어든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회화작품을 연상시키는데 남산 탐곡 사방불·남



도15 : 망경암 경내에서 조망한 서울 방향 전경

산 신선암 마애불 등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스토리의 표현이나 섬세한 조각을 필요로 했을 때 즐겨 사용하던 수법으로 판단된다.

신라 하대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시기는 마애불 제작이 증가하면서 앞선 시대와 같은 고부조 작품을 조성할 경우 경제·시간적으로 애로가 따르기 때문에 점차 저부조 제작기법 위주로 제작방식이 변화되었다. 선각 기법은 불상뿐 아니라 선사시대 암각화로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조각의 기본기법이다. 바위면을 평면으로 가공하거나 요철 부분만을 제거 후 연속된 선을 파내어 조각하는 기법과 정을 이용해 바위면을 두드려 형태를 구성하는 점각 기법이 대표적이다. 선각 작품의 대표 사례로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 마애육존상·법주사 창건연기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선각과 점각을 엄격히 구분한 것이 아닌 장인의 의지에 따라 두 기법을 병행해 사용했다.

망경암 마애불상은 소형이고 주변 암질이 조각용으로 적당치 않은 관계로 섬세한 표현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세부 조각기법을 분석해 보면 양감과 신체 볼륨을 강조하기 위한 고부조 기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 머리 뒷부분에 사각형으로 조성된 감실 역시 처음 의도는 감실(龕室) 내부에 불상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암질 특성 때문에 머리 부분에만 제한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각 장인의 의도에 따라 불신 전체를 감실 내부에 표현했다면 망경암 마애불상은 현재보다 입체감과 신체의 근육 표현이 도드라졌을 것이다. 사실성이 떨어지는 양 손의 표현 역시 고식(古式)의 선각표현이 아닌 면(面) 중심 위주의 표현기법을 따르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망경암 마애불의 조각 장인은 회화와 같은 평면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신체 볼륨을 강조하려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佛身)을 감실 전체에 담아내지 못해 평판적이고 입체감이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다. 망경암 마애불상은 조형미와 조각기법이 세련되진 못했으나 불상의 입체감을 강조하려던 목적으로 조형계획이 수립됐다. 그리고 세부표현에 있어 사실성이 떨어지나 당시 유행하던 일반 조각과 민중들이 지향하던 민불의 조형미를 토대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망경암 마애불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한국 마애불의 전통과 제작기법을 토대로 20세기 초 조선의 여건을 반영해 조성한 불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제작을 담당한 조각 장인은 영장산 주변에서 활동하던 석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도공(陶工)과 활자 주조공 등의 피랍으로 이들 산업이 위축된 것과 같이 18세기 이후 위축된 국내 여건으로 사적인 불교계 지원마저 감소하면서 불상조성 기회가 감소했고, 중국에는 우수한 불상조각 기술이 감소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망경암이 왕실의 기도처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불상조각이 불가능했던 것은 이와 같은 국내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사차 내부에는 고려시대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승장(僧匠) 집단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조각수준이 우수하지 못한 것은 불상조성을 통한 공덕보다는 망경암 칠성대가 갖고 있던 신앙의 기능에 더욱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4. 망경암 마애불의 조성배경과 미술사적 의의

1) 망경암 마애불의 조성배경

망경암 마애불은 불상 주변에 감실을 파고 새겨진 14곳의 명문을 통해 이곳에서 왕과 왕비·왕자 등 왕실의 명복을 기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종의 7남 평안대군과 손자 제안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단을 만들어 칠성재(七聖齋)를 지내왔는데 여기서 유래해 마애불이 조각된 바위를 칠성대(七聖臺)로 부르고 있다.

칠성신앙은 북두칠성을 부처님으로 의인화한 것으로 도교의 영향을 받아 주로 수명장수를 기원한다. 북두칠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칠성신앙은 별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도교의 인식으로부터 전환되어 독립된 신앙으로 정착됐다.

국내에는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지만 성행하지 않다가 조선말 유행했으며 사찰 경내에 칠성각(七聖閣)이라는 독립 전각이 생길 정도로 발전했다. 칠성은 주로 비를 내려 풍년을 이루게 하고 수명을 연장해 주며 재물을 준다는 믿음의 대상이다. 따라서 지극히 현세이익(現世利益)적 기복 신앙의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초창기 인도에선 북극성을 묘견보살(妙見菩薩)이라 했고 큰곰자리의 7개별을 북두(北斗) 내지는 북두칠성으로 불러 신격화 했다. 북극성인 묘견보살은 칠성을 권속으로 거느린다. 특히 묘견보살의 눈이 밝고 청정해 사물을 잘 보고,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며 국토를 옹호하여 재난을 제거하고 적을 물리치며 사람의 복을 늘리는 신으로 추앙 받았다.

불교에선 북극성의 밝기가 유별나 치성(熾盛)이라고 하는데 금륜불정치성광여래(金輪佛頂熾盛光如來)에서 기원한다. 도교에선 북극성을 모든 별을 통솔하는 자미대제(紫薇大帝)라고 불렀다. 칠성신앙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당나라 승려 일행(一行)에 의해 《약사칠불경(藥師七



도16 : 삼막사 칠성광심존불



도17 : 삼막사 여근석

佛經》의 칠성호마법(七星護摩法)을 통해 도교와 충돌 없이 수용된다. 《약사칠불경》에선 약사불을 주존으로 칠불 각각에 칠성의 이름을 부여했다. 그 결과 자미대제는 치성광여래로, 칠원성군은 칠여래로 대치되었다. 해와 달은 일광변조소재보살과 월광변조소재보살로 전환되어 치성광여래의 좌우보처가 되었다.

따라서 칠원성군은 칠여래의 화현이 되며, 수명을 관장하는 파군성군(破軍星君)이 약사여래의 화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약사신앙과 칠성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현세이익을 공통적으로 추구한 두 신앙의 유사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칠성신앙의 영향을 받은 불교 위경인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선 동방 부모·남방 스승·서방 아내·북방 친척·상방 행(行; 실천)이 높은 사람·하방 아랫사람으로 상징하고 있다.

망경암 마애불의 조성 장소인 칠성대는 이와 같이 조선시대 들어 전국적으로 유행한 칠성신앙의 기도처다. 칠성대 바위면에 새겨진 명문기록 역시 칠성재를 지냈거나 일찍 숨을 거둔 왕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어 단순 기복이 아닌 왕실의 추복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망경암을 각별히 운영해 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세종의 아들에 대한 추복 기록을 당시가 아닌 불상을 조성한 이규승(李奎承)이 담당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사료에는 이규승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몰락한 방계 왕족

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규승이 세종의 아들들을 별도로 추복한 것은 그가 평원대군, 제안대군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왕족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칠성신앙의 또 다른 예로는 시주자, 치성광불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1763년 제작의 삼막사 치성광삼존불(致誠光三尊佛)을 들 수 있다.¹¹⁾ 마애불 아래에는 '건륭이십팔년 계미 팔월 일오심수 시주 서세준(乾隆二十八年 癸未 八月 日悟心首 施主 徐世俊)'이라는 명문이 있어 1763년 조성임을 알 수 있다. 뒤이어 마애불을 조성한 이듬해 전각이 축조됐는데 전실(前室) 형태의 목조건축이 부가되어 석굴의 공간구조를 구성했다.

삼존불 중앙 연꽃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본존불상은 보주형태의 보륜을 들고 있는 석가모니의 화신으로 칠성신계의 주존인 치성광불이다. 조선시대 마애불 중 치성광여래로는 유일한 예이며, 본존의 좌우 일월이 장식된 관을 쓴 협시는 각각 일륜과 월륜보살이다. 조선 후기의 불교조각 중 격조를 유지하면서 세부기법에서 우수한 조각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칠성여래의 도상은 조각보다는 칠성태화의 도상으로 잘 나타나며, 불교와 전통신앙의 결합으로 나타난 조선시대 불교계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삼막사 치성광삼존불 주변에는 이 외에도 남근석과 여근석이 남아 있는데, 이 역시 불교계가 현세이익 또는 기복 중심의 민속신앙화 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조선은 망경암 이외에도 여러 왕실발원 사찰인 원찰을 경영해 왔다. 임진왜란 이후 승병활동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진행된 사찰중건을 통해 한양 주변에 다수의 사찰이 중건되었다. 이때 개개 사찰은 국가와 왕실에 대한 감사와 마치 사액서원과 같이 국왕의 권위를 빌어 유학자들의

11) 김삼룡,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3, p.108.

문명대, 《三幕寺 在銘磨崖三尊佛考》, 『又軒 丁仲煥博士還曆記念論文集』, 1974, p.195.

사찰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원찰을 표방했다. 그 결과 단순 재정지원만 이뤄진 사찰이더라도 원찰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들 사찰에는 불단 앞에 설치하는 불패 등에 '주상전하 천세' 등의 문구를 새겨 놓았다.¹²⁾

그 외 왕실 여인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원찰이 운영되었는데 홍은동 보도각 보살좌상은 홍선대원군의 부인 민씨가 고종의 천복을 빌었다. 이 외 관악산 학도암에도 동치 11년(1872) 명성황후의 후원으로 조성했다고 전해 오는 마애불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왕실 여인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매개로 한 종교행위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김천 수도암 사적에는 숙종의 둘째 왕비인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무고로 폐서인이 되었을 때 청암사 보광전에서 기도를 드렸고 그 인연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았으며 조선 말기까지 상공들이 내려와 신앙생활했었다고 전한다.¹³⁾

뒤이어 근세의 수도암 대중창주 대운스님이 청암사를 두 차례에 걸쳐 보수할 때 최송설당(崔松雪堂)이 대시주(大施主)로 참여했음을 기록했다. 최송설당은 김천 출신으로 영친왕(英親王)의 보모상궁이었다. 최송설당은 영친왕의 생모인 엄비와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많은 재산을 모았

12)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한강 유역의 임진왜란 이후 중건 사찰에는 금당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면 공간에 루(樓)형태의 대방(大房) 건축을 공통적으로 설치, 운영했다. 더욱이 가평 현동사 대방·봉은사 법왕루 등은 금당 전면에 별도의 예불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아무리 왕실과 반가의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남녀 간의 유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방문을 개방하기만 하면 금당에 예불을 드릴 수 있는 대방에서 별도로 예불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대방이 설치된 가람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왕실과 반가에서 후원한 원찰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대방건축에 대해선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유호진, 《조선시대 능침원당 사찰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 용주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홍병화, 《조선 후기 대형요사 형성배경과 분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5 No.4, 대한건축학회, 2009.

홍병화, 《조선 후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 사찰 중심영역의 배치 및 건축 계획의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13) 《修道庵 寺蹟記》



도18 : 김천 청암사 입구 최송설당 각자



도19 : 김천 청암사 입구 최송설당 각자 전경

다.¹⁴⁾

대운스님은 그녀를 통해 많은 궁녀들의 시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큰 불사를 두 차례나 일으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왕비, 후궁, 궁녀들이 불교계의 중요한 후원자로 활동했으며 최송설당의 사례를 통해 망경암 마애불 조성을 주도한 이규승 역시 왕실을 대표해 불상조성을 주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경암 마애불상의 존명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순 없으나, 이규승의 기록을 토대로 불상이 조성된 바위가 칠성대로 불려왔고 이곳이 왕실을 추복하기 위한 칠성신앙이 행해진 것을 고려한다면 칠성여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전술한 《육방예경》에서 북방이 천적을 상징하는데, 망경암 칠성대 마애불이 관악산과 목덕산을 조망할 수 있는 남쪽에 위치해 북쪽 왕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망경암 마애불상은 조선왕실의 추복지 중 한 곳이며, 칠성신앙의 현세이익 내지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조선 말까지 운영된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애불상은 도상 특징을 갖추지 못하고

14) 김호일, 《최송설당의 교육이념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Vol. 11, 국학연구소, 2006, pp. 197~236.

있으나 치성광 여래로 판단되며, 조선 말 민불을 조성했던 민중중심의 조형미를 반영해 제작된 것이다.

2) 망경암 마애불의 미술사적 의의

조선시대는 억불정책으로 사원 신창 금지는 물론 원당 설립과 설립지역의 분포까지도 제한했다. 그리므로 왕실과 가까운 도성이나 주변을 중심으로 원찰이 경영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지방에까지 태실과 능침사원 성격의 원찰이 확대 운영됐다. 원당을 경영했던 본래 목적이 천복과 기복에 있으므로 가능한 수도 한양과 가까운 장소에 설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원당은 유교적 충효를 불교적 기복불사(祈福佛事)로 대체한 것인 만큼 원당 소재지가 멀면 왕실에서 직접 내왕하기 어렵고 관심 또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원당의 설립이 비교적 용이했던 조선 전기에는 왕과 왕비의 능침사와 조포사의 기능으로 원당이 도성 부근에 건립됐다. 그러나 후기에는 도성 부근을 비롯해 비교적 원거리로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정치적 원인과 함께 경제적 집적의 수단으로 설립되는 절수원당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들 지역은 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승려들도 많아 원당 설립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원당은 원주(願主)나 발원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독점적 발원과 자유로운 불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왕실출입이 용인한 곳을 중심으로 사암(私庵)이 원당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조선 후기는 기능적으로 능침원당이 감소하고 경제적 목적 내지는 약화된 왕

15) 원당은 조선 전기 도성을 중심으로 한 도성 주변의 경기도 지역과 강원·충청지역에 집중적으로 창건되었다. 후기 역시 도성 부근의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되고 있으나 점차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원거리에도 설립된다. 이것은 부산 옥련선원 예에서 보여주듯이 임진왜란 이후 민심 결집과 전후복구라는 이중적 목적을 담고 있다.

16) 박병선, 《朝鮮後期 願堂의 設立 節次 및 構造》, 『경주사학』 29, 경주사학회, 2009, pp.53~98

실의 추복을 중심으로 절수원당이 건립되어 거리와 무관하게 명산대찰이나 사세가 큰 사찰이면 어디든 원당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갑오개혁 이전까지 승려의 도성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에서 원당 경영은 공식적으로 단절된 불교계와 왕실, 국가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또한 조선시대 왕비와 공주, 상궁 등은 국가정책과 무관하게 불교를 후원하고 사찰창건의 대공덕주로 활약했다. 원당 사찰들은 공덕주의 권위를 이용해 사찰을 경영했고, 해당 원찰의 중요 불사로 공덕주의 기원과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강해진 무속신앙과 불교의 습합현상은 교리를 기반으로 한 수행방식뿐 아니라 조형미술에도 영향을 끼쳐 전통적인 불상조성이나 가람경영을 벗어난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 냈다.

망경암은 비록 조선왕실이 경영했던 원찰기록이 문헌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칠성대 주변 암각 명문을 통해 칠성신앙을 매개로 왕실의 추복을 담당했던 원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광무개혁이 시행된 1897년 조성된 점은 다음의 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한국 마애불 제작의 전통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불교를 매개로 계승되었다.

둘째, 도성을 중심으로 경영되던 왕실 원찰 내지 원당 기능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이규승(李奎承)이 세종 자제들의 추복목적으로 망경암 마애불을 조성한 것은 고종황제와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고종은 삼종숙(三從叔)인 추존왕 익종의 양자로 입양되어 익종의 양자 자격으로 조선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다시 말해 고종은 본래 영조와 사도세자의 후손이 아니라 인조의 직계 후손이었다. 초기 대왕대비 조씨와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국정 운영권을 확보했지만, 조선은 이미 청과 일본 그리고 서구열강의 패권다툼으로 국력약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종을

비롯한 왕실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고종 2년(1865) 홍선대원군이 주도한 경복궁 중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왕궁재건이었지만, 왕권 강화를 통해 통치권 안정을 추구 하려던 의도였음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이규승은 표면적으로 세종의 자제 추복을 목적으로 마애불을 조성 했지만,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되살리고 왕실을 중심으로 국력을 강화하 려던 의도를 담았던 것이다. 이규승에 대한 문헌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적어도 왕실과 관계된 인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원찰경영 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조선 후기 불교와 민간신앙의 결합양상이 증가하는데 불상 조성 역시 전통적인 도상 위주의 근엄함과 신이성을 탈피해 민중지향적인 민 불 형태로 발전한다.

넷째, 한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승, 남한산성 인접지라는 지리·역사 적 의의를 통해 망경암 마애불이 왕실뿐 아니라 도성을 위해 조성된 비 보목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는 말

망경암 마애불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한국 마애불의 전통이 근대로 계승되는 마지막 작품으로서 불교조각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조선시대까지의 불상을 매개로 한 조각 전통이 서구미술의 영향으로 근 대로 대체되는 과도기에 제작됨으로써 한국 조각사에서 있어 분수령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마애불을 미륵불 또는 산천신앙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던 민중 지향적인 의식이 조형화 되는 과정에서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도상의 창출을 가져왔다. 이 불상은 전통적인 불상 도상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주변 칠성대와 불상조성 기록을 통해 칠성여래로 추정된다. 비록 경전 교리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도상의 자유를 가져온 것은 한국 불교 내지 사상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지향했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망경암 마애불은 수도 한양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에 위치함으로써 근거리 사찰에서 왕실안경을 기원하려던 원찰 경영의 지리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과 마애불의 조성시기, 발원 목적을 종합해 본다면 국가 위기상황에서 왕실추복을 통해 왕실주도의 국력강화 목적이 망경암 마애불 조성의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망경암 지역이 조선시대 도성수비와 경제적 배후지로서 특별히 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조각기법의 퇴색으로 주목되고 있지 못하지만 망경암 마애불의 가치는 한국 조각사 발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분석 및 지명유래에 대한 주민인지특성 연구

최만순

(문화학교 교장)

◆ 차례 ◆

1. 서론
2.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
 - 1) 지명유래의 의미와 유형
 - 2) 성남시 지명유래
3. 성남시 지명유래에 대한 주민인식 분석
 - 1) 설문조사의 개요
 - 2) 응답자 특성
 - 3) 지명유래 인지 특성
 - 4)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
 - 5) 설문결과와 종합
4. 결론

1. 서론

최근 도시정체성(identity)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자원, 거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규모 고밀개발을 우선시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많은 도시들은 전통과의 연속성이나 도시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반성하는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이란 그 도시가 담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오래 전부터 전해 온 역사나 문화, 환경이 도시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우리 사회에서 도시정체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지명을 들 수 있다. 지명(place name 또는 geographical name)은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표현된 것으로 필연적으로 해당 장소와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지명의 기원과 역사, 확산 과정과 분포 등의 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문화나 역사적 요소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명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지명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이해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인 도시정체성의 완성은 주민들부터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정체성의 역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성남시의 지명유래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유래에 대한 인지여부와 마을에 대한 애착심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남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유의 역사가 깊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남시민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를 갖는다.

1) 주성재(2011),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p.443

2.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

1) 지명유래의 의미와 유형

대부분의 지명은 그 유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명 전설은 한 지명의 지리적 특성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등의 생성과정에서의 설화적 요소가 가미된 유래담을 지칭한다.²⁾ 지명중에는 유래담에 의해서 지명으로 굳어진 것도 있고, 반대로 지명으로 정착된 후에 그 이름에 맞추어 꾸며진 이야기가 있는데, 전자를 전설지명, 후자를 지명전설이라고 하며 이들이 선후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³⁾

지명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불려지는 일정한 지역의 이름으로 산 이름, 바위 이름, 나무이름, 강 이름 등과 사람 이름이 지명화 되어 오늘날 까지 주민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⁴⁾ 또한 지명은 자연적인 소재 이외에도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도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사실에 허구가 덧붙여진 것, 순전히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명의 유래를 통해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와 주민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성남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의 각 동명의 유래를 정리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역사환경(인물, 사건 등), 공공시설(궁궐, 성 등), 주요시설(둔전, 기와터 등 특정 시설) 자연환경(산, 나무 등), 입지환경(위치) 및 몇 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복합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동명을 단순 통폐합하거나 유래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신태수(1989), 지명전설의 구조와 의미-고령지방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0, p.19

3) 도수희(2000), 옛 지명 해석에 관한 문제들, 지명학 3, p.31

4) 김지현(2001), 광주지역 전설의 문화적 활용방안 연구-지명전설을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p.8

5) 신태수, 전제서, p.76

2) 성남시 지명유래

(1) 수정구 지명유래

가. 주요 시설

수정구의 지명이 지역에 입지해 있던 주요한 시설에서 유래된 동은 둔전동, 북정동, 창곡동이다. 둔전동(屯田洞)은 군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인 둔전(屯田)이 있던 지역으로 둔전말 또는, 둔전촌(屯田村)으로 불리었다. 북정동(福井洞)은 이 지역에 큰 복우물(福井)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창곡동(倉谷洞)의 명칭은 몇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이 대여한 곡식을 거두어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다는 설과 조선조 말기 탄천일대에서 생산된 군량미(軍糧米) 창고(倉庫)가 있었다는 설, 병자호란 당시 군사들이 진을 펴던 곳(軍用地)이며 병기를 저장했던 곳(병기고)라는 설이 있다.

세 가지 설에서 공통적으로 창고터가 있었던 것과 같이 창곡동은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창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자연환경

수정구의 지명이 자연환경에서 유래된 동은 사송동과 심곡동이다. 사송동(沙松洞)의 경우 은 사촌(沙村)의 사(沙)자와 송현동(松峴洞)의 송(松)자를 취합한 이름으로, 사촌은 탄천의 범람으로 마을 주변에 사장(沙場)이 많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송현(松峴 : 솔고개)은 고개에 오래된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이 지역의 모래사장과 소나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심곡동(深谷洞)은 인능산(仁陵山) 밑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어 심곡(深谷)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다. 공공시설

수정구에 입지했던 공공시설인 궁이나 산성에서 유래된 동은 산성동과 수진동이다. 산성동(山城洞)의 경우 남한산성(南漢山城) 진입로인 산성로와 접해 있어 산성동이라 하였다.

수진동(壽進洞)은 세종대왕의 7째 아들 평원대군(平原大君:琳)의 묘소를 관리하는 수진궁(壽進宮)이 있어 궁말·궁촌·수진궁·수진동으로 변화되었다.

라. 역사환경

수정구의 지명 중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로부터 유래된 동은 상적동, 시흥동, 신촌동, 신흥동이다.

상적동(上笛洞)의 경우 천계산 밑으로 호걸들이 피리를 불며 유람하던 곳이라 하여 적촌(笛村)·저푸리·적취리라 하였는데 노상동(路上洞)의 상(上)자와 적취리(笛吹里)에서 적(笛)자를 합하여 상적동이라 불리었으며, 일설에는 덕수이씨네의 등과(登科)로 피리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붙여진 명칭이라고도 한다.

시흥동(始興洞)은 서울로 가던 길가에 살던 마을 주민들이 청계산(靑溪山) 일대에 숨어살던 도적떼를 피해 이주하면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노변(路邊)에서 이주시킨 마을이라 하여 '보넛말'이라 하던 것이 '모랜마'로 변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이제부터는 도적의 폐해가 없을 것이니 새로 흥할 수 있는 마을이라 하여 시흥리로 불리었다고 한다.

신촌동(新村洞)은 을축년(1925년) 대홍수 이후 삼전도(三田渡)가 침수된 후에 이곳에서 이주하여 온 수재민들로 이루어진 새마을, 새말 등으로 불리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다. 신흥동(新興洞)은 1973년 시승격 당시 동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부흥하자는 뜻으로 시정자문회의에서 붙인 이름이다.

마. 기타(입지환경 및 복합적 특성)

양지동(陽地洞)은 남향관의 양지쪽에 위치하여 양짓말이라 부르던 곳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오야동(梧野洞)은 예전에 기와를 구웠으므로 와실 또는, 왜실이라 칭하던 것이 오야리로 변했다는 설과 오동나무가 많고, 그 열매가 잘 열렸으므로 오야실(梧野實)이라 불리었다는 설이 있어 기와터라는 주요시설과 오동나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이 유래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표 1) 수정구 지명유래의 유형

구분	유래	유형
둔전동	군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인 둔전	주요시설(둔전)
복정동	복우물	주요시설(우물)
창곡동	창고터가 있었던 곳	주요시설(창고터)
오야동	기와를 구웠던 곳, 오동나무가 많은 곳	주요시설(기와터), 자연환경(나무)
사송동	탄천 범람으로 인한 모래사장, 소나무	자연환경(모래, 나무)
심곡동	인능산(仁陵山) 밑 깊은 골짜기	자연환경(산)
산성동	남한산성(南漢山城) 진입로인 산성로와 접함	공공시설(산성)
수진동	평원대군(平原大君:琳)의 묘를 관리하는 수진궁	공공시설(궁궐)
상적동	호걸들이 피리를 불며 유람하던 곳	역사환경(인물)
시흥동	도적의 폐해가 없을 것이니 새로 흥할 수 있는 마을	역사환경(사건)
신촌동	수재민들로 이루어진 새마을	역사환경(사건)
신흥동	시승격 당시 동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부흥하자는 뜻	역사환경(사건)
태평동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한 지역이 되자는 뜻	역사환경(사건)
양지동	남향관의 양지쪽에 위치	입지환경(위치)

(2) 중원구 지명유래

가. 자연환경

중원구의 지명중 자연환경에서 유래된 동은 도촌동, 여수동, 은행동이 다. 도촌동(島村洞)은 마을 앞뒤에 하천이 있어서 마치 섬처럼 생겼다 하여 섬말(島村)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여수동(麗水洞)이란 명칭은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다는 김윤탁(金允濯)이 마을 앞의 개울이 유난히 맑고 깨끗하다 하여 천자문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하여 금생여수(金生麗水)라 칭한 데서 유래되었다.

은행동(銀杏洞)은 마을에 있는 수고 30m, 둘레 6m, 수령 약 300년 가량의 은행나무가 여름이면 정자나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정(銀杏亭)이라 불리었고, 이 은행나무에서 은행동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

나. 역사환경

중원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서 유래된 동명은 금광동과 성남동이다. 금광동(金光洞)은 고려말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감약시(金若時)가 은거하여 살다 별세하였는데, 그 자손이 벼슬에 오르고 집성촌을 이루어 살게 되자, 광산김씨(光山金氏)네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금광리(金光里)라 칭하였다고 한다. 성남동명(城南同名)은 성남시 개발의 개척지로서 성남시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성남시의 명칭을 그대로 동명화한 데서 유래되었다.

다. 기타(입지환경 및 복합적 특성)

중동(中洞)은 성남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입지환경적 특성을 보인다.

갈현동(葛峴洞)의 유래는 갈마치 고개에서 유래하며, 고개 밑이 됴

로 갈마치 또는, 갈현이라 칭해진다. 갈현은 옛날부터 흙이 많은 지역에서 유래되었다는 자연환경 특성이 반영된 설과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에 말에 물을 먹여 갈증을 풀어주고 떠났다고 하여 갈마치라는 주요시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어 복합적 특성을 갖는다.

상대원동(上大院洞)과 하대원동(下大院洞)은 송언신(宋言愼)의 서원이 있는 곳(상대원)과 이집(李集)의 서원이 있는 곳(하대원)을 구별하여 부르게 되었다는 인물과 관련된 역사환경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려 시대에 큰 마당인 대원(大院)이 있어서 위쪽을 상대원 아래쪽을 하대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주요시설 측면의 유래가 있어 복합적 특성을 갖는다.

(표 2) 중원구 지명유래의 유형

구분	유래	유형
도촌동	마을 앞과 뒤에 하천이 있어서 마치 섬처럼 생겼다 해서 섬말(島村)이라 불림	자연환경(하천)
여수동	마을 앞의 개울이 유난히 맑고 깨끗하다	자연환경(하천)
은행동	은행나무	자연환경(나무)
갈현동	갈마치고개 밑 마을, 흙이 많이 나는 동네, 서울 가기 전 말에 물을 먹이는 곳	자연환경(산, 흙), 주요시설(갈마치)
상대원동	송언신(宋言愼)의 서원이 있는 곳과 이집(李集)의 서원이 있는 곳을 상대원, 하대원으로 구분, 고려시대의 대원(大院)이 있어서 위쪽과 아래쪽을 상대원, 하대원으로 나눔	역사환경(인물), 주요시설(큰 마당)
하대원동		
금광동	광산김씨(光山金氏)네가 사는 마을	역사환경(인물)
성남동	성남시 개발의 상징	역사환경(사건)
중동	성남의 중심부에 위치(현 중앙동)	입지환경(위치)

(3) 분당구 지명유래

가. 주요 시설

분당구의 지명 중 주요 시설에서 유래된 동은 서현동, 정자동, 판교동이다. 서현동(書峴洞)은 3백년 전에 배고개(피고개) 넘어 서당(書堂)이 있어 서당이 있는 고개라는 의미에서 서현동으로 불리어졌다. 정자동(亭子洞)의 경우에는 조선 중기에 이천부사겸 광주병마진관 등을 역임한 이경인(李敬仁, 1575~1642)이 이곳 탄천 상류에 정자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그 후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 정자리(亭子里)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판교동(板橋洞)의 명칭은 서판교 앞을 흐르는 운중천에 널판지로 다리를 놓고 다녀서 「널다리」라고 부르다가 「너더리」로 변했고 이것이 한자로 판교(板橋)라고 표기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분당동(盆唐洞)은 분점리(盆店里)의 분(盆)자와 당우리(唐隅里)의 당(唐)자를 취하여 분당동이라 칭하게 되었다. 여기서 분점리(盆店里)는 동이를 구웠다는 웅기점(甕器店)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당우리(당모루)는 이 지역에 당(唐)집이 있어서 당모퉁이 동네라고 하던 것이 당모루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 자연환경

분당구의 지명 중 자연환경적 특성에서 유래된 동은 금곡동, 백현동, 운중동, 이매동이다. 금곡동(金谷洞)의 명칭은 쇠(金)가 났다는 쇠골(金谷)의 한자 표기에서 유래되었다. 백현동(柏峴洞)은 재너머 마을 뒷고개 마루터기에 큰 잣나무가 있어 그 고개를 잣고개-재너머-백현이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운중동(雲中洞)은 계곡이 길고 깊으며, 앞 뒷산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

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매동(二梅洞)은 이 지역에 있는 들을 「이 무슬들」이라 하였고, 이곳의 지세가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다. 공공시설 및 입지환경

분당구의 궁내동(宮內洞)은 조선조 제11대 중종의 다섯째 아들인 덕양군 이기(李岐)의 묘와 영희군부인 권씨가 묻힌 무덤이 있어, 그 무덤을 관리하기 위한 작은 궁을 지었으므로 궁안 또는, 궁내(宮內)라 부르게 된 데서 유래한다.

동원동(東遠洞)은 동막동의 ‘동(東)’자와 원천동의 ‘원(遠)’자를 따서 만든 지명으로 동막(東幕)이란 동쪽이 막힌 곳, 혹은 동쪽에 막(집)이 있었던 곳에서 비롯되고, 광주군에 있는 원천동으로, 광주읍에서 가장 먼 곳 또는 떠나온 고향과 멀다는 뜻이다.

라. 기타(복합적 특성)

구미동(九美洞)은 마을 뒷산이 거북이 형국이라 구미(龜尾) 또는, 구산(龜山)이라 한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해김씨-밀양박씨-문화유씨 등의 아홉 성씨가 각각 아홉 개의 작은 취락을 이루어 살고 있어 구성리(九姓里)로 불렸다. 그런데 9개 성씨가 그 음이 달라서 구음리(九音里)라고 하였고, 그 아홉 성씨가 모두 화목하게 살았고 사람들이 모두 순하기 때문에 구순(九順)으로 부르다가 아름다운 일이 많다고 하여 구미리(九美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등 구미동 유래에는 자연환경적 특성과 마을의 역사환경 특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장동(大庄洞)의 명칭은 태릉(胎陵)의 영향을 받았다. 대장동 남쪽에 무덤 모양의 큰 산이 있는데, 이 봉우리에 인조의 태를 묻었으므로 그 산을 태봉(胎封)-태릉(胎陵)과 태장(太庄)으로 변하고, 다시 대장리(大庄

里)로 표기하였다는 이야기와 마을안에 큰 무덤이 있어서 태릉(太陵)이라 했다는 마을의 공공시설(능) 또는 주요시설의 복합적 지명유래 특성을 갖는다.

삼평동(三坪洞)의 명칭은 삼거리(三巨里:三街里)의 삼(三)자와 붓들(湫坪:福坪)의 평(坪)자를 취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입지적 특성과 들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이 지명유래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석운동(石雲洞)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구름이 자주 끼고 돌이 많아서 석운리(石雲里)라 칭하게 되었다는 설과 예전에 길 가던 선비가 해가 저물어 이곳에서 머물러 갔는데, 이로 인하여 일이 잘못되어 서운하게 되었다고 하여 「서운리」라 전해졌다는 자연환경적 특성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복합적 지명유래 특성을 보인다.

야탑동(野塔洞)의 동명칭은 오야소(梧野所)의 야(野)자와 상탑·하탑(牀榻·下榻)의 탑(塔)자를 취한 것이다. 오야소란 원래 앞의 들이 넓고 마을 주위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오동나무 들마을」이라 하다가 오동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는 마을로 변하였고, 그것이 다시 「왜실」로 줄었다가 한자화 할 때 오야소(梧野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또 상탑(上塔)·중탑(中塔)의 탑은 언제 어떻게 축조되고 해체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약 300여 년 전에 탑(塔·토탑, 土塔)이 있어서 탑골(塔谷)로 불리웠다고 한다. 이처럼 야탑동은 오동나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과, 탑이 많은 동네라는 주요시설의 지명유래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율동(栗洞)의 명칭은 밤의 명산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근(三斤)이나 되는 밤이 생산되었다고 풍자할 만큼 밤의 고장이라서 예로부터 취률리(取栗里), 석물을 갖춘 묘역이 많아서 석인리(石人里)라 했다고 한다. 이처럼 율동은 밤나무라는 자연환경과 석물을 갖춘 묘역이라는 주요시설이라는 복합적 지명유래를 보인다.

(표 3) 분당구 지명유래의 유형

구분	유래	유형
서현동	서당(書堂)이 있는 고개	주요시설(서당)
정자동	정자가 있는 마을	주요시설(정자)
판교동	운중천에 널판지로 다리를 놓고 다님 동이를 구웠다는 용기점(甕器店)이란	주요시설(다리)
분당동	의미의 분점리(盆店里)의 분과 당(唐)집이 있던 당우리의 당을 합침	주요시설(용기점, 당집)
금곡동	금을 채취하는 마을	자연환경(금)
백현동	갯넘어 마을 뒷고개 마루터기에 큰 잣나무가 있음	자연환경(나무)
운중동	계곡이 깊고 깊으며, 앞 뒷산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마을	자연환경(계곡, 구름)
이매동	이 지역에 있는 들의 지세가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임	자연환경(들)
궁내동	덕양군 이기(李岐)의 묘와 영희군 부인 권씨 무덤을 관리하기 위한 작은 궁이 있음	공공시설(궁궐)
동원동	동쪽이 막힌 곳, 광주에서 먼 곳	입지환경(위치)
구미동	마을 뒷산이 거북이 형국, 아홉 개의 아름다운 취락	자연환경(산), 역사환경(사건)
대장동	태릉(胎陵)의 영향, 마을안에 큰 무덤이 있음	공공시설(태릉), 주요시설(큰 무덤)
삼평동	삼거리, 들	입지환경(위치), 자연환경(들)
석운동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구름이 자주 끼고 돌이 많음 일이 잘못되어 서운하게 되었다는 의미	자연환경(골짜기), 역사환경(사건)
야탑동	오동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는 마을 탑(塔·토탑, 土塔)이 있는 마을	자연환경(나무), 주요시설(탑)
율동	밤의 고장, 석물을 갖춘 묘역이 많음	자연환경(밤나무), 주요시설(석물)

(4) 성남시 지명유래의 종합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마을에 있는 주요시설이나 자연환경으로부터 지명이 유래된 경우가 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지명이 유래된 경우는 8건으로 나타났다. 궁이나 성과 같은 공공시설로의 유래는 3건, 입지적 특성으로 인한 유래는 2건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시설, 자연환경, 역사환경, 공공시설, 입지환경적 유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지역은 10곳으로 나타났다.

수정구의 경우는 역사적 사건에 의한 지명유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원구의 경우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유래가 3건으로 나타났다. 분당

(표 4)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

유형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요시설(9)		둔전동, 북정동, 창곡동(3)		서현동, 정자동, 관교동, 분당동(4)
자연환경(9)		사송동, 심곡동(2)	도촌동, 여수동, 은행동(3)	금곡동, 백현동, 운중동, 이매동(4)
공공시설(3)		산성동, 수진동(2)		궁내동(1)
역사 환경 (8)	인물(2)	상적동(1)	금광동(1)	
	사건(6)	시흥동, 신촌동, 신흥동, 태평동, 양지동(5)	성남동(1)	
입지환경(2)			중동(1)	동원동(1)
복합적 특성 (10)	주요시설, 자연환경(4)	오야동(1)	갈현동(1)	야탑동, 율동(2)
	역사환경, 주요시설(2)		상대원동, 하대원동(2)	
	자연환경, 역사환경(2)			구미동, 석운동(2)
	공공시설, 주요시설(1)			대장동(1)
	입지환경, 자연환경(1)			삼평동(1)

구의 경우는 주요시설과 자연환경적 특성에서 지명이 유래된 경우가 각 4건으로 분석되었다.

3. 성남시 지명유래에 대한 주민인식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성남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지명의 유래를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심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성남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1:1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설문조사 개요

구분	유 래
설문일시	2014년 8월 24일 일요일 09시~18시
설문장소	모란역, 서현역 대합실
설문방법	1:1 면접조사
유효 설문부수	총 201부
주요 설문 내용	거주지, 거주기간, 지명유래 인지 여부, 지명유래의 의미나 키워드, 이명유래 인지 경로, 지명유래 관심여부, 희망하는 지명유래 인지 경로, 거주지에 오래 살고 싶은 의사와 그 이유,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개인특성(성별, 연령)

2)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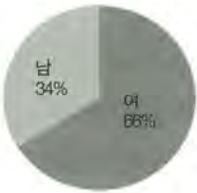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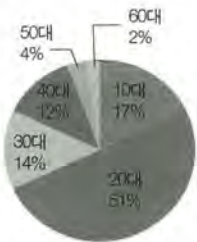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거주지는 분당구가 43%로 가장 많은 응답자 비율을 보였고, 수정구가 31%, 중원구가 26%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1년 이하가 10%, 1~2년이 16%, 3~5년이 16%, 5~10년이 19%, 10년 이상이 39%로 응답자의 58%가 5년 이상의 거주년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는 여성이 66%, 남성이 34%였고, 연령대로는 10대가 17%, 20대가 51%, 30대가 14%, 40대가 12%, 50대가 4%, 60대 이상이 2%로 10~30대의 응답자 분포가 높았다.

(표 6) 거주지 및 거주기간

거주지	명	비율	
수정구	62	31%	
중원구	52	26%	
분당구	87	43%	
합계	201	100%	
거주기간	명	비율	
1년 이하	19	10%	
1~2년	32	16%	
3~5년	32	16%	
5~10년	39	19%	
10년 이상	79	39%	
합계	201	100%	

(표 7)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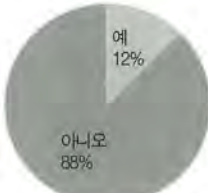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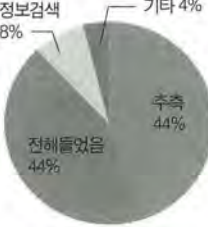
거주지	명	비율	
여자	133	66%	
남자	68	34%	
합계	201	100%	
연령	명	비율	
10대	35	17%	
20대	102	51%	
30대	28	14%	
40대	25	12%	
50대	7	4%	
60대	4	2%	
합계	0	100%	

3) 지명유래 인지 특성

지명유래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5명,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2%만이 지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25명의 경우 추측이 11명, 전해 들었다는 경우가 11명이 고, 정보검색을 통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지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명의 뜻이나 키워드를 질문하였을 때, 북정동의 북우물이나, 은행동의 은행나무, 정자동의 정자, 산성동의 남한산성, 중앙동의 중앙에 위치, 신흥동의 새롭게 일어나자는 의미 등 대부분 정확한 응답을 하였다.

(표 8) 지명유래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지명유래 인지	명	비율	
예	25	12%	
아니오	176	88%	
합계	201	100%	
인지경로	명	비율	
추측	11	44%	
전해 들었음	11	44%	
정보검색	2	8%	
기타	1	4%	
합계	402	200%	

지명유래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응답자 176명에게 지명유래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51%가 알고 싶다 라고 응답하였다. 지명유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제공의 경로는 지하철역이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에 소개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응답이 76%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13%, 지역신문 및 역사 문화 관련행사는 각 5%, 4%로 분석되었다.

(표 9) 지명유래에 대한 관심 여부 및 희망 정보제공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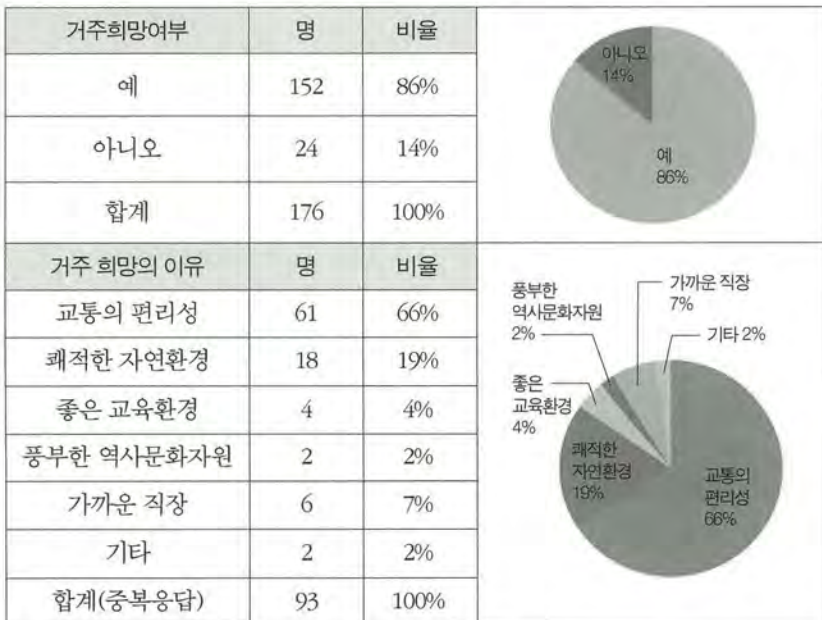
4)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응답자의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살기 좋다가 13%, 살기 좋다가 49%로 62%의 응답자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통이 29%, 살기 좋지 않다가 7%, 매우 살기 좋지 않다가 2%로 나타났다.

(표 10) 거주지 만족도



(표 11) 지속적인 거주희망여부 및 그 이유



설문응답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주지역에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86%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교통의 편리성이 66%, 쾌적한 자연환경이 19%, 가까운 직장 7%, 좋은 교육환경이 4%,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이 2%로 나타났다.

5) 설문결과의 종합

지명유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성남시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명의 뜻이나 유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명유래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마을에 지명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또한 알고 싶어하는 방법은 지하철역이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에 누구나 보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80% 이상은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이유는 교통의 편리성과 자연환경의 쾌적함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성남시 도시정체성의 역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성남시의 지명유래를 분석하여 유형화하였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유래에 대한 인지 여부와 마을에 대한 애착심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남시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는 것을 통해 도시정체성 확립을 증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의 마을단위로 스토리텔링이 요구되며 이를 브랜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남시 지명유래의 특성은 마을에 있는 주요시설이나 자연환경으로부터 지명이 유래된 경우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지명이 유래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궁이나 성과 같은 공공시설로부터 유래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통해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토착화된 지역의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 지명마다 고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의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소로써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지역 고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성남시민에게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소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남시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명의 뜻이나 유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명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유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광장이나 공원, 또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마을의 이야기나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성남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역사·문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의 정체성이란 그 도시가 담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오래 전부터 전해 온 역사나 문화, 환경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성남시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대부분 높게 나타났고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희망의 이유 중에 역사·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과 전시 등을 확장하고, 새로운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도시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도시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는 대부분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처럼 도시정체성,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성남 시도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의 유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남시의 도시정체성 형성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지명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여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남시의 지명유래를 유형화하고 지명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를 통해 성남시민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지현(2001), 광주지역 전설의 문화적 활용방안 연구-지명 전설을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도수희(2000), 옛 지명 해석에 관한 문제들, 지명학

신태수(1989), 지명전설의 구조와 의미-고령지방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0

주성재(2011),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

(설문지)

“우리 동네 지명 유래”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조사

성남시는 오래 전부터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의 이름인 지명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전해 온 유래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성남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지명의 유래를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심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남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을 준수하며,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1.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동)

2. 현재 살고 계신 동네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1년 이하 2) 1~2년 3) 3~5년 4) 5~10년 5) 10년 이상

3. 현재 살고 계신 동네의 지명 유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예(3-1, 3-1로) 2) 아니오(3-3, 3-4으로)

3-1. 알고 계신 동네의 지명유래의 뜻이나 키워드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3-2. 지명 유래를 알게 되신 경로는 무엇입니까?

1) 추측 2) 전해 들었음 3) 정보검색 4) 기타

3-3. 지명 유래를 모르시는 분의 경우, 지명 유래에 대하여 궁금하십니까?

1) 예(3-4로) 2) 아니오(4로)

3-4.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싶으십니까?

- 1) 지역신문에 소개
- 2)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소개
- 3) 역사문화 관련 행사에서의 소개
- 4) 지하철, 공원 등에 잘 보이는 곳에 소개
- 5) 기타

4. 현재 살고 계신 동네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41.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체크 가능)

- | | |
|------------|---------------|
| 1) 교통의 편리성 | 2) 쾌적한 자연환경 |
| 3) 좋은 교육환경 | 4)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
| 5) 가까운 직장 | 6) 기타 |

5. 현재 살고 계신 동네가 전반적으로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살기 좋다 | 2) 살기 좋다 |
| 3) 보통 | 4) 살기 좋지 않다 |
| 5) 매우 살기 좋지 않다 | |

◎ 통계분석을 위해 설문응답자의 간단한 정보를 질문하겠습니다. ◎

◎ 귀하의 성별은?

- | | |
|-------|-------|
| 1) 여성 | 2) 남성 |
|-------|-------|

◎ 귀하의 연령은?

- | | | | | | |
|--------|--------|--------|--------|--------|-----------|
| 1) 10대 | 2) 20대 | 3) 30대 | 4) 40대 | 5) 50대 | 6) 60대 이상 |
|--------|--------|--------|--------|--------|-----------|

성남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성남시의 동별 지명유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선 전기 군사훈련과 성남

김 옹 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 차례 ◆

1. 군사훈련 실시의 역사적 배경
2. 군사훈련의 종류
3. 군사훈련의 실시와 성남
4. 군사훈련의 역사적 의미

1. 군사훈련 실시의 역사적 배경

1392년 7월 이성계(李成桂)가 개경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면서 조선왕조는 한국사에 등장하였다. 함경도 변방 출신의 일개 무장에 지나지 않았던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또 새 왕조를 개창한 것이다. 이런 혁명과도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려 말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고려 말의 특수한 환경이 없었더라면 변방 출신 무장 이성계가 개경의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고속 승진하고, 권력을 잡고, 더 나아가 새 왕조까지 개창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 12~1374. 9)은 1351년 원(元)의 낙점을 받아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였다. 13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원은 14세기에 들어와 황위(皇位)를 둘러싼 지배층의 내분과 이에 따른 지방 통제력의 약화, 과도한 수취와 가파른 물가상승에서 비롯한 피지배층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공민왕은 원의 지원을 받아 조카 충정왕(忠定王)에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원에서 10여 년간 숙위(宿衛)하면서 원의 쇠퇴해 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더욱이 원의 요청에 따라 고려는 1354년 장사성(張士誠)의 한족 봉기군을 토벌하기 위해 염제신(廉悌臣)·인당(印璫)·정세운(鄭世雲)·최영(崔瑩) 등의 장수와 군사를 파견했는데,¹⁾ 1355년에 돌아온 이들의 보고를 통해 공민왕은 원의 쇠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

원의 쇠퇴를 확인한 공민왕은 측근들과 사전에 준비한 후 1356년 드디어 반원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³⁾ 기철(奇徹) 등 부원(附元) 세력을 척결하고, 원 간섭기(元干涉期) 이전의 관제(官制)로 복귀했으며, 인당(印璫)을 파견하여 요동(遼東)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이성계의 부친 이지춘(李子春)의 협력을 받아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회복하였다.⁴⁾

이 과정에서 공민왕은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 《고려사》 권38, 世家 38, 공민왕 1, 공민왕 3년 6월 신묘·계묘, 11월 정해.

2) 《고려사》 권38, 세가 38, 공민왕 1, 공민왕 4년 5월.

3) 《고려사》 권111, 열전 27, 鄭之祥;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2, 공민왕 5년 5월.

4) 공민왕의 반원 개혁에 대해서는 민현구, 1989 <고려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치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68, 1989; 민현구, <고려 공민왕대 반원적 개혁정치의 전개과정> 《택와 허선도선생 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참조.

고려 전기 거란의 대군을 격파하는 등 군사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던 고려가 원의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군사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공민왕은 이처럼 위축된 군사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고려전기처럼 토지와 군인을 연계지우는 역제(役制)의 복구가 어려웠고, 더욱이 135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倭寇의 침탈이 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고려 국방체제의 무게 중심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지방 군사의 番上도 어려워져서 공민왕의 의도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반원개혁을 단행한 공민왕 때부터 고려는 이른바 ‘북로남왜(北虜南倭)’라 하여 남북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였다. 원 간섭기에는 원과의 평화 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남쪽 지역만이 변방으로 간주되어 왜의 침입에 대비한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가 설치되었는데, 이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 모두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야 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북쪽으로부터는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대규모 외침이 있었고, 이 외에도 1362년의 나하추(納哈出)의 동북면 침입, 원(元)의 지원을 받은 1364년의 덕흥군 최유(德興君·崔濡)의 침입, 1382년(우왕 8)과 1383년 2회에 걸친 호발도(胡拔都)의 동북면 침략 등이 있었다. 4만·10만에 달하는 홍건적의 침공에 맞서 고려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간신히 격퇴할 수 있었다. 나하추·덕흥군·호발도 등의 침입은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유력 장수를 파견하여 격퇴하였다.

한편 남쪽으로부터는 왜구가 침입을 자행했는데, 단발적인 북쪽의 외침과 달리 이들의 침탈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히 우왕 때에는 한 달에도 몇 차례나 침입하여 남부 지역은 농토가 황폐화되어 버렸고, 거주민들은 경작과 전투를 병행하는 ‘차경차수(且耕且守)’ 상태에 놓이게 되어 더 이상 중앙

으로의 변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⁵⁾

〈표 1〉 공민왕~공양왕 때의 왜구 침입 상황

연도	회수	월평균	연도	회수	월평균	연도	회수	월평균
공민왕 1년	7	0.58	공민왕 18년	1	0.08	우왕 7년	26	2.17
공민왕 3년	1	0.08	공민왕 19년	2	0.17	우왕 8년	23	1.92
공민왕 4년	2	0.17	공민왕 20년	1	0.08	우왕 9년	47	3.92
공민왕 6년	4	0.33	공민왕 21년	10	0.83	우왕 10년	20	1.67
공민왕 7년	6	0.50	공민왕 22년	3	0.25	우왕 11년	12	1.00
공민왕 8년	4	0.33	공민왕 23년	10	0.83	우왕 13년	7	0.58
공민왕 9년	5	0.42	우왕 1년	11	0.92	우왕 14년	14	1.17
공민왕 10년	3	0.25	우왕 2년	39	3.25	창왕 1년	5	0.42
공민왕 11년	1	0.08	우왕 3년	54	4.50	공양왕 2년	1	0.08
공민왕 12년	8	0.67	우왕 4년	48	4.00	공양왕 3년	2	0.17
공민왕 13년	8	0.67	우왕 5년	37	3.08	공양왕 4년	1	0.08
공민왕 14년	5	0.42	우왕 6년	40	3.33			
총 계	468(0.93※)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47쪽을 참조하여 작성.

※ 표시는 침입이 없던 연도도 함께 계산하여 산출한 왜구의 월평균 침입 회수.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군사 제도가 바로 원수제(元帥制)와 사병(私兵)이었다. 지역별로 군사 책임자로 원수(元帥)를 두고 이들에게 군사 징발권과 통수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징발된 군사는 국가의 공병(公兵)이면서도 개별 원수(元帥)들과 사적(私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병의 성

5) 김용호, 〈조선초기 京軍 재편과 수도방위〉 《서울학연구》 23, 2004, 97쪽 참조.

격이 강하였다. 이렇게 출현한 사병은 1400년(정종 2)에 혁파될 때까지 정국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사병 중에서도 이성계가 거느린 군사들은 특별하였다.⁶⁾ 원수로 임명된 장수들은 자신과 무관한 일반 군현민 중에서 병사를 징발해 통솔 과정에서 사적 관계를 맺는 반면, 이성계는 선대(先代)로부터 자신의 가문에 경제적·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왔던 민(民) 중에서 선발한 군사를 거느렸던 것이다.

사료에 '가별치(加別赤)=가별초(家別抄)'로 나타나는 이들은 이성계의 선조가 함경도 지역에 정주(定住)한 이후 거느렸던 예속민으로, 이성계 선조뿐 아니라 이 지역의 토호(土豪)나 여진족장들도 자신들의 가별초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성계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별치를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다른 가별치 집단까지 자신의 세력권에 둬으로써 동북면(東北面)의 실력자로 떠올랐다.

이 점이 고려 말에 이성계와 함께 신흥무장(新興武將)으로 파악되는 최영(崔瑩)·변안렬(邊安烈)·지용수(池龍壽) 등과 이성계가 구별되는 점이다. 이성계는 친병(親兵)으로 표현되는 이들 가별치 집단을 발판으로 하여, 홍건적·나하추·호발도 등을 격퇴하고 황산(荒山=전북 남원)에서 왜구를 대파하는 등 혁혁한 군사적 업적을 쌓았으며, 또한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이후 4년 여에 걸친 반대세력과의 지난한 정쟁(政爭)에서 승리하여 새 왕조 조선을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왕이 된 이성계는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던 만큼 국가 통치에서 군사력과 군사훈련이 가지는 의미를 잘 파악했을 것이다. 이성계를 이어

6) 이성계가 거느린 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유창규, <이성계 세력과 조선건국>,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6, 9~27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7) 《정종실록》 권1, 총서(總序).

왕이 된 정종 역시 고려 말에 아버지 이성계 휘하에서 전투에 참가했던 무장 출신이었다.⁷⁾

정종을 이은 태종도 비록 1383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문신(文臣)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지만, 즉위한 후 자신의 잦은 사냥을 비판하는 대간에 대해 “나는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다. 비록 대강 시서(詩書)를 익혀서 우연히 유자(儒者)의 이름은 얻었으나, 실상은 무가(武家)의 자손이다”라고 반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무인적(武人的) 성격도 강한 인물이었다.⁸⁾

그는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으로 있던 때 세종에게, 몸이 비대하니 때때로 사냥을 나가서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는 한편 문(文)과 무(武) 어느 한쪽도 폐(廢)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⁹⁾

태종을 계승한 세종은 비록 武와 어울리는 체질은 아니었지만, 부왕의 유지(遺志)를 계승하여 말년 병들기 전까지 습진(習陣)과 강무(講武) 등의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군례의식(軍禮儀式)으로 확립하였다.¹⁰⁾

이처럼 14세기 후반부터 수십 년간 지속된 외침 또는 대외관계의 긴장은 군사력의 확보와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환기시켰고, 더욱이 군사 방면에 밝은 무장 출신이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그 후계자 역시 군사 방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조선 초에는 군사훈련이 다양한 형식으로, 비교적 대규모로, 자주 거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군사훈련이 세종 때를 거치면서 군례의식(軍禮儀式)으로 확립되어 국왕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준수해야 하는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전·이후 시기와 구별되는 조선 전

8) 《태종실록》 권1, 종서;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10월 1일(을사).

9)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10월 9일(을유).

10) 세종 때 체계화, 정례화 된 군사훈련은 《세종실록》 권133, 〈오례, 군례의식(五禮, 軍禮儀式)〉에 잘 나타나 있다.

기만의 독특한 군사훈련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2. 군사훈련의 종류

1) 개인훈련 : 습사, 관사, 시사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은 국왕의 주도 아래 다양한 형식으로, 비교적 대규모로, 자주 거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녔다.¹¹⁾

군사훈련의 다양한 형식은 크게 개인훈련, 집단훈련, 실전훈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훈련은 개별 군사의 군사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검술과 활쏘기 연습, 화포의 조작과 방포(放砲) 연습, 병서(兵書)의 습독(習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상 활쏘기[습사·관사(習射·觀射)]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사료에서는 개인훈련인 활쏘기를 습사(習射), 관사(觀射), 시사(試射) 등으로 표기하였다. 본래적 의미의 습사는 군사 등이 활쏘기를 익히는 행위를, 관사는 국왕이나 상급자가 활쏘기를 관람하는 행위를, 시사(試射)는 시상을 위해 활쏘기를 시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지만 조선 전기의 경우 관사는 국왕이 활쏘기를 관람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국왕이 직접 활을 쏘는 경우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¹²⁾

성종 때까지는 국왕의 친림(親臨)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관사라는 용어를 쓴 데 반해, 중종 때가 되면 국왕이 친림하지 않는 활쏘기도 관사로 표현하여 관사의 범주와 성격이 조금 애매해지기도 하였다.¹³⁾

11) 조선 전기 군사훈련의 형식과 내용이 체계화·법제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가 있는 강무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되, 연구가 부족한 관사(觀射)와 열무(閱武)는 조선 전기 군사훈련의 형식과 내용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종 때를 기준으로 삼아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12)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21일(임자).

13)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3월 10일(무술).

관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당일 궁궐에 입직(入直)한 무사(武士)들이었다. 무사들은 무신당상관, 무관, 무사(武臣堂上官, 武臣, 武士) 등으로 표기하는데, 주로 궁궐 숙위를 책임지는 위장(衛將)과 부장(部將), 국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시위(侍衛)하는 금군(禁軍)인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 등을 가리키며, 그리고 궐문(闕門)의 파수(把守)와 4개의 직소(直所)에 입직하는 갑사(甲士)와 궁궐에 입직한(驕) 正兵들도 사기 진작과 습사(習射)를 강조하기 위해 간혹 그 대상에 포함하였다. 정병을 대상으로 한 관사의 경우 많을 때에는 200명도 넘게 참여하였다. 과녁을 많이 맞춘 재중다자(中多者)에게는 아마(兒馬), 호피(虎皮), 녹피(鹿皮), 궁(弓), 전(箭) 등을 상으로 주었다.

성종 때가 되면 관사는 본래 성격을 유지 강화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문신 중에서 무사(武事)를 익히는 자를 선발하거나 종친들과 친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한 도(道)의 군사를 총괄하는 절도사(節度使)까지는 무신을 등용하지만 그 이상의 고위 군사지휘관은 대부분 문신이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문신 중에서 무사(武事)를 익히거나 능한 자를 미리 선발하여 평시에도 계속 군사(軍事)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성종 때의 경우 관사를 이 목적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승전(陞轉)과 관련한 규례가 없었던 종친들을 위해 경서(經書)를 강독하는 전강(殿講)과 함께 관사를 종친의 승전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즉 종친을 대상으로 한 관사 때의 점수를 연말에 통계하여 1등인 사람에게 가자(加資)하도록 한 것이다.¹⁴⁾

성종은 고려 의종(毅宗) 때와 중국 송나라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활쏘기를 중시하게 된 까닭을 밝히기도 하였다. 즉 고려 의종 때에는 서북방

14) 《성종실록》 권69, 성종 7년 7월 12일(계축).

에 병란(兵亂)이 있었는데도 임금이 날마다 김돈중(金敦中)의 무리와 시주(詩酒)를 일삼아서 당시의 여론이 이를 좋지 않게 여겼고, 중국 송나라는 문치(文治)는 융성했지만 무략(武略)은 쇠퇴했다는 평가가 있어 자신은(武를 강조하기 위해) 활쏘기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¹⁵⁾

또한 조선은 삼면이 적의 침입을 받으므로 잠시라도 무비(武備)를 게을리 할 수 없는데도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 되어 무신들은 당상관으로 오르자마자 활쏘기를 좋아하지 않고 문신들은 스스로 유자(儒者)라고 생각해서 활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직접 종친, 문신, 재상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여 장사(將士)들을 격려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으며,¹⁶⁾ 자신이 이렇게 관사를 함으로써 지금은 문신들도 활쏘기를 잘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¹⁷⁾

성종 때의 관사는 그 대상을 크게 무사(武士), 문신, 종친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점차 그 대상을 세분화하였다. 무사의 경우 무신 또는 무신 당상관과 금군, 갑사와 정병으로 세분하였고, 1474년(성종 5)부터 시작한¹⁸⁾ 문신 관사(文臣 觀射) 역시 정승·판서 등의 고위 문신과 승지·홍문관원·사관·주서(注書) 등의 시종신(侍從臣)으로 구분하여 거행하였다.

다른 관사와 달리 종친을 대상으로 관사할 때에는 ‘친친(親親)’을 강조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덧붙여 잔치까지 베풀었다.¹⁹⁾ 또 종친 관사에 여악(女樂)을 동원하여 대간에서 이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 다른 관사에서는 남악(男樂)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²⁰⁾

15)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4일(을미).

16)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22일(계축).

17) 《성종실록》 권102, 성종 10년 3월 28일(갑신).

18) 《성종실록》 권45, 성종 5년 7월 7일(경신); 《성종실록》 권45, 성종 5년 7월 15일(무진).

19)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4일(을미).

20) 《성종실록》 권107, 성종 10년 8월 3일(병술).

성종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엄격함을 위주로 하지만주엄(主嚴) 친척은 화합을 위주로 한대주화(主和)는 논리로 대응하면서 여악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²¹⁾

관사할 때 대간이나 사관이 입시하는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신하들은 관사할 때 종친들이 술을 마시고 무례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데²²⁾ 법을 관장하는 대간이 참여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왕의 동정은 반드시 사관이 기록한다는 점에서 대간과 사간 입시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²³⁾

반면 성종은 '궁궐 후원(後苑)에서 관사할 때 대간이 입시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대간 입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사관 입시에 대해서도 조종조(祖宗朝)에 입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 시각을 유지하였다.²⁴⁾

초기 사림파(士林派)들은 관사를 놀이(희사(嬉事))로 규정하고 특히 종친을 대상으로 한 관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²⁵⁾

이런 비판에 맞서 국왕은 조선은 삼면에서 적이 침입하므로 무비(武備)를 게을리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관사(觀射)는 무비(武備)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 훈구파(勳舊派)는 백관에 대한 탄핵을 담당하는 언론 기관에 포진한 사림파를 의식하여 대간의 지적이 옳다고 수궁하면서 관사는 결코 희사(嬉事)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왕의 입장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였다.²⁶⁾

연산군 때가 되면 종친 관사에 대한 대간의 비판은 종친들의 국왕에

21)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26일(임자); 《성종실록》 권107, 성종 10년 8월 2일(을유).

22) 연산군 때의 종친 관사에서 종친들이 실례를 범한 내용을 기재한 기사를 보면(《연산군일기》 권58, 연산군 11년 6월 10일(계해)) 이러한 대간의 우려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성종실록》 권108, 성종 10년 9월 4일(정사).

24) 《성종실록》 권102, 성종 10년 3월 28일(갑신);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26일(임자).

25) 《성종실록》 권115, 성종 11년 3월 3일(계미).

26) 위와 같음.

대한 무례를 염려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왕이 종친과 짝을 지어 활을 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데로 이어졌다.²⁷⁾

대간들은 그 근거로서 국왕은 신하들과 재능을 다투지 않으므로 대사례(大射禮) 때에도 짝이 없이 혼자서 활을 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²⁸⁾

이처럼 종친 관사에 대한 대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자 이에 맞서 한동안 국왕이 종친을 불러서 관사를 자주 거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대간의 비판은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무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관사는 그 성격이 변화하여 점차 무력화·놀이화되어 갔다. 특히 활쏘기와 더불어 투호(投壺)를 병행하고 또 아마(兒馬) 등을 걸고 내기를 하도록 한 것이²⁹⁾ 관사가 놀이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 집단훈련 : 습진, 열무, 대열

집단훈련은 진(陣)을 치거나 행군할 때, 그리고 전투할 때 필요한 집단행동을 익히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료에서는 대개 ‘좌작진퇴(坐作進退)’를 익히는 것으로 나오며, 집단훈련의 실시에 앞서 개별 군사들이 말이나 무기, 우구(雨具) 등의 장비를 제대로 구비했는지를 검열하는 경우도 많았다.

태조 때에는 집단훈련을 ‘진법(陣法)’으로, 그 이후에는 ‘습진(習陣)’·‘열무(閱武)’ 등의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대규모로 실시할 경우 ‘대규모의 열무’라는 의미의 ‘대열(大閱)’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진법 훈련은 태조 때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왕조의 기초를 닦은 정도전(鄭道傳)은 군사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1393년(태조 2)에 의흥삼군부 판사(義興三軍府 判事)가 되어³⁰⁾ 군사 업무를 총

27) 《연산군일기》 권27, 연산군 3년 9월 11일(기유).

28) 《연산군일기》 권27, 연산군 3년 9월 12일(경술).

29) 《성종실록》 권218, 성종 19년 7월 30일(신묘).

팔했을 뿐만 아니라, 진법 훈련의 교본에 해당하는 《진설(陣說)》을 편찬하고 〈오진도(五陣圖)〉와 〈수수도(蒐狩圖)〉를 작성하여 군사훈련의 이론도 마련하였으며,³¹⁾ 더 나아가 절제사(節制使) 휘하 군관을 동원하여 실제로 도성 안에서 진법 훈련을 거행하기도 하였다.³²⁾

정도전이 왕자의 난으로 제거된 후 그가 진법을 강조하고 훈련을 주관했기 때문인지 한 동안 진법 훈련은 거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태종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1409년(태종 9)에 이르러서야 ‘습진(習陣)’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되어 이후 꾸준히 거행되었다.

1433년(세종 15) 7월, 하경복(河敬復)·정흠지(鄭欽之)·정초(鄭招)·황보인(皇甫仁) 등이 왕명에 따라 기존의 《진설》을 개정한 《계축진설(癸丑陣說)》을 편찬해 울리니 주자소(鑄字所)에서 〈진도(陣圖)〉와 함께 인쇄 반포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였다.³³⁾

진법은 1451년(문종 1)에 또 한 차례 개정되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었던 국왕 문종이 친히 《신진법(新陣法)》을 짓고 수양대군(首陽大君)·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에게 교정하게 하여 완성하였다. 이때는 평상시 군사 조직인 12사(司)와 전투시 조직인 5위(衛)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사를 5司로 바꾸는 군제(軍制) 개편도 단행하였다.³⁴⁾ 5사는 몇 년 후인 1457년(세조 3) 3월에 5위로 변경되어³⁵⁾ 조선 전기 궁궐 宿衛와 수도 치안의 담당하는 주체로 활동하였다.

30)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1월 27일(정묘)에 “의흥삼군부 판사 정도전을 보내(소를 통째로 바치는) 태부(太부)로써(武의 상징인) 독(蠶)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를 보면 정도전은 1393년 1월 이전에 의흥삼군부 판사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 정도전, 《三峰集》 권7, 〈陣法〉;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8월 20일(계사);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6월 14일(갑오).

32)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8월 9일(무자).

33)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을묘)·18일(기사).

34) 《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7월 2일(무술).

35)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3월 6일(기사).

열무는 국왕이 금군과 번상하러 올라온 군사를 이끌고 모화관이나 한강변의 칠덕정(七德亭) 같은 넓은 곳으로 이동하여 진법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이자 말과 무기, 장비 등을 점검하는 검열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활발하게 열무를 거행했던 성종 때를 보면, 진법 훈련만 거행할 때도 있지만 다른 훈련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사(觀射)를 거행하기도 하고 격구(擊毬)를 구경하기도 하였다.³⁶⁾

또한 군사를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첫째 그룹이 둘째 그룹을 둘째 그룹은 셋째 그룹을 셋째 그룹은 첫째 그룹을, 다치지 않도록 겹을 가죽으로 둘러싼 활이나 창으로 공격하는 삼갑사(三甲射)나 삼갑창(三甲槍)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³⁷⁾ 더 나아가서는 열무를 마친 후 인근의 산으로 이동하여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⁸⁾

3) 실전훈련 : 강무

실전훈련은 개인훈련과 집단훈련을 익힌 군사들을 징발하여 실제 전투에 비견되는 사냥을 거행하는 것이다. 사냥은 규모가 작고 대개 하루 정도 거행하며 ‘소강무(小講武)’라고도 불렀던 관렵·타위(觀獵·打圍)와 대규모 병력을 징발해서 대열을 실시한 다음 며칠에 걸쳐 사냥을 진행하는 강무(講武)로 구별할 수 있다.³⁹⁾

강무는 중국 고대의 주나라에서 천자가 매년 춘하추동에 거행했던, 각각 ‘수(蒐)’, ‘묘(苗)’, ‘선(獮)’, ‘수(狩)’라고 부르던 사냥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무는 첫째, 농한기에 군사를 훈련시켜 군사적 능력을 높이고연병(鍊兵), 둘째, 강무를 통해 잡은 짐승을 종묘 제사에 올리며[천금(薦禽)], 셋째, 백성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짐승을 제거하는 데[위민제

36) 《성종실록》 권10, 성종 2년 4월 16일(무오); 《성종실록》 권27, 성종 4년 2월 2일(계해).

37) 《성종실록》 권10, 성종 2년 5월 7일(기묘).

38)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16일(임인).

39) 실전훈련 역시 지면 관계상 관렵·타위는 생략하고 실전훈련의 핵심인 강무만 다루고자 한다.

해(爲民除害) 그 목적이 있었다.⁴⁰⁾

1396년(태조 5) 11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강무 거행을 건의해서 허락을 받았지만,⁴¹⁾ 태조 때에는 강무가 제대로 거행되지 않았다. 1397년(태조 6) 12월 양주 목장에서 강무했다는 기록이 있지만,⁴²⁾ 앞뒤 기록을 살펴보면 태조가 시위부대 정도만 거느리고 살곶이 들판에서 습진(習陣)이나 관렵(觀獵) 따위를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 군사 훈련의 핵심이던 강무는 조사의(趙思義)의 난(1402.11)을 진압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1403년(태종 3)부터 본격적으로 거행되었다.

태종 때에는 태상왕(太上王, 이성계)의 홍서(薨逝)에 따른 국상(國喪) 기간과 몸이 불편했던 말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봄가을에 강무를 거행하였다. 태종은 재위 18년간 총 23회를 거행하였는데, 봄에 행하는 춘등(春等) 강무가 13회이고 가을에 행한 추등(秋等) 강무가 10회였다. 춘등 강무는 음력 2월 하순에서 3월 초까지, 추등 강무는 음력 9월에서 10월 사이에 거행하였다. 강무 기간은 짧으면 3~5일에 그치기도 하고 길 때는 20일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10일 내외가 평균이었다.⁴³⁾

세종 때 강무의 거행 시기와 기간은 태종 때와 비슷하였지만 그 규모가 이전에 비해 커지기 시작했다는 차별성을 보였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과 단종 때에는 국상으로 인해 강무를 거행할 수 없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조 때에는 강무가 크게 위축되어 횡수도 재위 14년 동안 9회에 그치고, 기간도 2~5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성종 때에는 재위 25년간 단 6회의 추등 강무만 거행했으며, 연산군과 중종, 인종, 명종 때에는 한 차례도 거행되지 않았다.⁴⁴⁾

강무를 거행할 때에는 한두 달 전에 관원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미리

40) 이현수,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軍事》 45, 2002, 235·263쪽 참조.

41)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1월 30일(갑신).

42)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15일(계사).

43) 이현수, 앞의 논문, 238~241쪽 참조.

통지하였다. 국정 지대인 양계(兩界)의 군사와 당번(當番)인 군사, 다음 당번인 군사는 뽑지 않았고 그 외의 군사 중에서 할당된 숫자만큼 징발하게 하였다. 강무에 참여하는 군사 수는 세종 때를 경유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504년(연산군 10) 8월 당시 병조판서였던 임사홍(任士洪)은 “대열 때 징발한 군사는 3만 명이고, (군사들의 시중이나 군수품 운반을 위해 따라온) 솔종(率從)이 8만~9만 명이나 됩니다”라고 하였다.⁴⁵⁾

이를 보면 대규모로 징발할 경우 강무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만 명이 넘는 셈이다. 이렇게 징발된 군사들이 양주(楊州)의 녹양평(綠楊坪)이나 살곶평(箭串坪, 살곶이 들판), 광주(廣州)의 정금원(鄭金院) 등에 모이면 국왕이 그곳으로 거동하여 대열(大閱)을 거행하고 일단 환궁하였다.

며칠 뒤에 국왕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징발된 군사를 거느리고 강무장으로 결정된 곳으로 이동하여 10~20일간 장소를 바꿔가며 사냥을 거행하고, 동원 기간이 끝날 무렵 다시 군사들을 점고(點考)한 후 파진(罷陣)하여 징발된 군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국왕 일행은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강무는 종료되었다.

이처럼 강무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판서급의 인물을 강무지응사(講武支應使)로, 병조낭청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⁴⁶⁾ 강무지응사는 성종 때까지만 보이

44) 이현수, 앞의 논문, 242~250쪽 참조. 이현수는 성종 때 6회, 연산군 때 0회 강무를 거행했다고 하고, 이처럼 강무의 빈도가 줄어든 원인으로 武備 중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들었다. 성종 때의 경우 대규모의 군사를 징발한 뒤 大閱은 거행했지만 강무까지 이르지는 않은 사례도 강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두 차례나 대규모로 여진 정벌을 단행했으며, 성종 초반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화관 등에 거동하여 열무를 거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전처럼 무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 때에는 많은 군사를 징발하여 대열을 거행하고 이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되, 날이 저물면 환궁했다가 다음날 다시 나와 사냥을 하는 방식으로 강무를 거행하였다. 즉 강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강무를 하되 운영방식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45) 《연산군일기》 권55, 연산군 10년 8월 27일(갑신).

46)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0월 9일(을해).

고, 성종 때부터 원유사(苑囿司(使))라는 기구 내지 직책이 출현하여 병조와 더불어 강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였다.⁴⁷⁾ 한편 1536년(중종 21) 6월에는 오랜만에 강무를 준비해서인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징병사(徵兵司)라는 기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⁴⁸⁾

3. 군사훈련의 실시와 성남

1) 군사훈련의 실시 장소

군사훈련의 장소 역시 개인훈련인 관사, 집단훈련인 습진·열무, 실전 훈련인 강무 순서로 살펴본다. 습사·관사는 들판 같이 광활한 곳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므로, 국왕이 머무는 궁궐의 후원이나 경복궁의 경회루 앞쪽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열렸다. 궁궐 밖에서 관사를 거행하는 경우 관사 자체만 거행하는 사례는 드물었고 대부분 주목적인 열무(閱武)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치로서 시행하곤 하였다. 궁궐 밖의 경우 돈의문 밖에 있는 모화관(慕華館)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외에도 드물지만 한강변의 칠덕정(七德亭)과 중랑천변의 箭串坪(살곳이 들판) 등에서 거행하기도 하였다.⁴⁹⁾

열무는 북소리와 징소리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을 구성하는 진법 훈련이 핵심으로, 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돈의문 밖의 모화관 일대는 궁궐과 가까워 국왕이 거동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화관 앞쪽으로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열무에 적합한 장소였다. 더욱이 주변에 무

47) 《성종실록》 권109, 성종 10년 10월 7일(기축); 《연산군일기》 권59, 연산군 11년 9월 24일(을사).

48)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6월 28일(신해).

49) 《중종실록》 권78, 중종 29년 9월 25일(무자);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3월 27일(정유).

악이나 인왕산이 있고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예종의 창릉(昌陵)과 덕종의 경릉(敬陵)이 조성된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 있어 사냥까지도 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장점도 지녔다. 이 때문에 조선 전기 국왕들은 주로 모화관에서 열무를 거행하였다. 이곳 외에도 너른 들판이 있는 전관평과 낙천정(樂天亭) 일대에서 열무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열무의 규모가 작으면 궁궐 후원에서도 거행하였다. 건립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세조 때부터 창덕궁 후원에 있는 열무정(閱武亭)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이 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후원에서 열무를 자주 거행하게 되자 열무의 지휘 공간으로 특별히 조성한 건물이었다. 1561년(명종 16) 7월 국왕이 이곳으로 거둥하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유생들에게 제술(製述)을 시험하고 무사들에게 관사를 시행했는데, 이때 참여자가 삼공(三公)·육경(六卿)·시종신(侍從臣과) 양사(兩司)·시강원(侍講院)의 관원들, 가선대부(嘉善大夫)와 통정대부(通政大夫) 등 80여 명이 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⁵⁰⁾

참여자들이 고위직이거나 주요 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80여 명이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고 시를 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열무정의 규모는 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기사로 볼 때 열무정은 열무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건립되었지만, 관사 같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잔치, 유생 시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강무에서는 사냥뿐만 아니라 먼 곳으로 이동하는 행군 그 자체도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 그러므로 주로 궁궐이나 성 안팎에서 거행했던 관사·열무와 달리 수십 리 혹은 수백 리 떨어진 경기나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서 거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심지어 태종 때에는 전라도 임실까지 내려가 강무를 거행하기도

50) 《명종실록》 권27, 명종 16년 7월 13일(신축).

하였다.

강무 장소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항은 태종 때 강무를 위한 상소(常所) 즉, 강무장(講武場)을 결정하였던 점이다. 사냥을 위한 원유(苑囿)가 별도로 조성되었던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강무를 할 때마다 장소를 결정하여 백성들에게 손해와 불편을 끼치는 일이 많았다. 강무장 설정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의 결정에 따라 강원도의 평강(平康), 횡천(橫川), 이천(伊川), 평창(平昌), 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와 실미원(實美院), 풍해도(황해도)의 우봉(牛峰)과 대둔산(大菴山), 경기의 임강(臨江), 수회(水回), 마성(馬城), 장단(長湍), 칠장(七牆), 안협(安峽), 광주(廣州), 양근(楊根), 유후사(留後司, 개성)의 태정곶(筈井串)·덕연동구(德連洞口) 등 여러 지역이 강무장으로 정해지게 되었다.⁵¹⁾

강무장은 세종 초에 재조정을 거쳐 경기의 광주·양근, 철원·안협, 강원도의 평강·이천·횡성·진보 등 4개 지역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강무장은 해제되었으며, 강무장 안에서는 기존에 살던 사람과 이전부터 경작했던 농지 외에 새로운 사람의 이주와 경작, 벌목, 사적인 사냥 등을 전면 금지하게 하였다.⁵²⁾

세종 때의 강무 장소는 1420년(세종 2) 춘동 강무를 황해도 해주에서 거행한 사례를 제외하면 경기(6회)와 강원도(24회)로 한정되는 차별성을 보였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과 단종 때에는 국상으로 인해 강무를 거행하지 못하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조 때의 강무 장소는 강원도 2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풍양(豐壤)·청계산·아차산 등 서울 근교였다. 이것은 문종 때 완성된 새로운 진법(陣法)에 따른 군사훈련 방식의 전환 외

51)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2월 3일(신미).

52)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2월 22일(경신).

에도 강무를 사냥(전렵(田獵))으로 이해한 세조의 인식 때문이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세조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성종 때에는 주로 경기에서 강무를 거행했으며, 강원도의 경우 김화·평강·철원에서 한 차례 거행했을 뿐이었다. 연산군 때에는 아예 서울과 가까운 근교에서만 강무를 거행하였다.

2) 군사훈련의 실시 장소로서의 성남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성남과 관련 있는 곳으로 정금원, 낙생역, 대야원, 갈마고개 등 네 곳이 등장한다.⁵³⁾

정금원의 한자 표기는 ‘定今院’과 ‘鄭今院’ 두 가지로 나오는데, 1490년(성종 21)을 기준으로⁵⁴⁾ 그 이전에는 ‘定今院’으로, 그 이후에는 ‘鄭今院’으로 표기하고 있다.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서 ‘정금원평’을 검색하면 ‘정금원위전’이라는 항목에서 “현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과 복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 한동역의 논문에서는 “지금의 송파구 일대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까지를 통틀어서 정금원이라고 불리는 전국 최대의 훈련장”이라 하여, 정금원평의 범위를 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로 보았다. 이 두 기록에 근거할 때 조선 전기의 鄭今院坪(정금원 들판)은 좁게 보면 현 서울공향과 그 동쪽에 있는 탄천 건너편을, 넓게 보면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53) 정금원·낙생역·대야원·갈마고개 외에 ‘탄천교(炭川郊)’도 나오는데, 탄천교는 국왕이 묵던 정금원이나 낙생역 들판과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생략하였다. 지금의 성남 지역이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 장소로 활용된 것에 대해서는 성남학연구소장 한동역 선생(〈성남지역 왕실문화 연구〉《성남문화연구》10, 2003)과 상임연구위원 윤종준 선생의 논문(〈조선의 강무장 운영과 성남〉《성남문화연구》20, 2013)이 많은 참조가 되었다.

54) 《성종실록》 권243, 성종 21년 8월 19일(기해).

분당구 일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정금원은 조선 전기에 강무를 거행하고자 전국의 군사를 수도 주변으로 모을 때 주로 이용했던 집결 장소였다. 연산군 때 병조판서였던 임사홍에 따르면 북쪽 군사는 녹양평(綠楊坪, 지금의 양주시 양주1·2동 일대)에서 집결하고, 남쪽 군대는 鄭今院坪에서 모인다고 하였다.⁵⁵⁾

군사들이 정금원평에 모이면 국왕이 이곳으로 거동하여 대열(大閱)을 거행한 후 군사를 이끌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강무를 거행하였다.

낙생역(樂生驛) 역시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서 검색해 보면, “현재 성남시 분당구 수내 2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앞의 수내로와 돌마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인 역말 광장 일대와 수내동 푸른 마을 주변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중앙공원 앞쪽으로 추정된다. 낙생역 앞 벌판은 국왕이 사냥하고자 광주에 거동했다가 천막(장전(帳殿)·행악(行幄)·파오달(波吾達))을 치고 하룻밤 묵거나, 강무 때 국왕이 대열한 후 묵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다음은 1477년(성종 8) 국왕이 정금원 들판에서 군사를 사열하고 낙생역 앞 벌판에서 묵은 기록이다.

임금이 戎服을 입고 興仁門을 나서니 백관들이 도로 왼쪽에서 공손히 전송하였다. 임금을 태운 수레가 廣州의 정금원 들판에 이르러 대열을 거행하고(左廂·右廂·中廂) 三廂(에 속하는 군사)으로 하여금 교전하게 하였다. 저녁 때 낙생역 앞 벌판의 파오달에 도착하였다.⁵⁶⁾

大也院 역시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서 검색하면 “그 터의 대략적인 위치는 중원구 하대원동 일대로 추정된다”라고 하였다. 또 《내고장성남》의 ‘상대원동’ 항목에서는 “옛날에는 대야원이라는 역원이 있었고

55) 《연산군실록》 권55, 연산군 10년 8월 27일(갑신).

56)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3일(정유).

역원의 아래 위의 마을을 통틀어 대원리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⁵⁷⁾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대야원은 현재의 상대원동이나 하대원동에 있던 역원(驛院)이며, 두 동의 이름이 대야원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을 보면 조선 전기에 대야원은 국왕이 거둥할 때 점심을 먹거나 습진(習陣)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을 태운 수레가 대야원에 이르러 점심을 하였다[晝停].⁵⁸⁾

좌찬성 신숙주(申叔舟)와 병조판서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 양정(知中樞院事 楊汀)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대야원 들판에서 진법을 익히게 하였다. 선전관 권절(宣傳官 權節)에게 명하여 선운(宣醞)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고, 아울러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호궤(犒饋)].⁵⁹⁾

갈마(치) 고개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과 광주시 삼동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이다.⁶⁰⁾ 갈마고개는 《조선왕조실록》에 ‘加乙磨峴’, ‘加乙麻古介’, ‘加乙麻峴’ 등으로 표기되었다. 아래의 기록을 보면 국왕이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직접 사냥을 하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태종과 세종) 두 임금이 갈마고개[加乙磨峴]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저녁에 아질지평에 머물렀다.⁶¹⁾

57) 성남문화원, 《내 고장성남》, 2014, 56쪽.

58) 《세종실록》 권96, 세종 24년 4월 22일(임자).

59)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윤2월 7일(을축).

60)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의 ‘갈마치고개’ 항목.

61) 《세종실록》 권15, 세종 4년 3월 1일(무오).

양녕대군·효령대군과 함께 매사냥을 하고 드디어 갈마재[加乙麻峴] 남쪽에서 물이하고 인하여 길에서 점심을 먹었다. 양녕대군이 이 천으로 돌아가니 술과 사슴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炭川郊에서 유숙하였다.⁶²⁾

4. 군사훈련의 역사적 의미—조선 전기 수도방위 구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를 조선 전기의 수도방위 구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⁶³⁾

원과 명의 교체에 따른 중국 대륙의 동요는 조선 건국 무렵에 이르러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명나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렇지만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또 왜구와 여진족이 간헐적으로 침입하여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도 대상지를 물색하였기 때문에, 도읍지 선정에서 풍수상의 길지 여부나 수륙 교통의 편리 정도는 아니지만 ‘방어의 유리함’도 고려 대상이 되었다. 천도 후에 쌓은 한양의 도성은 결합이 없지 않았으나 실제로 성을 둘러싸고 전투가 벌어질 것에 대비하여 축성한 것이었다.

조선 초의 중앙군은 유사시 수도권 전반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이었으며, 정예 병력이 결집해 있는 중앙군의 편제 자체가 유사시의 도성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국방 체제에서 경기 지역은 수군

62)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0월 4일(무오).

63) 이 장의 내용은 김용호, 〈중앙군과 수도방위〉 《서울 2천년사 1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290~295쪽을 참조하였다.

의 방어 체제만 편성되어 있었고,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적이 한양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화와 교동에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북방에서 침입하는 적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막아낼 수 있도록 익군(翼軍) 체제를 편성·운영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의 도성 방어 전략은 가급적 도성으로부터 먼 곳에서 적을 방어·격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⁴⁾

조선 초 국방의 관심은 도성보다는 잠재적인 적이 침범할지도 모르는 북쪽의 국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국경의 관방(關防)시설을 튼튼히 하여 그곳에서 외적을 격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고려 이래로 북방 민족에 대처하던 전통적인 군사 전략으로, 그 안에서 도성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이해한 방어 체제의 연장이었다.⁽⁶⁵⁾

이처럼 조선 전기의 집권세력은 방어의 유리함을 고려하여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도성을 쌓았다. 또한 정에 병력을 결집하여 중앙군으로 편제하고, 국경의 관방시설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군사 전략을 채택하여 그 속에서 도성 방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외에 조선 전기 집권세력의 수도방위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1597년(선조 30)의 실록에 실려 있어 주목된다.

備邊司에서 啓하였다. “……祖宗朝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군사를 5위에 분속시켜 평상시에는(이들을 동원하여) 훈련하는 규정이 있고 유사시에는 쉽게 징발하게 하였으니 그 법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화기가 되면서(이 법을)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申明하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⁶⁶⁾

(64) 오종록, 〈조선 초엽 한양 정도 과정과 수도 방위〉 《한국사연구》 127, 2004, 231~240쪽 참조.

(65) 정해은, 〈조선초기 도성의 위상과 도성방어론〉 《서울학연구》 49, 2012, 113~126쪽 참조.

《경국대전》을 보면, 갑사(甲士)와 별시위(別侍衛) 등을 5위에 분속(分屬)할 뿐만 아니라 경(京)·개성부(開城府)와 8도의 진관(鎭管)·진(鎭)의 군사까지도 5위의 각 부(部)에 분속시켰다.⁶⁷⁾

즉 중앙군을 구성하는 병종(兵種)뿐만 아니라 신규(新舊) 수도인 한성부와 개성부, 그리고 전국 8도의 군사를 5위에 분속시킨 것이다(〈표 2〉참조). 임진왜란이라는 대규모 외침이 발발하고 나서야 조선 초에 전국 군사를 5위에 분속시킨 이러한 규정의 의미와 효용성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즉, '전국 군사의 5위 분속'은 그 분속 체계를 통해 평상시에는 지방군을 중앙으로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에는 수도방위를 위해 지방군을 징발하는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후 평화기가 도래함으로써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선조 30년 당시의 비변사 구성원들은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조선 전기의 5위 제도는 공민왕 말엽 나주목사 이진수(李進修)의 상소에서 비롯하였다.⁶⁸⁾ 그의 상소문은 전국의 중앙 분속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는 중앙의 경우 국왕-검설관(怯薛官)-도통사(都統使)-4軍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세우고 지방을 중앙의 4군에 분속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진수의 방안은 중앙군의 지휘체계를 세우는 한편 외침으로 수도가 위협을 받을 때 지방군을 수도방위에 동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였다. 고려 말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던 이진수의 건의는 조선 건국 후인 1394년(태조 3)의 '전국의 3軍 분속', 1421년(세종

66)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17일(정축).

67) 《경국대전》 권4, 병전(兵典), 오위(五衛).

68) 《고려사》 권81, 兵志 1, 兵制, 공민왕 20년 7월.

3)의 '8도의 5위 분속' 등으로 현실화하였으며,⁶⁹⁾ 태조~세종 때 몇 차례 현실화한 전국의 중앙 분속은 문종 때의 조정을 거쳐 《경국대전》에서 법제화하였다.

한편 '전국 군사의 5위 분속' 외에 '번상제도의 적용'과 '국왕 중심의

〈표 2〉 전국 군사의 5위 분속 내역

5위	중부(中部)	좌부(左部)	우부(右部)	전부(前部)	후부(後部)
義興衛 의흥위	京 中部, 개성부, 경기 양주·광주·수원·장단 鎭 管軍士	강원도 강릉·원주·회양 진관군사	충청도 공주·홍주 진관군사	충청도 충주·청주 진관군사	황해도 황주·해주 진관군사
龍驤衛 용양위	경 동부, 경상도 대구 진관군사	경상도 경주 진관군사	경상도 진주 진관군사	경상도 김해 진관군사	경상도 상주·안동 진관군사
虎賁衛 호분위	경 서부, 평안도 안주 진관군사	평안도 의주·구성·삭주 진관군사 창성·창주·방산·인산 鎭軍士	평안도 성천 진관군사	평안도 영변·강계·벽동 진관군사 벽단·만포·고산리·위원·이산·영원 진군사	평안도 평양 진관군사
忠佐衛 충좌위	경 남부, 전라도 전주 진관군사	전라도 순천 진관군사	전라도 나주 진관군사	전라도 장흥·제주 진관군사	전라도 담원 진관군사
忠武衛 충무위	경 북부, 영안도 북청 진관군사	영안도 갑산 진관군사 삼수·해산 진군사	영안도 온성·경원·경흥 진관군사 유원·미전·훈융 진군사	영안도 경성·부령·회령·종성 진관군사 고령·동관 진군사	영안도 영흥·안변 진관군사

출처 : 《경국대전》 권4, 병전, 경관직, 종2품 아문, 오위.

※ 영안도는 《경국대전》 편찬 당시 함경도의 명칭.

69)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2월 29일(기해);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8월 12일(임인).

군사훈련 실시'도 조선 전기의 수도방위 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번상제도가 수도방위의 주체인 중앙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면 군사훈련은 이러한 군사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수단이었다.

고대부터 존재하였던 번상제도는 지방에 거주하는 시위패(侍衛牌)의 상경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건국 당시에도 군사 제도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번상제도가 중앙군 확보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것은 1410년(태종 10)에 중앙군의 핵심인 갑사에게 번상제도를 적용하면서부터였다.⁷⁰⁾

1,000~2,000명에 달하는 직업군인으로 서울의 상주 병력인 갑사에게 번상제도를 적용하고 이후에 계속 정원을 확대하자, 갑사는 금군(禁軍)의 성격을 탈각하고 점차 위병(衛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신 내금위(內禁衛)·검사복(兼司僕) 등 백 단위의 소규모 병종이 새로 창설되어 금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태종 후반부터 금군을 제외한 모든 병종들이 번상 제도를 매개로 운영되면서, 태종 후반 이후의 중앙군 형식은 태조 때의 '상주병(常駐兵) 중심·번상병(番上兵) 보완'에서 '번상군 중심·상주병 보완'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태조 때 천 단위의 친군위 갑사(親軍衛 甲士)가 상주하고 번상하는 시위패가 이를 보완하는 형식에서, 천 단위의 번상하는 갑사·正兵이 주력을 이루고 백 단위의 금군만이 상주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중앙군 중에서 번상군 비중이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군사력 저하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중앙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었다. 군사훈련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훈련인 습사(習射), 집단 훈련인 진법(陣法)·열무(閱武), 실전 훈련인 강무(講武), 그리고 급변대비

70)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2일(무진), 5월 12일(무인).

훈련인 취각령(吹角令)·첩종(疊鐘)·첩고(疊鼓) 등이 있었다. 태조 때의 진법 훈련의 실시로 본격화한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은 태종~세종 때를 거치면서 강무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태종과 세조 때에는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취각령 또는 첩종·첩고 등의 군사훈련 제도를 도입·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은 성종 때를 거치면서 《경국대전》의 반포를 통해 법제화되는 한편 관사(觀射)·열무·강무 등 제반 군사훈련의 운영방식도 확립되었다.

한편,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가 몰락하고 태종이 집권한 후 군사훈련의 주도권이 재상으로부터 국왕으로 옮겨갔다. 중앙군의 지휘체계를 국왕을 정점으로 재편한 것과 동일하게 군사훈련의 주도권도 국왕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태종 때 틀이 잡히기 시작한 국왕 중심의 군사훈련은 이후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자리 잡았다. 태종을 계승한 조선 전기의 국왕들은 습사·열무·강무 등을 직접 주관하면서 군사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에서도 국왕의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러한 국왕 중심의 군사훈련은 16세기에 접어들면 사정이 바뀌긴 하지만 적어도 15세기에는 국왕과 집권세력이 모두 동의하는 군사훈련의 주된 방식이었다.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국왕과 집권세력 모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렇지만 16세기 들어와 군사훈련의 빈도와 규모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형식화되어 갔다. 국왕이 군사훈련을 주관하는 모습도 현저히 위축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안민(安民)'을 강조하는 사림(士林) 세력의 영향력 확대와 중종반정(中宗反正)을 거치면서 나타난 국왕의 권위 약화, 대립(代立)의 성행, 목장(牧場)의 농경지(農耕地)로의 전환에 따른 마가(馬價)의 상승이라는 구조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평화기의 도래, 풍습병에 걸려 며칠간의 야

영이 필수적인 강무를 거행할 수 없었던 중종이 40년 가까이 재위했다는 점,⁷¹⁾ 그리고 명종과 선조가 각각 12세와 16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우연적 측면도 ‘국왕 중심의 군사훈련’이 16세기에 들어와 변질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 중에서 서울에 있는 군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군사까지 징발하여 국왕이 친히 수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0일 동안 봄가을에 거행했던 강무는 ‘국왕 중심의 군사훈련’과 수도방위 구상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강무가 군사적 능력의 함양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수만 명의 지방군을 굳이 서울로 올라오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강무를 거행하면 강무 자체의 기간을 제외하고도 지방군은 상경했다가 하향(下鄉)하는데 수십 일을 소비하였다.

그러므로 강무가 군사력 향상만 목적으로 했다면, 해당 지역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군사를 모아서 강무 기간과 오고가는 기간을 합친 날짜만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군사력 향상에는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상경과 하향에 따른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내하면서까지 지방군을 서울로 불러 모아 국왕의 주도 하에 강무를 거행했던 것은 이들이 해당 지역에 모여 장관(將官)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상경하고 하향하는 것 자체가 유사시 수도 서울을 구원하는 근왕병(勤王兵)으로서 왕래하는 길과 방식을 익히는 일종의 예행연습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전국 군사의 5위 분속’과 ‘번상 제도의 적용’, ‘국왕 중심의 군사훈련 실시’는 조선 전기의 수도방위를 위한 세 가지 제도적 장치였다. 조선 전기의 집권세력은 전국 군사의 5위 분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71) 중종은 즉위하기 전인 연산군 말엽 국왕인 연산군을 따라 자주 사냥을 나갔다가 풍습병에 걸렸다.

평상시에는 지방군을 불러 올려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에는 근왕병으로 동원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번상 제도를 적용하여 수도방위의 주체인 중앙군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⁷²⁾

전근대 한국사에 등장했던 왕조들은 외침(外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내란(內亂)으로부터 왕실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선왕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이전과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은 국왕이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훈련의 빈도가 잦고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수도방위 구상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는 특징을 지녔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조선 전기 군사훈련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72) 전국 군사의 5위 분속, 번상 제도의 적용, 국왕 중심의 군사훈련 실시 등 조선 전기 수도방위 구상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漢城百濟와 南漢山城의 再照明

한 동 역

(성남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서론
2. 삼국사기 기록

1. 서론

남한산성은 한민족문화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다. 남한산성은 백제역사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성백제 495년간의 역사와 백제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태는 남한산성에서 한성백제를 거의 등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산성은 온조왕(溫祚王) 13년까지는 위례성이라는 이름의 백제의 도읍이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 중 “온조왕 13년에 한산(漢山)에서 내려와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민가를 옮겼다”라는 기록

을 상고하여 보면 확실한 해답이 나온다.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이후에는 백제의 도읍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한 고서(古書)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삼국시대 중에서도 통일신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성백제의 서울이 풍납토성(風納土城)이다, 몽촌토성(夢村土城)이다, 이성산성(二城山城)이다, 남한산성이다, 북한산성(北漢山城)이다, 직산(稷山)이다, 하며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으로 나뉘어 혼돈의 세계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한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중에 70cm짜리 대형 기와를 통일신라의 것으로 정리한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대형 기와의 역사는 고구려(高句麗)와 발해(渤海)의 유물 속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이 중국과 북한에서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통일신라의 기와라고 하면 경주(慶州)에서는 어찌하여 한 장의 대형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무엇으로 어떠한 당위론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대형 기와가 당시에 고구려에서 전해 온 기와라는 등식은 성립되는 이 유가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때에 간자(間者)인 도림(道琳)이 장수왕의 밀명을 받아 백제에 간첩으로 침투하여 바둑과 장기로서 개로왕의 환심을 산 이후에 백제는 천험의 요새의 지형으로 인하여 막강한 강병부국이면서도 왕이 거처하는 궁성이 화려하고 장엄하지 못하고 선대왕들의 능묘(陵墓)가 가매장된 것처럼 초라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개혁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결행하여야 한다고 개로왕을 설득하여 궁성과 성곽 그리고 선대왕들의 능묘를 개장(改葬)하게 하고 사성(蛇城, 몽촌토성)에서 지금의 하남시 검단산(黔丹山)까지의 긴 제방을 신설하게 함으로써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형토목공사와 화려한 궁실의 신축비용으로 인하여 백제는 감내하기조차 힘든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수(漢水)가에 위치한 선대왕 능묘를 석곽(石槨)으로 개장하였고 능묘로(陵墓路)의 개설, 그리고 성곽의 수축비용으로 인하여 국비를 탕진하게 하여 국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기록에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백제에 없었던 고구려식의 대형 기와를 궁실에 올리게 함으로써 궁실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동시에 표출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군왕에 대한 위엄을 한층 높여 갖추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도림의 설득력 있는 제안을 모두 받아들여 더욱 빠르게 국고를 탕진시킨 것으로 보면 대형 기와는 개로왕이 궁실을 다시 지을 때인 한성백제 말기의 것으로 수정정리 하여야 한다.

남한산성은 백제의 진수이며 백제문화의 발상지이며 한민족의 역사에서 삼국 중 최고의 문화를 창출하였던 곳이라는 사실이 숨 쉬고 있는 민족의 성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신라가 다투어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바탕으로 삼국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백제문화가 창시된 보배로운 성지이자 한민족역사의 대중(太宗)을 이루는 큰 줄기이며 한민족역사의 산 증거지이다.

그런데도 삼국사기 속에 있는 남한산성의 기록들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삼국사기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어 삼국사기 백제 편에 기록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한산(漢山)과 한성(漢城)의 실재를 기록한 수록(收錄)들을 먼저 기술하고 상고하여 가면서 필자의 의견을 첨가하여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촉진시켜 줌으로써 남한산성에 대한 편향적)시각을 바꾸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 기술하고, 그 대목마다 필자의 생각을 토로하고 기록함으로써 한성백제에 대한 당시에 상황을 짐작으로라도 알게 할 수 있으며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편을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 삼국사기의 온조왕 편 의 전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대별로 왕들의 행장과 그들이 행한 기록들을 기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역사란 한 번 왜곡되면 한 세기가 지나가도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구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찬란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는 물론 정신세계와 사회풍조마저 유린당하는 수모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므로 한성백제 역사와 남한산성의 재조명이 꼭 필요한 것이다.

2. 삼국사기 기록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은 그 아버지는 추모(鄒牟)인데 혹은 주몽(朱蒙)이라고도 하였다. [주몽은 북부여(北扶餘)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卒本扶餘)에 이르렀다. 부여 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沸流)라 하였고, 둘째 아들은 온조(溫祚)라 하였다. 혹은 “주몽이 졸본에 도착하여 월군(越郡)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두 아들을 낳았다” 고도 하였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孺留, 琉璃의 오기인 듯함]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烏干), 마려(馬藜) 등 열 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

(負兒嶽)에 올라가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열 명의 신하가 간하였다.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漢水)를 띠처럼 띠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으니 이렇게 하늘이 내려 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天險地利)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여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한수 남쪽(河南)의 위례성(慰禮城, 南漢山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前漢)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서기전 18)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어서 위례(慰禮)에 돌아와 보니 도읍(都邑)은 안정(安定)되고 백성들도 평안(平安)하므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後悔)하다가 죽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부(歸附)하였다.

그 후 [처음 올 때 백성(百姓)들이 즐겨 따랐다[百姓樂從, 백성낙종]고 하여 국호를 백제(百濟)로 고쳤다. 그 계통[世系]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扶餘)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부여(扶餘)를 씨(氏)로 삼았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조 비류왕(沸流王)은 그 아버지는 우태(優台)로 북부여 왕(北夫餘王)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이었고, 어머니는 소서노(召西奴)로 졸본(卒本) 사람 연타발(延陀勃)의 딸이었다. [소서노]는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이는 비류라 하였고, 둘째는 온조라 하였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뒤에 주몽이 부여(扶餘)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전한(前漢) 건소(建昭) 2년(서기전 37)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高

句麗)라 하고, 소서노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주몽은 그녀가 나라를 창업하는 데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禮氏)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孺留)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고,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였다.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의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하여 오자 우리 어머니께서 재산을 기울여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와 애쓰고 노력함이 많았다. 대왕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라가 유류(孺留)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우리들은 그저 군더더기살(駢贅)처럼 답답하게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택하여 따로 도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드디어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溥水)와 대수(帶水) 두 강을 건너 미추홀(彌鄒忽)에 이르러 살았다.”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서는 모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동명(東明)의 후손에 구태(仇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질고 신의가 돈독하였다. [그는] 처음에 대방의 옛 땅(帶方故地)에 나라를 세웠다. 한(漢)나라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도(公孫度)가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마침내 동이(東夷)의 강국(強國)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여러 정황의 설로 기록되어 있다.¹⁾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漢水)를 띠처럼 띠고 있고, 라는 기록을 상고하면 한수(漢水)의 이남에 도성을 만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나 어느 곳인지는 지금도 수수께끼처럼 풍납토성론, 이성산성론, 몽촌토성, 남한산성론 외에 직산(稷山)설 등 여러 학설로 나뉘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이라는 추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온조왕 13년 가을 7월에 한산 아래

1)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온조왕(溫祚王) 개국에 관한 기록 편.

로 내려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에 민가들을 옮겼다'라는 기록은 위례성이 남한산성이었음을 증명하여 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로 내려 왔다는 것은 높은 곳에 도성이 있었다는 직설적 표현이 아니겠는가? 남한산성 아래로 내려온 곳이 풍납토성론, 이성산성론, 몽촌토성론이 맞는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추정론만 무성할 뿐이다.

직산설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건치연혁(建置沿革)에 본(本) 위례성(慰禮城) 백제(百濟) 온조왕(溫祚王) 자(自) 졸본부여(卒本扶餘) 남분(南奔) 개국(開國) 건도(建都) 우(于) 차후(此後) 고구려(高句麗) 취지(取之) 위(爲) 사산현(蛇山縣), 신라(新羅) 인지(因之) 위(爲) 백성군(白城郡)령현(領縣), 고려(高麗) 초(初) 개금명(改今名) 현종(顯宗) 9년 속(屬) 천안부(天安府) 후치(後置) 감무(監務) 본조(本朝) 태조(太祖) 2년 현인(縣人) 환자(宦者) 김연(金淵) 입시(入侍) 대명봉사(大明奉使) 이래(而來) 승(陞) 지군사(知郡事). 태종(太宗) 원년(元年) 복강(復降) 위(爲) 감무(監務) 태종(太宗) 13년 예개(例改) 현감(縣監)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여타의 기록이 전무한 상태이다.

온조 13년 가을 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가들을 옮겼다. 8월에 사신을 마한에 보내 도읍을 옮긴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는데 북쪽으로는 패하(溍河)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웅천(熊川)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주양(走壤)에 이르렀다. 9월에 궁성과 대궐을 세웠다.²⁾

상기 기록 중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라고 기술한 점을 상고하면 온조 13년까지는 한산(남한산성)을 수도(首都, 서울)로 삼고 있다가 백성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산 아래에 임시로 목책을

2)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온조왕(溫祚王) 13년 가을 7월.

세우고 도성을 옮긴 후 평야지대인 만큼 석성보다는 토성을 축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도성의 배후산성으로 남한산성을 위시하여 북한산성을 축성한 것으로 보면 백제 초기의 개국과 국가 안정을 위하여 동분서주한 온조의 강병부국의 국가 건설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남한산성을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쌓은 왕이 신라의 문무왕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삼국사기 권 제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 8월에 기록은 ‘한산주의 주장성(畫長城)을 쌓았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남한산성의 축성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이미 남한산성은 이미 위례성으로 불리고 있었고 근초고왕(近肖古王)이 도읍을 남한산성으로 옮긴 이후로는 석성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설치하고 위례성의 민가들을 옮겼다는 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산 아래라면 남한산성의 아래를 지칭(指稱)한 사실은 염두(念頭)에 두지 않고 정확한 기록이나 출토(出土)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한산성의 축성시기를 정리한다면 후대에 큰 화근(禍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남한산성이 온조 시대에 석성으로 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정설(定說)로 전해 오고 있는 전설(傳說)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정조(正祖) 3년 8월 7일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조가 광주유수인 서명응(徐命應)과 주고 받은 문답 내용이다.

정조가 서명응에게 묻기를

“온조왕(溫祚王)의 옛 성터가 아직도 있는가?” 하매, 서명응이 말하기

3)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 8책 8권 11장 A면, 영인본 45책 116면. 정조 3년 8월 27일.

를,

“높은 봉우리와 가파른 재위에 아직도 돌로 쌓은 자취가 있습니다” 하였³⁾다.

위에 기록은 정조(正祖)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남한산성이 백제 온조시대의 축성된 도성으로 전해져 왔으며 백제의 도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축성으로 다듬어진 돌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나 돌 자체는 겉모양의 변형은 있을지언정 천년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이다. 통일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한 후에 그들이 저지른 역사왜곡은 물론 문화유산을 불 지르거나 해체하여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등의 백제문화유적의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백제의 문물을 모조리 제거하여 버린 후 신라가 문무왕 때에 다시 쌓고 최초로 쌓은 양 왜곡한 사실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믿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는 사실(史實)을 외면하면서 굳이 문무왕 12년에 한산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 라는 한 줄의 기록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우겨가면서 역사를 왜곡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성백제의 한산에 대하여서는 북한산이다 남한산이다 하며 다투고 있는 것은 학자로서 무엇을 위한 다툼인 것인가?

서명응의 답변은 인조 때에 새로 쌓은 성곽과는 별도로 고성(古城)의 잔해가 남아 있다는 확실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을 굳이 주장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서명응 유수는 대제학을 지낸 당대의 최고의 대학자였기에 그의 말은 온조왕 당시의 남한산성과 주장성을 분별 못할 정도의 취약한 학문의 경지가 아니었고 왕을 호종하였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이의를 달며 주장성 운운한 기록도 없고 정조도 흔쾌히 받아들인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 왕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였다면 그 같은 불충(不忠)을 저지른 죄를 면죄받기 힘들었을 터인데 그가 죄를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한(南漢)은 본디 이름이 일장산(日長山)이었으나 국조(國朝) 중엽 이후에 비로소 청량산(淸涼山)이라 칭하였는데, 사람들이 청나라 군사가 와서 침범할 조짐이라 하였다. 이런 말이 과연 있는가?”

하매, 서명응이 말하기를,

“그것은 고로(故老)가 서로 전하는 말입니다” 하였다, 라는 기록이다. (여기까지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임을 명시하여 둔다.)

온조 14년(서기전 5) 봄 정월에 도읍을 옮겼다. 2월에 왕은 부락을 순행하며 위무하고 농사를 힘써 장려하였다.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漢城)의 백성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라는 기록과 온조 15년(서기전 4) 봄 정월에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아니 하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다.⁴⁾

임시로 도성을 옮기는데 필요한 기간이 지난 것을 의미하며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것은 위치 비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양주성(楊州城)으로 비정하였으나 명확한 근거의 제시는 없다.

다른 어느 누구도 서북(西北)성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비정은 되지 않고 있으나, 도성으로 몰려드는 전국의 백성들을 분산수용하여 국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궁성을 새로 지었다는 것은 이미 백제의 국기(國基)가 완벽할 정도로 국가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모든 체계가 자리잡아 국력이 굳건하여지기 시작한 때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온조 28년(서기 10) 봄 2월에 맏아들 다루(多婁)를 태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內外)의 군사 업무를 맡겼다⁵⁾는 기록에 의하면 태자가 군권을 장악하여 부왕(父王)의 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차기에 왕이 될 사람이므로

4) 삼국사기 권 제 23권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 14년 봄 정월.

5)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 28년 봄 2월.

태자의 권한과 위용을 높이 평가되게 하면서 모든 차기 왕에게 장졸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심의 경쟁을 부추기는 매우 양호한 전략적인 인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자는 도성의 배후산성인 남한산성 아래인 지금의 창곡동인 태자(太子)골에 군사교육훈련장을 짓고 그 이름을 태자궁이라 불렀다는 것이 이 지역의 정설이고 한성백제의 마지막 왕인 개로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의 장수들에게 쫓기다 잡혀간 곳이 지금의 북정동 정수장 위에 군주(君呪) 터라는 사실들이 백제의 군사요람이 남한산성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백제는 많은 태자들이 군권을 장악한 기록이 많고 태자가 아니면 왕의 혈육이나 인척들이 군권을 맡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에도 태자가 선봉이 되어 3만의 군사를 독려하여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죽이고 회군하는 큰 전과(戰果)를 올린 기록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온조 31년(서기 13)봄 정월에 나라 안의 민가들을 나누어서 남부와 북부로 삼았다. 온조 33년(서기 15)가을 8월에 동부와 서부의 두 부(部)를 더 설치하였다. 이로써 백제의 한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 서, 남, 북의 오부(五部)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⁶⁾

백성들을 도성의 외곽으로 분산 수용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다. 이 기록이 백제전역을 오부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 오는 9개의 담노라는 지방정부는 그대로 둔 채로 도성만을 오부로 나눈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백제의 국가 체제의 큰 개혁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노라는 용어가 삼국사기 등의 백제사에서 나타나는 기록은 아니지만 담노제도가 있었음을 뒷받침

6)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 31년 봄 정월, 8월.

하여 주는 사건의 몇몇 기록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초고왕이 겨울에 서울을 남한산성으로 옮겼다는 기록과 장수왕의 침공으로 아버지를 잃고 웅진으로 서울을 옮긴 시기가 두 기록 모두가 겨울이었다는 사실이다. 도성을 옮기는데 아무런 준비절차도 없이 간다고 치자 옮겨가서 정무를 보아야 할 건물과 왕의 거처인 궁실과 군신들의 거처하여야 할 집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도성을 옮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담노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겨울임에도 도성을 옮겨 담노들이 통치하던 도시의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없이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이지만 겨울이라도 도성을 옮길 수 있었다고 본다.

온조 41년(서기 23) 2월에 한수 동북쪽의 여러 부락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고 조영하였다.⁷⁾

백제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징발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즈음으로 인식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징발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았다. 또 어찌하여 한수의 동북쪽 사람들만 징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온조 43년(서기 25) 겨울 10월에 남옥저(南沃沮)의 구파해(仇頗解) 등 20여 가(家)가 부양(斧壤)에 귀순하니[納款, 납관]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안치하였다,⁸⁾라는 기록은 이미 백제의 국력이 왕성하여 주변에서 백제의 신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다루왕(多婁王) 6년(서기 33) 봄 정월에 만아들 기루(己婁)를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 나라 남쪽의 주·군(州郡)에 영을 내려 처음으로 논[稻田, 도전, 벼밭]을 만들게 하였다.⁹⁾

7)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 41년 봄 2월.

8)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 43년 겨울 10월.

9)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다루왕(多婁王) 6년 봄 2월.

강병책으로 국력을 키운 백제가 늘어나는 백성의 수효와 군비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과 병행하여 국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논을 만들어 쌀의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강병부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기루왕(己婁王) 21년(서기 97) 여름 4월에 두 마리의 용(龍)(121)이 한강에 나타났다. 기루왕 27년(103) 왕이 한산에서 사냥하다가 신비로운 사슴(神鹿, 신록)을 잡았다.¹⁰⁾

이 기록은 한산과 한강이 백제의 성도에서 주축을 이루며 어울려 있었다는 증거이며 사냥은 군사훈련을 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백제는 항상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 훈련을 하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기루왕 49년에 '신라가 말갈의 침략을 반자 글을 보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왕이 다섯 명의 장군을 보내 이를 구원하였다'¹¹⁾는 기록은 이미 백제의 군사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이웃나라인 신라를 도우면서도 자위권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여기에서 금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은 백제의 영토가 한반도에 국한되었다면 말갈의 침공이 있을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금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은 신라의 영토가 강원 일부와 경상도만이었던다면, 어떻게 말갈이 고구려를 경유하지 않고 침략하여 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강력한 외부세력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조작되어 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다.

개루왕(蓋婁王) 4년(131) 여름 4월에 왕이 한산(漢山)에서 사냥하였다.

개루왕 5년(132) 봄 2월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았다.¹²⁾

10)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기루왕(己婁王) 21년 4월.

11)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기루왕(己婁王) 49년.

12)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개루왕(蓋婁王) 4년 4월.

이 기록은 백제 초기의 축성방식이 목책(木柵)과 토성(土城)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과 더불어 남한산성도 석성(石城)이었다는 것이 이 지역의 전설인데 일부 학자들은 그 시기에 과연 석성인 북한산성을 쌓을 수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하지만 우리 동이족의 문화가 발굴된 내몽고의 고조선의 땅이던 홍산(鴻山)성에서 발굴 출토된 성의 윤곽이 석성이라는 사실과 석성 둘레에 이미 해자를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이를 입증시켜 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초고왕(肖古王) 22년(187) 여름 5월에 서울(王都)의 우물과 한수(漢水)가 모두 말랐다. 초고왕 23년(188) 봄 2월에 궁실을 고치고 수리하였다.¹³⁾

천재지변(天災地變)을 기록한 것이고 백제의 왕들은 궁실에 장엄함이나 위용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여민동락하면서 참다운 삶을 보장하여 주어 백성들의 폭발적인 충성심을 유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구수왕(仇首王) 8년(221) 가을 8월에 한수(漢水) 서쪽에서 크게 사열(査閱)하였다.¹⁴⁾

이 기록은 백제가 강병부국을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가늠케 하는 확실한 대기록으로 볼 수 있다. 대(大) 사열(査閱)이라는 군사훈련은 왕이 친람(親覽)하는 자리에 전국에서 차출되어 온 군사들을 한 곳에 모아 부대를 편성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무예를 점검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부대의 조직적인 전투력을 시험하여 지휘관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름만 다를 뿐 삼국이 공통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이었다. 왕이 친람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며 잘하면 출세할 수 있는 천우의 기회였다.

13)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 1 초고왕(肖古王) 22년 5월.

14)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구수왕(仇首王) 8년 가을 8월.

구수왕 9년(222) 여름 6월에 서울[王都]에 물고기가 비와 함께 떨어졌다.

고이왕(古爾王) 5년(238) 봄 정월에 천지에 제사를 지냈는데 북과 피리[鼓吹, 고취]를 사용하였다.¹⁵⁾

이 기록은 백제가 이때부터 천신(天神)에게 제사 지낼 때에 음악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음악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흔치 않으나 조선시대에 종묘제례악이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민족은 음율에 대하여 이미 상고시대부터 모든 의식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기록이기도 하다.

고이왕 7년 가을 7월에 석천(石川)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한 쌍의 기러기가 냇가에서 날아오르자 왕이 쏘아 모두 맞혔다.¹⁶⁾

여기에서 석천이 나오는데 이 지역의 옛 어른들의 전함에 의하면 숯내(炭川)의 옛 이름이 석천(石川)이었다가 군사훈련으로 말미암아 장작을 때고 난 후에 숯을 냇물에 버리고 가기를 수없이 반복하여 냇물바닥에 숯이 가득하게 널려 있어 숯이 내를 이루었다고 하여 숯내(炭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태자궁이 지금의 창곡동 세자동(世子洞)에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보면 정확한 석천의 위치비정이 이루어지고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의 군사 훈련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의 숯내(炭川)의 옛 이름이 돌내라고 부르는 석천(石川), 뚝내라고 부르던 천천(穿川, 穿呼川), 그리고 까치내라는 이름의 작천(鵲川)이었다는 사실과 세종실록에 구미동에서 정자동으로 흐르는 내의 이름이 금탄(金灘)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도 실시하던 대열의 장소인 잠실에서부터 백현동과 금곡동의 중간지점인 정전과 일대까지

15)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구수왕(仇首王) 9년 봄 3월.

16)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고이왕(古爾王) 7년 7월.

라고 생각한다.

고이왕 9년(242) 봄 2월에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남쪽의 진필[南澤]에 논[稻田]을 개간하게 하였다.¹⁷⁾

이 기록은 백제 전역의 물길이 닿을 수 있는 땅에는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논을 만들어 쌀의 생산량을 늘리어 군량미의 축적과 빈민구휼에 사용하려는 고이왕의 충정이 엿보이기도 하는 대목이다.

고이왕 27년(260) 봄 정월에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두었는데 왕명 출납[宣綱]에 관한 일을 맡았다. 내두좌평(內頭佐平)은 창고와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았고, 내법좌평(內法佐平)은 예법과 의례에 관한 일을 맡았고, 위사좌평(衛士佐平)은 왕궁을 지키는[宿衛]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았고, 조정좌평(朝廷佐平)은 형벌과 감옥에 관한 일을 맡았고, 병관좌평(兵官佐平)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았다. 또 달솔(達率), 은솔(恩率), 덕솔(德率), 한솔(扞率), 나솔(奈率) 및 장덕(將德), 시덕(施德), 고덕(固德), 계덕(季德), 대덕(對德), 문독(文督), 무독(武督), 좌군(佐軍), 진무(振武), 극우(克虞)를 두었다.

6좌평은 모두 1품이요, 달솔은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 장덕은 7품, 시덕은 8품, 고덕은 9품, 계덕은 10품, 대덕은 11품, 문독은 12품, 무독은 13품, 좌군은 14품, 진무는 15품, 극우는 16품이었다. 2월에 명령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주색[紫色] 옷을 입고 은꽃[銀花](59)으로 관(冠)을 장식하게 하였으며, 11품 이상은 다홍색[緋色] 옷을 입게 하고, 16품 이상은 푸른색[靑色] 옷을 입게 하였다. 3월에 왕의 동생 우수(優壽)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¹⁸⁾

이 기록은 백제조정의 품계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 하고 형편에 따라

17)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고이왕(古爾王) 9년 2월.

18)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고이왕(古爾王) 27년 정월, 2월

서 관직이 생기기도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있다가 관료의 전문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국가정책의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정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분야별로 정확하게 업무를 분장하여 관료들의 책임정치를 위한 관직의 자리매김을 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정의 관료들이 입는 복식에 따라서 그 품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품계를 백성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로 인하여 고위 관직에 대한 손쉬운 구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료에 대한 존경심과 관료사회에서 상명하복의 원칙과 상하의식을 자리 잡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이왕 28년(261) 봄 정월 초하룻날[初吉]에 왕이 자주색의 소매가 큰 두루마기[紫大袖袍]와 푸른 비단 바지[靑錦袴]를 입고, 금꽃[金花]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관[金花飾烏羅冠]을 쓰고, 흰 가죽 띠[素皮帶]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烏韋履]을 신고 남당(南堂)에 앉아 정사를 보았다.¹⁹⁾

이 기록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왕의 복식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왕이 화려한 복식보다는 오히려 친서민적인 복식을 함으로 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위엄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금관이 아닌 비단관을 씌므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근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복식이 백제의 융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이왕 29년(262) 봄 정월에 영을 내려 무릇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장물(贓物)의 세 배를 징수하고 종신토록 금고(禁錮)하게 하였다.²⁰⁾

이 기록은 공직에 종사하는 관리들을 청렴강직한 자세로 일하게 하고 잘못 하였을 때에 주어지는 평생을 금고(禁錮)를 당하여 부정을 저지른

19)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고이왕(古爾王) 28년 정월.

20)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고이왕(古爾王) 29년 정월.

반국가적인 사람으로 추락함으로써 그간의 명성이 사라지고 가문의 폐해를 인지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함으로써 강력한 기강을 바로 세우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반 백성들도 모두 다 같이 청렴강직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와 정의사회 구현에 동참하여 태평성대를 추구하는 데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이왕 53년(286) 봄 정월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²¹⁾

고이왕은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백제가 주변국가인 신라에 화친을 청함으로써 국위를 상향시키고 교역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이왕은 재위 53년간에 백제의 행정체계를 바로 잡은 성군(聖君)으로 기록하여 길이 전하여야 할 것이다. 백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행정의 달인이었던 것이다.

책계왕(責稽王)혹은 청계(靑稽)라고도 하였다. 고이왕의 아들이다. 키가 크고 뜻과 기품이 웅장하고 뛰어났다. 고이가 죽자 왕위에 올랐다. 왕은 장정들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보수하였다. 고구려가 대방(帶方)을 정벌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했다. 이에 앞서 왕은 대방왕(帶方王)의 딸 보과(寶菓)를 맞이하여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방과 우리는 장인과 사위의 나라이니 그 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는 드디어 군사를 내어 구원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고구려의 침공과 노략질을 염려하여 아차성(阿且城)과 사성(蛇城)을 수축하여 이에 대비하였다.²²⁾

위에 기록을 보면 아차산성은 이미 백제의 산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책계왕 때에 아차산성을 수축(修築)하였다는 기록이 확실하

21)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고이왕(古爾王) 53년 정월.

22) 삼국사기 권제 24 백제본기 제 2 책계왕(責稽王).

게 전하는데도 우리는 모두가 아차산성은 고구려의 마지막 보루(堡壘)라고만 하니 왜곡된 역사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밝혀지는 것이다.

여기에 병기된 사성(蛇城)은 몽촌토성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비류왕(比流王) 22년(325) 겨울 11월에 왕이 구원(狗原) 북쪽에서 사냥하여 손수 시슴을 쏘아 맞혔다.²³⁾

여기에 나오는 구원(狗原)은 백제의 행궁이 있던 곳으로 551년 제나(濟羅) 연합군으로 고구려군을 격퇴시킨 후 553년 진흥왕이 이 지역을 차지한 후에 천하제일의 땅이라면서 영락장생(永樂長生)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하여 낙생(樂生)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낙생의 옛날 이름이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낙생행궁이 기록되어 전해 오는 유서 깊은 지명이다.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369)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사유(斯由)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雉壤)에 와서 진을 치고는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급히 쳐서 깨뜨리고 5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적(虜獲)들은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수(漢水)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깃발은 모두 누른 색(黃色)을 사용하였다.²⁴⁾

고구려왕(高句麗王) 사유(斯由)는 고국원왕(故國原王)의 이름이다. 고국원왕은 백제를 정벌(征伐)하려다가 결국에는 백제군에서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한수 남쪽은 지금의 송파구에서 성남시 일원을 말하는 곳이다. 그 증거가 될 만한 이 지역의 전설이 있고 실제로 백제시대부터 불렸다는 명

23) 삼국사기 권제 24 백제본기 제 2 비류왕(比流王) 22년 10월 11월.

24)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 9월 11월.

청인 수기실(宿騎室)과 삼천병마(三千兵馬)골이 전해 온다는 사실이다. 고려시대에는 군마의 조련목장으로 그 명성이 높았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도 대열(大閱)의 장소로 잠실에서 성남의 백현동과 금곡동 사이에 있는 정전파(鄭戰破)까지의 넓은 들녘과 크고 작은 산세를 이용하여 군사 훈련을 한 곳이기도 하다. 정전파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의 대열 때에 왕이 친람(親覽)하고 군사를 지휘하던 장수대(將帥臺)가 있던 곳이 정금원(鄭金院)이라는 역원 주변이었기 때문에 정금원 전투를 마친 후 군사들을 파한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근초고왕 26년(371)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패하(溍河)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에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평양성(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斯由)가 힘을 다해 싸워 막았으나 빗나간 화살(流矢)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서울(都)을 한산으로 옮겼다.²⁵⁾

삼국사기를 국역할 때에 정신문화원에서 하였는데 한산에 대한 위치 비정을 남한산성으로 정리하여 놓았다. 그 이전에 백제의 왕도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백제의 도읍이 여러 가지 설로만 전해 오고 정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온조왕(溫祚王) 초기와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 이후부터 개로왕(蓋鹵王) 21년(475)까지는 백제의 서울이 남한산성임이 확연하여진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근초고왕 30년(375)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수곡성(水谷城)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켰다. 왕이 장수를 보내 막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이 다시 군사를 크게 일으켜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²⁶⁾

25)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 겨울.

26)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근초고왕(近肖古王) 30년 7월.

근초고왕이 붕어하고 난 후에 고구려는 수없이 백제를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고기(古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백제는 나라를 창건한 이래 문자로 일[事]을 기록함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박사(博士) 고흥(高興)을 얻어 비로소 서기(書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흥은 일찍이 다른 책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²⁷⁾

고구려는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다고 전해 오고, 신라는 화랑도를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여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고 전해오는 데 비하여 백제에 기록에는 학부를 두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박사 고흥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백제에도 태학과 같은 고급 교육기관이 있어 인재를 양성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침류왕(枕流王)은 근구수왕의 맏아들이요 어머니는 아이부인(阿爾夫人)이다.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가을 7월에 사신을 진(晉)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9월에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진나라에서 왔다. 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궐 안으로 모셔 예우하고 공경하니,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침류왕 2년(385) 봄 2월에 한산(漢山)에 절을 세우고 열 사람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하였다[度僧].²⁸⁾

침류왕(枕流王) 원년에 진나라에서 마라난타가 영광 법성포로 들어와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기록은 이미 전해 오고 있는 기록이나 한산에 처음 세웠다는 절에 대하여서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울동에 전해 오는 전설

27) 고기(古記) 근초고왕 30년에 왕이 죽었다, 라는 기록 말미에 부언(附言)하여 고기를 인용한 기록이다.

28)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2 침류왕(枕流王) 2년 2월.

과 지명이 불교용어인 곳이 이십여 곳에 이르고 마을 이름이 백제시대에
는 미륵부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삼천미륵(插天彌勒)이 영세소림(暎世疏
立)한 마을이라고 하여 석인리(石人里)라고 불렀다는 전함이 있다. 열 사
람의 승려 중 한 승려가 세운 절의 이름이 금강사(金剛寺)라고 전해 오고
있으며 장소는 울동의 절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울동의 지명이 불교용
어로 된 이름만도 20여 곳이 넘는다.

진사왕(辰斯王) 6년(390) 가을 7월에 살별(해성, 彗星)이 북하(北河)에
나타났다. 9월에 왕이 달솔 진가모에게 명령하여 고구려를 쳐서 도곤성
(都坤城)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왕이 진가모(眞嘉謨)를 병
관좌평(兵官佐平)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구원(狗原)에서 사냥하다가
7일 만에 돌아왔다.²⁹⁾

진사왕은 군사훈련에 매진한 왕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게 고급
병법으로 훈련된 군사들로 하여금 고구려를 쳐서 성을 빼앗음으로써 백
제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신감을 배양시켰던 것이다.

진사왕 8년(392) 여름 5월 초하루 정묘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에
고구려 왕 담덕(談德, 광개토왕)이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북쪽 변경을
침공해 와서 석현성(石峴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군사
를 부리는 데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하니 한수(漢水) 북쪽의
여러 부락들이 다수 함락되었다.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關彌城)
을 쳐서 함락시켰다. 왕이 구원에서 사냥하였는데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
지 않았다. 11월에 구원의 행궁(行宮)에서 죽었다.³⁰⁾

이때부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이 증조부(曾祖父)인 고국
원왕의 치욕을 씻어보려고 백제에 보복침공(報復侵攻)을 하였는데 한강
을 넘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백제군의 군사력도 막강하였겠지

29) 삼국사기 권 제 25 백제본기 제 3 진사왕(辰斯王) 6년 10월.

30) 삼국사기 권 제 25 백제본기 제 3 진사왕(진사왕) 8년 11월.

만 서울인 남한산성이 천혜의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아성이요 천험의 요새였기 때문이라.

구원행궁이 있었던 낙생일대에서 사냥하기란 참으로 좋은 지역이다. 동으로는 영장산(靈長山)과 문현산(門懸山), 성덕산(聖德山, 佛谷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계산(淸溪山)과 발화산(發華山), 광교산(光敎山)이 있어서 그야말로 전쟁훈련과 사냥터로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랑할 만한 곳이다.

아신왕(阿莘王) 4년(395) 봄 2월에 살벌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가을 8월에 왕이 좌장 진무(眞武) 등에게 명령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 왕 담덕(談德, 광개토왕)이 친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패수(溟水)가에 진을 치고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8천 명이었다.

겨울 11월에 왕은 패수의 싸움을 보복하려고 친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청목령(靑木嶺) 밑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큰 눈을 만나 병사들이 많이 얼어 죽자 군(軍)을 돌려 한산성(漢山城)에 이르러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아신왕 6년(397) 가을 7월에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다.³¹⁾

이 기록은 광개토왕과 정면대결(正面對決)을 감행(敢行)하려던 백제의 막강한 군사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조건에 밀려 출정하였던 군사들을 되돌려 고구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한산성(漢山城)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광개토왕이 넘어보지 못한 한수 이남에 있는 도읍인 남한산성으로 철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다는 것은 고이왕이 사열하였다는 석천(石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수 이남은 지금의 송파에서부터 수지

31) 삼국사기 권 제 25 백제본기 제 3 아신왕(阿莘王) 4년 11월.

일대까지의 높고 낮은 야산지대까지 매복과 정면 결전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에 한성백제시대에 수많은 사열도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었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징발된 병력이 정병(正兵)이 삼만(三萬)이고 솔종(率從, 勞務部隊員)이 팔구만(八九萬)이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동원된 이원은 최소한 11~12만 이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백제시대에 지었다는 낙생행궁과 왕실전용 정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왜곡(歪曲)할 수 없는 민족의 긍지(肯志)인 것이다.

비유왕 29년 봄 3월에 왕이 한산(漢山)에서 사냥하였다. 가을 9월에 검은 용이 한강(漢江)에 나타났는데 잠깐 동안에 구름과 안개가 끼어 캄캄해지더니 날아가 버렸다.³²⁾

왕이 사냥한 한산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남, 하남이 포함되어 있던 옛 광주 일대로 풀이할 수 있다. 사냥은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이라는 사실을 알면 왕이 군사들을 직접 독려하여 사냥을 함으로써 군사들에게는 적군을 어떻게 궤멸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을 함으로써 전투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산행(山行, 사냥)이라는 이름의 군사훈련을 자주 하였던 것이다.

개로왕(蓋鹵王) 15년(469)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 겨울 10월에 쌍현성(雙峴城)을 수리하였고, 청목령(靑木嶺)에 큰 목책(大柵)을 설치하여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³³⁾

이 기록으로 보면 백제는 개로왕 초기까지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고구려와의 전쟁(戰爭)에서 이기는 상황(狀況)이었던 것으로 해석(解釋)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개로왕 18년 위(韋)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표를 올린 기록이 있는데,

32) 삼국사기 권 제 25 백제본기 제 3 비유왕(毘有王) 29년 3월.

33) 삼국사기 권 제 25 백제본기 제 3 개로왕(蓋鹵王) 15년 8월, 10월.

[표(表)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扶餘)에서 나왔습니다. 선세(先世) 때에는 옛 우의를 두텁게 하였는데 그 할아버지 쇠(銚)(고국원왕)가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가버이 저버리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신(臣)의 국경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수(須)(근구수왕)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잽싸게 공격하니, 화살과 돌(矢石)로 잠시 싸운 끝에 쇠(銚)의 목을 베어 달았습니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돌아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씨(馮氏)의 운수가 다하여서 남은 사람들이 도망해 오자 추악한 무리들(醜類: 고구려)이 점차 성해져서 드디어 [우리는] 능멸과 뽀박을 당하게 되었으며, 원한을 맺고 병화(禍)가 이어진 지 30여 년에 재물도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 만일 폐하의 인자하심과 간절한 긍휼(矜恤)이 멀리 가 없는 데까지 미친다면 속히 한 장수를 신의 나라에 보내 구해 주십시오. 마땅히 저의 딸을 보내 후궁에서 모시게 하고 아울러 자제를 보내 바깥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며 한 자(尺)의 땅도 한 명의 백성(匹夫)이라도 감히 스스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표(表)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연(璉, 장수왕)은 죄가 있어 나라가 스스로 으깨어지고(魚肉), 대신(大臣)과 힘센 귀족들을 죽이고 살해하기(戮殺)를 마지않아, 죄가 차고 악이 쌓여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이는 멸망시킬 수 있는 시기요 손을 쓸(假手) 때입니다. 또 풍족(馮族)의 군사와 말들은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鳥畜之戀)을 가지고 있으며, 낙랑(樂浪)의 여러 군(郡)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首丘之心)을 품고 있으니, 천자의 위엄이 한 번 떨치면 정벌은 있을지언정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신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땅히 예하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또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과 속임수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외교가 번국으로서 낮추어 썼던 말을 본받으면서 속으로는 흉악한 제앙과 저돌적인 행위를 품어, 혹은 남쪽으로 유씨(劉氏)와 내통하였고 혹은 북쪽으로 연연과 맹약하여 서로 입술과 이(脣齒)처럼 의지하면서 왕법(王略)을 능멸하려 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임금(堯堯)은 지극한 성인이었지만 단수(丹水)를 쳐서 벌주었으며, 맹상군(孟嘗君)은 어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길에서 욕하는 말을 못들은 체하지 않았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도 마땅히 빨리 막아야 하는데 지금 만일 [고구려를] 치지 않으면 장차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³⁴⁾

이 기록으로 보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이후에 장수왕(長壽王) 때까지 중국과의 국교(國交)는 물론 백제와 고구려의 국교관계가 최악(最惡)의 극한상황(極限狀況)으로 변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로왕 21년(475)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거련(巨璉,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서울(王都) 한성(漢城)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네 길(四道)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였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이에] 인심이 대단히 불안해져서[危懼] 혹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곤궁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기병 수십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다.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이 몰래 백제를 도모하려 하여 백제에서 간첩(間諜)할 만한 자를 구하였다. 이때에 승려 도림(道琳)이 모집에 응하여 말하였다.

“어리석은 이 승려가 아직 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생각합니다. 원컨대 대왕은 신(臣)을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지시

34) 삼국사기 권 제 25 백제본기 제 3 개로왕(蓋鹵王) 18년

하여 시키신다면 기어코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기뻐하여 비밀리에 백제를 속이게 하였다. 이에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짓고 도망하여 온 것같이 하여 백제로 들어왔다. 이때에 백제 왕 근개루(近蓋婁)가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였다. 도림이 대궐문에 나아가고 있었다.

“신은 어려서 바둑을 배워 자못 신묘한 경지에 들었습니다. 원컨대 결[左右]에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 보니 과연 국수(國手)였다. 드디어 그를 높여 상객(上客)으로 삼고 매우 친근히 지내면서 서로 만나기가 늦은 것을 한탄하였다. 도림이 하루는 [왕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신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왕[上]께서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매우 두터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 가지 기술로써 보답하였을 뿐 일찍이 털끝만한 도움을 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왕의 뜻이 어떠 하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말해 보라. 만일 나라에 이로움이 있다면 이는 선생에게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하였다. 도림이 말하였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언덕과 강과 바다입니다. 이는 하늘이 베푼 험한 요새요, 사람의 힘으로 된 형국(形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즉 왕께서는 마땅히 존귀하고 고상한 위세와 부강(富有)한 업적으로써 남의 이목(視聽)을 두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곽은 수선(修繕)되지 않았고 궁실도 수리되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은 맨 땅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고, 백성의 집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고 있으니 신은 대왕을 위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왕이 “옳다. 내가 장차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찌서 성을 쌓고, 안에는 궁실과 누각(樓閣)과 대

사 등을 지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 옥리하(郁里河)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꼭(槨)을 만들어 부왕의 뼈를 장사하고, 강을 따라 독을 쌓았는데 사성(蛇城) 동쪽에서 숭산(崇山) 북쪽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해져서 나라의 위태로움은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심하였다. 이에 도림이 도망쳐 돌아와서 보고하니 장수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군사를 장수(帥臣)에게 내주었다. 근개루(近蓋婁)가 이를 듣고 아들 문주(文周)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썼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사는 약하니 비록 위태로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겠지만 네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國系)을 잇지 않겠는가?”

문주는 이에 목협만치(木脇滿致)와 조미결취(祖彌桀取), 목협(木脇)과 조미(祖彌)는 모두 복성(複姓)이었다. 수서(隋書)에는 목협을 두 개의 성(姓)으로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대로(對盧)인 제우(齊于)·재증결루(再曾桀婁)·고이만년(古爾萬年)재증(再曾)과 고이(古爾)는 모두 복성이었다.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공격하여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성(南城)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성안은 위태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왕이 [성을] 나가 도망가자 고구려의 장수 결루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왕을 포박하여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 결루와 만년(萬年)은 백제사람(本國人)이었는데 죄를 짓고는 고구려로 도망하였었다.³⁵⁾

35) 삼국사기 권 제 25 백제본기 제 3 개로왕(蓋鹵王) 21년 9월.

이 기록에서 주시하여야 할 기록은 첫 번째로 북성을 칠일만에 빼앗았다는 기록이다.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은 평지에 있으므로 삼만의 군대로 일격에 쳐부술 수 있는 지형적인 위치에 접해 있는데 칠일 동안이나 싸웠다면 말이 안 된다.

다음은 왕이 궁성을 빠져 나와서 서쪽으로 가다가 잡혀 죽었다는 기록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궁성이었다면 서쪽은 두 곳이 모두 한강인데 강에 빠져 죽으려고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남한산성에서 남문으로 나와 서쪽으로 가면 백제군사의 요람인 태자궁이 있는 지금의 창곡동이 나오므로 군사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고 도망하거나 투항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면서 백제의 존망이 풍전등화과 같은 상황이 되었고, 백제군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지리멸렬하여 연전연패하는 급변하는 절박한 전시상황에서 군사들의 호위가 절실하였던 왕이 태자궁 쪽으로 가다가 잡혀 죽은 것으로 풀이하여야 정답이다. 그러나 태자궁도 이미 고구려군에게 점령당하고 고구려의 깃발이 펄럭이자 왕은 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지금의 북정동 산 53번지, 54-1번지, 55-1번지 일대인 군주터에서 잡혀 아차산으로 끌려가 죽은 것이다.

문주왕(文周王) 혹은 문주(汶洲)라고도 썼다. 개로왕(蓋鹵王)의 아들이다.

처음 비유왕(毗有王)이 죽고 개로가 왕위를 잇자 문주는 그를 보필하여 지위가 상좌평(上佐平)에 이르렀다. 개로가 재위한 지 21년에 고구려가 쳐들어 와서 한성(漢城)을 에워쌌다. 개로는 성문을 닫고 스스로 굳게 지키면서 문주로 하여금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문주개] 군사 1만 명을 얻어 돌아오니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지만 성은 파괴되고 왕은 죽었으므로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왕은] 성품이 부드럽고 결단력이 없었으나 또한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들도 그를 사랑하였다. 거

을 10월에 서울[都]을 웅진(熊津)으로 옮겼다.³⁶⁾

문주왕이 태자시절의 기록부터 도읍을 옮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바 상고하여 볼 필요가 상당한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백제는 태자가 군권을 장악하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 왔으며 태자가 어릴 경우 왕실의 친인척 중에서만 병권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이다. 또 근초고왕 이후에 막강하였던 백제의 군사력을 유지하여 오던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간자(間者)인 도림에게 속아 국력을 낭비하고 군사력을 무기력하게 되어 장수왕의 삼만대군에게 패퇴하여 포로로 잡혀 아차산성(阿且山城)으로 끌려가 목숨을 빼앗긴 105년간은 한성백제의 서울이었다는 사실이 삼국사기 근초고왕편에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 라는 구절에 대하여 한산(漢山)으로의 이도를 남한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 남한산성을 재조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초고왕 이후에 고구려와의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 하였으며 남한산성의 천험의 요새로 구축함으로서 고구려군도 공격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국대륙과 만주일대를 석권지배(席捲支配) 하였던 광개토대왕조차 한수(漢水) 이남(以南)을 넘어오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증조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비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백제를 멸망시켜 원수를 갚겠다는 신념을 하루도 버리지 않았을 광개토왕을 비롯한 고국원왕의 아들인 소수림왕(小獸林王)과 손자 고국양왕(故國壤王), 증손자인 광개토왕(廣開土王)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왕들의 절치부심이 아니었던가? 막강한 백제군사력과 천험의 요새인 남한산성은 보편적인 침공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한 장수왕이 간자인 도림으로 하여금 백제의 개로왕의 환심을 사고 신임을 얻

36) 삼국사기 권 제 26 백제본기 제 4 문주왕(文周王). 문주왕은 한성백제에서는 마지막 태자일 뿐이다.

은 후에 백제의 국고 탕진을 재촉하는 대형국책사업을 제안함으로써 도림에게 빠져 있던 개로왕(蓋鹵王)이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웅대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하여 백제의 국고가 바닥이 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군사력의 약화로 인하여 결국은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잡혀 죽는 수모를 겪었다지만 남한산성이 백제의 도성이었다는 사실은 왜곡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 전해 오는 엄연한 사실이다.

조선행궁을 발굴조사할 때에 백제의 유물이 상당수 발굴되었는데도 아무도 발굴된 유물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몹서리 처지는 것은 어찌하여 한성백제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리라. 백제의 왕들은 검약하게 살았다는 것이 전설이나 구전에 의하여 명확하게 전해 오는 것이 많다. 장수왕이 침공하였을 때에 북성은 풍납토성이고 남성은 몽촌토성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모두 토성이며 평야지대에 있는데 장수왕 63년의 기록을 보면, (전문 생략) 9월에 왕은 군사 삼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백제왕이 도읍한 한성을 함락시키고 그 왕 부여경(夫餘慶)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서 돌아왔다는 기록 속에 한성을 몽촌토성 일대라고 여겨진다, 라고 자신 없는 추론(推論)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하여 보라. 삼만의 군사가 몰려 왔는데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같은 평야지대의 작은 성을 북성을 깨트리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고구려의 군사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삼만의 군사가 화살하나씩만 쏘아도 풍납토성이 화살 발이 되었을 터인데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장수왕은 고조할아버지인 고국원왕(故國原王)이 근초고왕에게 살해되었으므로 아들인 소수림왕(小獸林王)과 손자인 고국양왕(故國壤王)이 이를 갈며 절치부심

(切齒腐心)하였으나 막강한 백제의 강성함에 밀려 제대로 된 침공(侵攻)이나 제대로 된 보복(報復)조차 못하고 있었다.

증손자인 광개토대왕조차 남한산성을 공략(攻略)하지 못하고 한수 이북만 침공한 기록에서도 남한산성이 얼마나 천험(天險)의 요새(要塞)라서 정상적인 침공으로는 불가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 이면에는 백제가 워낙 막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장수왕이 피를 내어 백제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계획을 세우고 도림(道林)이라는 간첩을 백제에 밀입국(密入國)하게 만들었고 장수왕의 계략(計略)대로 백제의 개로왕이 대형 공사를 시행(施行)함으로써 경제가 피폐(疲弊)되고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다음 침공한 것을 확인하면 몽촌토성이나 풍남토성이 도성(都城)이 아니라는 추정(推定)이 확실(確實)해진다.

북성은 북한산성으로 보고 남성인 한산은 남한산성으로 보아야 추리비정(推理比定)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도림이 말한 천험의 요새라는 말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남, 북한산성은 모두가 하늘이 내린 천험의 요새라는 것이다. 그 기록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험준(險峻)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성남이 한성백제의 문화의 산실이라는 사실을 이미 입증(立證)된 바와 같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군사강국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 하면서 백성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치의 문화와 기록의 문화가 차츰 발달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백제는 공직자들의 부정을 처단하는 법을 공표하고 시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남에 있던 태자궁은 백제문화의 중심축으로서 각종 문화창출과 보급에도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지방에서 도성에 오려면 꼭 거쳐야 하는 성남에 와 본 사람들은 찬란(燦爛)한 문화에 도취하였고, 웅

장무비(雄壯無比)한 궁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지니고 살 수 있는 도성 주변에 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남한 산성의 천험의 요새인 도성에 접해 있고 태자궁이 있는 성남지역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기강이 잡혀 있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또 화려하고 찬란한 도성과 문화의 산실(産室)인 태자궁을 품고 있는 성남지역에 자리잡고 자기의 능력껏 터전을 잡았으므로 남도에서 올라오는 각종 문물(文物)이 이곳에서 여과(濾過)되고 보완(補完)되어 태자궁을 통하여 도성인 남한산성으로 전해지고 다시 도성과 태자궁에서 창출(創出)된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데에도 다시 여과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도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와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의 공로가 컸던 것이다.

백제의 도성이 있던 한강유역을 점령한 장수왕은 이렇게 찬란하였던 백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각종 유적과 시설들이 남김없이 부서버리고 불 질러 흔적조차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책계왕(責稽王, 286년에 왕위에 오름) 편에 보면 고구려의 침공 약 200여 년 이전(以前)인 책계왕 때에 아차산성을 수축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시기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여도 최소한 책계왕 100여 년 이전에 백제가 축성한 성이 아차산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모두 다 덮어두고 책계왕으로만 역산(逆算)하더라도 약 200년의 격차가 엄연히 기록되어 전해 오고 있는데도 고구려의 보루로만 알려진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모든 백제의 사기(史記)와 모든 문물과 유적들이 참혹하게도 장수왕에 의하여 모두 파괴되고 멸실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유적이나 유물들의 출토가 매우 빈약한 것이다.

그러나 전해 오는 구전과 전설설화 속에 백제문화는 삼국 중에 제일

었으며 해운산업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축조기술과 돌과 철을 다루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진기술(先進技術)을 보유(保有)하고 막강(莫強)하게 무장(武裝)되었으나 개로왕(蓋鹵王)의 일시적인 도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한성백제의 막을 내려 버리고 만 것이다.

백제는 이미 근초고왕 때인 서기 370년대에 고흥(高興)이라는 박사(博士)를 시켜 기록을 정리하였으므로 상당히 많은 분야의 기능과 고급기술을 전수하는데 필요한 한성백제만이 간직한 고급문화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장수왕(長壽王)에 의하여 소멸(消滅)된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고구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에서 역사책(歷史冊)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박사 이문진(李文眞)이라는 사람이 서기 600년에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해운기술(海運技術)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삼국 중에 가장 우수한 문화를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라의 황룡사(黃龍寺) 구층탑(九層塔)이나 불국사(佛國寺)를 지은 사람이 모두 백제인(百濟人)이라는 사실이 이를 설명하여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성남에는 백제시대부터 전해 오는 지명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한다.

1) 세자동(世子洞)은 창곡동 281-295번지와 산 48번지 일대의 지명인데 백제의 태자궁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2) 진(陣)터 벌은 북정동에서 창곡동에 있는 넓은 들판을 부르는 지명이다.³⁷⁾

3) 수기실(宿驕室)은 이매동 산 60번지와 397-402번지 일대의 지명이다.

4) 삼천병마(三千兵馬)골은 이매동 404-406번지와 산 62번지 일대의

37) 2005년 12월 20일 성남문화원 발행, 북정 태평동 마을지 52쪽, 55쪽.

지명이고,

5) 백제주거지(百濟住居地)는 서현동 산 6번지 정상에 있다.³⁸⁾

6) 숯내(炭川)는 용인에서 발원하여 성남을 지나 한강까지 가는 시내의 이름인데, 대동지지 지도 광주부편에 보면 한강초입은 학탄(鶴灘), 그 위는 작천(鵲川), 그 상류는 천호천(穿呼川)이고 상류는 원우천(遠于川)으로 그려져 있다.³⁹⁾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는 구미동과 정자동 앞 시내의 이름이 금탄(金灘)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⁰⁾

7) 군주(君呪)터는 복정동 산 53번지 산 54-1호 산 55-1호 일대를 부르는 지명인데 개로왕이 장수왕의 군사들에게 잡혀간 곳이라고 전해 온다.⁴¹⁾

8) 금강사(金剛寺)는 율동 165번지 일대에 있던 백제 최초의 절 이름이다.

9) 불당(佛堂)골은 율동 산 17-2번지와 209번지 일대에서 야탑동까지 연결된 지명이다.⁴²⁾

10) 일장산(日長山)은 남한산성내에 수어장대가 있는 봉우리의 이름인데 지금은 청량산(淸涼山)으로 부르고 있다.⁴³⁾

11) 낙생행궁(樂生行宮)은 백제시대에 지었다는 행궁의 이름인데, 백제시대에는 구원행궁으로 불렸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옛 이름이 안박(安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⁴⁾

12) 낙생역(樂生驛)은 수내동 227번지에서 362번지 일대에 있던 역말

38) 2008년 11월 28일 발행, 돌마 마을지(하) 124쪽, 128쪽, 76쪽.

39) 대동여지도, 동여도, 동여비고.

40)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 본 3책 7권 29장 B면. 영인본 2책 375면. 세종 2년 3월 14일, 3월 24일.

41) 2005년 12월 20일 성남문화원 발행, 복정 태평동 마을지 47쪽.

42) 2008년 11월 28일 발행, 돌마 마을지(하) 87쪽 88쪽.

2005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성남문화유적 118쪽.

43) 중정 남한지

44) 조선왕조실록

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⁴⁵⁾

13) 정자(亭子)터는 정자동 478번지에서 480번지 일대에 있던 백제왕실전용의 정자였다고 전해 온다.⁴⁶⁾

14) 성덕산(聖德山)⁴⁷⁾은 정자동 산 30-1, 2번지 일대 정상에 있는 산인데 분당신도시 지표조사 때에 골짜기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절골이라고 하자 조사요원들이 절골이면 사곡이라야 하는데 불곡이 좋겠다고 하여 그 이후에 불곡산이라고 변해 버렸다.

15) 궁(宮)골은 삼평동 산 10번지 아래 226번지 일대를 부르는 지명인데 백제 때에 행궁이 있던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⁴⁸⁾

16) 일곱 삼거리는 율동 산 76번지와 광주 오폭읍 신현리 산 92번지, 그리고 광주시 목동 산 72번지 상단에 있는 지명이다.⁴⁹⁾

17) 화랑보(花郎湫)는 삼평동 275-3번지 일대에 있던 보의 이름인데 신라의 진흥왕이 화랑도를 동원하여 만든 보라고 전해 온다.⁵⁰⁾

18) 달(月)네내고개(일명 달이 네 고개, 달아(月娥), 달오(月浦)네 고개라고도 한다).⁵¹⁾

19) 가실고개(秋峴)은 분당동 40-3번지와 40-3번지를 경유하여 신현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인데 상기 번지에 가실리와 설 처녀의 무덤인 서낭당이 있었으나 분당 신도시 조성 때에 없어졌다.⁵²⁾

20) 교장(敎場)은 창곡동을 중심으로 하여 송과 벌에서 궁내동 일대까

45) 2005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성남문화유적 47쪽 58쪽

46) 2008년 11월 28일 발행, 돌마 마을지(하) 114쪽. 2005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성남문화유적 100쪽.

47) 2008년 11월 28일 발행, 돌마 마을지(하) 112쪽.

48) 2009년 11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낙생 마을지 183쪽.

49) 2008년 11월 28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하) 90쪽.

50) 2009년 11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낙생 마을지 186쪽.

51) 2004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대왕 마을지 171쪽.

52) 2008년 11월 28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하) 101쪽.

2005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성남문화유적 108쪽.

지의 백제 군사훈련장의 이름이다.⁵³⁾

21) 갈마치(渴馬峙)는 갈현동 산 55번지에서 시작하여 광주시 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인데 백제 기마병들이 훈련할 때에 말조차 목 말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⁵⁴⁾

22) 명막암(鳴邈巖)은 분당동 산 11번지에 있는 바위 이름인데 남방민족의 숭배조인 초명새가 날아와 살다가 돌아갈 시기를 놓쳐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의 바위 이름이다.⁵⁵⁾

23) 영장산(靈長山)은 울동 산 50번지, 야탑동 산 71-1번지와 광주시 직동 경계지점에 우뚝 솟은 산 이름이다.

24) 불탑산(佛塔山)은 울동산 85번지 정상의 산 이름이다. 백제 때에 불탑이 있었다고 전해 온다.

25) 울목음촌(栗木陰村)은 울동에 금강사에서 심기 시작한 밤나무가 창곡동까지 심어져서 울창한 밤나무 숲으로 인하여 그늘진 마을이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⁵⁶⁾

26) 음촌참(陰村站)은 백제시대부터 있던 역참이라고 전해 오나 정확한 위치 비정이 안 되고 있는 이름이다.⁵⁷⁾

27) 천조산(天鳥山)은 울동 산 13-1과 산 20번지 경계에 있는 산인데 태양신조인 삼족오가 살던 곳이라고 한다.

28) 진신사리(眞身舍利)골은 울동 산 69번지와 4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 이름인데 백제 때에 지은 금강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이 골짜기에 세워서 지어진 이름이다.

29) 자빠진 골은 울동 산 60번지 일대의 산골짜기의 이름인데 미륵부

53) 해동지도 북정태평동마을지

54) 2007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상) 94쪽.

55) 2008년 11월 28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하) 103쪽.

56) 2008년 11월 28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하) 88쪽, 92쪽, 78쪽.

57) 2005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성남문화유적 149쪽.

처님이 자빠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⁵⁸⁾

30) 발화산(發華山)은 석운동 산 20-10번지에서 산 20-60번지 일대의 산이다.⁵⁹⁾

31) 망재산(望在山)은 궁내동 산 2-1번지 산 2-5번지에 있는 산인데 산 등성이에 백제 군사들의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첩자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을 보던 초소가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⁶⁰⁾

32) 원수(元帥)들은 고등동 261번지 일대와 여수동 1번지 일대, 두 곳에 있는데 훈련을 할 때면 두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진영의 원수들이 지휘하던 곳이라고 한다.⁶¹⁾

33) 세자(世子)골 고개는 고등동 산 41번지와 산 42번지를 넘어가는 골짜기인데 장수왕의 침공 때에 황급하게 신라에 원군을 요청하러 갈 때에 태자 문주가 넘어갔다는 고개와 골짜기 이름이다.⁶²⁾

34) 선창(船倉)이는 신촌동 앞 탄천에 있던 배를 대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⁶³⁾

35) 탑골은 야탑동의 옛 이름이다. 백제시대에 울동에 금강사의 말사와 암자들 그리고 불탑이 많이 세워져 붙여진 이름인데 상탑, 중탑, 하탑으로 분류하여 부르기도 하였던 곳이다.⁶⁴⁾

그 외에도 수많은 백제시대부터 전해 오고 있는 지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도 성남만이 지니고 있는 유일하여 대내외에 자랑할 만한 역사와 문화의 한 장면이기도 한 것이다. 이름은 곧 역사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 같은 사실들을 묶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성남으로 한시 바빠

58) 2008년 11월 28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하) 86쪽, 89쪽.

59) 2009년 11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낙생 마을지 155쪽.

60) 2009년 11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낙생 마을지 128쪽.

61) 2007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상) 110쪽.

62) 2004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대왕 마을지 166쪽.

63) 2004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대왕 마을지 158쪽.

64) 2007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 마을지(상) 112쪽.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 오는 민속 중에 낙생면의 판교쌍룡 거(왕)줄다리기와 이매동의 이무술 집 터다지는 소리, 오리뜰 농악, 율동에 전해 오는 반가상여소리 등이 발굴되어 전하고 있으나 아리랑고개가 율동과 여수동에 두 곳이나 있는 성남에서 아리랑이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성백제의 흔이 지금도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성백제의 모든 문화의 창출지가 바로 성남지역이라는 사실을 제삼 일깨워 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성남지역이 창곡동에 있던 태자궁에서 모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전국의 군사들을 통합지휘 하였으므로 전국의 문화와 풍속이 이곳에 와서 모두 정체되고 진화되어 전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성남의 역사와 문화는 한성백제와 도읍지인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남지역이 한성백제 문화의 중심축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성남에는 한성백제의 사기충천하였던 기마민족의 대명사인 높은 기상과 위대한 창조적 문화와 예술성을 지니면서 495년간의 영화를 누렸으나, 장구한 역사와 문물이 수많은 전란의 폐해에 의하여 찬란하였던 백제의 문화와 함께 유물과 유적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비운의 지역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사가 무참히 짓밟혀 전해움이 없어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명로나마 전해 오고 있는 것은 성남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중대한 역사적 소명이요, 당대에 직면한 피할 수 없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옛 역사를 재조명하여 그 심오하고 화려한 역사 속의 문화와 예술과 각종 기예를 파악하고 복원하면서 지난 역사 속의 빛나는 문화와 예술을 근본으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출을 포함하여 성남만이 지니는 아름다운 문화조성을 위하여 성남이 전심전력한다면 성남은 대

한민국의 중심축에 설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을 창출함은 물론 역사의 정통성과 어우러져 관광성남을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과 새로이 창출되는 문화와 예술은 무궁무진하여 시대의 벽을 넘어 뛰어넘어 후손 만대에 전해 갈 수 있는 신문명이 창출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한성백제의 뛰어난 문화예술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함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심축에 있던 한산이 한성백제의 도성이었다는 데는 인색하게 생각하여 남한산성의 백제의 도성사실을 무시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무조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참된 우리의 역사를 발굴조사와 해박하고 정밀한 연구를 하여 그 연구실적으로 한성백제와 남한산성을 재조명하고 논리정연하면서도 올바르게 써서 정설의 역사를 확고하게 적립하여 후대에 전수하여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역사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風水地理的觀點에서 바라본城南

정태열

(한국풍수지리감정원 부원장 겸 수석연구원 · 도선통맥풍수관련 논문 외 다수 논저)

◆ 차례 ◆

- 第Ⅰ章 序論
- 第Ⅱ章 風水論의 理解와 城南市의 地理的 現況考察
 - 1. 風水論에 對한 一般論의 考察
 - 1.1 傳統地理學으로서 風水地理學
 - 1.2 風水의 歷史
 - 1.3 形氣風水 立地에 對한 主要理論
 - 2. 城南市의 地理的 現況考察
 - 2.1 自然地理的 現況
 - 2.2 風水地理學의 現況分析
 - 2.3 城南市에 對한 風水論의 提言
- 第Ⅲ章 結論

第Ⅰ章 序論

풍수지리는 한국의 전통지리이자 한국인의 자연관이다. 풍수의 역사는 삼황오제¹⁾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터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감각적으로 터득해 온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인류는 채집과 수렵의 이주생활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거주지는 한시적으로 이동에 편리한 임시주거형태를 유지하다 불의 사용과 석기를 활용한 원시농업의 시작으로 이주보다는 정착생활을 택하게 되었다. 이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석기보다 더욱 우수한 철기를 개발하면서 비로소 인류는 문명사회라는 다수공동체라는 문화를 형성해왔다. 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언어에 의한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언어를 저장하는 기록의 필요성에 의해 문자를 발명하게 되었다. 문자의 발명은 초기 자연물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그림에서 출발하여 회화와 문자로 구분되어 진보하였다. 우리는 이를 역사시대라고 하고 그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여 시대적 구분을 하기도 한다. 인류가 공동체라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웃 부족과의 마찰로 정복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형성되었다.

풍수지리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대동하였다. 원시인류에게 추위와 굶주림은 처절한 생존의 문제였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농작을 위한 효율적인 땅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땅을 찾고 빼앗기 위한 인류의 역사는 처절한 피의 역사였으며 고대인들에게 땅을 찾는 지혜는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땅을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내지는 명당(明堂)이라고 부른다. 즉, 배산(背山)이란 산

1) 삼황은 천황·지황·인황이라는 설, 태호포희씨(太皞庖犧氏)·여와씨(女媧氏)·신농씨(神農氏)라는 설(三皇本紀), 복희(伏羲)·여와·신농이라는 설(《춘추》운두추(運斗樞)), 수인(燧人)·복희·신농이라는 설(《서경》대전(大傳)), 복희·신농·축융(祝融)이라는 설(《백호설(白虎說)》), 복희·신농·황제(黃帝)라는 설(尚書序) 등이 있다. 오제는 황제·전욱고양(顓頊高陽)·제곡고신(帝摯高辛)·제요(帝堯)·우순(虞舜)이라는 설(《사기》오제본기(五帝本紀)), 태호(太昊)·전욱·신농·소호(少昊)·황제라는 설(《예기》월령(月令)), 소호·전욱·제곡·요·순이라는 설(帝王世紀)도 있다. 오제는 대부분 춘추시대까지 존 재했던 각 나라의 시조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을 등진다는 의미로 산을 등진다는 것은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는 장풍(藏風)의 산세를 말하며, 임수(臨水)는 물이 먼 곳에서 흘러와 머물렀다 가는 것을 말한다. 물이 머무르는 곳은 고대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점유하며 머무르는 것으로 기름진 옥토(沃土)가 있음을 의미한다. 배산은 연료의 공급지이기도 하였고, 임수는 농업용수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물이 많은 곳은 충적과 퇴적에 의한 지형으로 농업에 적합한 토질이었다. 따라서 풍수에서의 배산임수는 어떠한 풍수논리보다도 우선되어지는 절대적 명제로 고대 인류와 함께 경험에 의한 토지활용의 지혜였다.

인간은 지표상에서 동식물과 함께 생명을 영위하는 자연생물종의 하나로 자연이라는 환경적 생태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인류문명의 고도산업사회를 형성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자연과의 끊임없는 충돌로 위기를 자초하기도 한다. 인류가 사는 지표상의 공간은 대기의 순환구조에 의해 기류가 형성되고 냉온강약에 따라 지표상의 생태환경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환경을 제공한다. 풍수지리는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공한다. 풍수론은 선각자들의 자연에 대한 이치와 땅에 대한 논리를 집대성한 자연지리학이다.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와 도시문명 속에서 인간의 삶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생활과학이다. 유도적(儒道的) 관습이 잔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도시화와 지역성은 개발위주의 정책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질적 풍요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화두(話頭)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의 지리적 입지를 살펴보면 한남정맥에서 검단지맥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평포된 지역으로 중부지방의 경기도 내의 중앙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한강을 접한 동남방 약 2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광주시 중부면과 하남시에 접하여 있으며, 서

쪽은 의왕시와 과천시에 접하여 있고, 남쪽은 용인시 수지읍과 광주시 오폭면, 그리고 북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송파구의 여러 동과 접경을 이룬다.²⁾ 성남의 동쪽은 광주시, 서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강남구, 과천시와 의왕시, 남쪽은 용인시, 북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하남시와 접하고 있다.³⁾ 성남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개발된 위성도시⁴⁾로 '성남 분당 지구의 신시가지' 건설 사업으로 제1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계획된 신시가지 동편과 서편은 산록지대이며, 중앙부의 탄천주변은 평야지대로써, 세천(細川)은 물론 소하천과 중천의 형세가 많이 형성된 것을 지형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성남의 지리적 입지를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풍수론적 제언으로 한국의 지자체 가운데 그 위상을 굳건히 하면서 성남의 경제적 미래가치를 향상시키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풍수적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풍수론에 대한 고찰과 성남의 지리적 현황을 고찰하고 풍수지리적 특성을 찾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의 풍수적 경제가치 증대를 위해 산지와 수계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경기도청의 소재지인 수원과는 약 22Km, 안양은 18Km, 광주시청이 있는 정안과는 약 12Km 거리에 도심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의 접경선과는 약 3.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중부지역인 서울의 남쪽 동경 127°01' ~ 127°11', 북위 37°19' ~ 37°23' 에 위치하고 있다.

3) 면적은 141.72km²이고, 인구는 94만 2,447명(2008년 현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3개 구, 4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도시개발 이전까지 이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의 일부와 들마면, 대왕면, 낙생면으로 이루어진 산간벽지에 불과하였던 곳으로 써 다른 자연발생적인 여타 도시에 비해 지면의 굴곡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1989. 4. 27 성남시 남쪽 지역의 소위 "남단녹지"를 중심으로 분당지구 일대 540여 만 평의 규모에 10만 5천호의 주택을 건설, 42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계획되었다.

第Ⅱ章 風水論의 理解와 城南市의 地理的 現況考察

1. 風水論에 對한 一般論的 考察

1.1 傳統地理學으로서 風水地理學⁵⁾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은 천도(天道)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지도(地道)의 음양오행으로 치환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 즉 지리(地理)를 체계화한 전통사유적 논리구조이며, 《주역》을 주요한 준거로 삼아 인사(人事)에 있어 추길피흉(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리철학(象地理哲學: 形而上)내지 상지기술학(相地技術學: 形而下)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풍수론에서의 음양오행에 대한 적용은 명리학적 음양오행과는 상반되게 해석한다.

풍수이론의 구성체제는 산(山)·수(水)·바람(風)·방위(方位: 陰陽五行)·사람 등 다섯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룡법(看龍法)·장풍법(藏風法)·득수법(得水法)·정혈법(定穴法)·좌향론(坐向論)·형국론(形局論)으로 나뉜다. 형국론은 사신형국에 대한 명당의 여부에 관한 이론으로 형국의 형태를 의인화(物形論)한 물형론은 소주길흉론(所主吉凶論) 등의 형식논리를 갖는다. '풍수'라는 용어는 중국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 쓴 《장서(葬書)》에 “죽은 사람은 생기(生氣)에 의지해야 하며 그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 그래서 바람과 물을 이용하여 기를 얻는 법술(法術)을 풍수라 일컫게 되었다⁶⁾”라는 기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한대(漢代)의 “청오경”에 ‘풍수자성(風水自成)’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부터 풍수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풍수의

5) 장정환, 자연지형의 변화현상과 원리, 그리고 풍수지리의 만남, 2013, 청우, pp.40~55

6) 葬者乘生氣也……經日氣乘風則散界水則止……故謂之風水

본래적 의미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환경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풍(風)은 기후와 풍토를 지칭하며, 수(水)는 물과 관계된 인간의 모든 생활용수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풍수는 자연변화의 핵심적 자연인자로서의 풍수의 대상은 현대 지리학의 관심분야와 다를 것이 없다. 이는 주문왕(周文王)이 그렸다는 낙서(洛書)와 낙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후천팔괘(後天八卦)에서도 자연변화요소를 화(火, 南)와 수(水, 北)를 중심으로 하여 방위상에서의 배정을 경선상의 중심에 위(位)한 것을 보더라도 자연변화의 주체가 화기(火氣)와 수기(水氣)에 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풍(風)과 수(水), 그리고 화기(火氣)와 수기(水氣)가 상보적 자연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풍 = 화기 = 건기(乾氣), 수 = 수기 = 습기(濕氣)의 관계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풍수는 형이하적 물질요소로 개념이며, 화기와 수기는 형이상적 정신요소 개념으로 상대성을 갖는다. 또한 건기와 습기도 풍 · 수와 화 · 수기와 같은 상대성내지 상보성은 매우 이질적인 상극관계로 성향이 다른 음과 양, 혹은 오행기라는 음양오행논리라고 할 수 있다.

도읍이나 마을의 자리 잡기, 집터 잡기, 물자리 찾기, 정원수의 배치, 길내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땅을 보는 기본적 시각, 즉 풍수의 사상성은 자연성을 넘어 인문지리적 입장과도 같다. 또한 철저한 적선(積善)과 적덕(積德)의 강조는 윤리성과 인과응보(因果應報)적 토지관으로써 오늘날 사회지리학자들의 지역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일치되거나 자연생태지리학과도 일치된다. 이런 면에서 풍수지리학은 인류의 출현과 함께 이주(移住)에서 정주(定住)로, 수렵채취에서 농경으로, 가족중심에서 부족중심으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경험적 생활지리에 대한 생존을 위한 지혜로서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되어 온 자연과 변화현상에 대한 지식적 체계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살아 있는 사람과 땅의 관계뿐 아니라, 즉

은 사람의 경우까지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 풍수의 특징이 있다. 풍수의 기본논리는 산의 맥이라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 땅 속을 돌아다니는 생지기(生地氣)를 사람이 접함으로써 복(福)을 얻고 화(禍)를 피하자는 것이다.⁷⁾

산 사람은 땅의 생기를 받아 삶을 영위하면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라는 유동하는 기운을 간접적으로 얻고, 죽은 자는 땅 속의 지기(地氣)에 의한 감응(感應)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지기(生地氣)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다. 또한 죽은 자가 얻는 생지기(生地氣)는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여겼는데, 이를 정신심리학적 동기감응(同氣感應) 또는 유전생물학적 혈연감응(血緣感應)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수지리이론을 수록한 풍수서는 《장서》를 비롯하여 《지리사탄자(地理四彈子)》·《청오경(靑鳥經)》·《입지안전서(入地眼全書)》·《탁옥부(琢玉斧)》·《인자수지자효지리학(人子須知資孝地理學)》·《설심부(雪心賦)》·《양택대전(陽宅大全)》 등이 널리 알려진 풍수지리서이다. 한국의 풍수서 《명산론(明山論)》·《산수도(山水圖)》 등은 우리나라의 명혈(名穴)·길지(吉地)를 지도와 함께 수록한 풍수실용서이고, 《도선답산가(道詵踏山歌)》·《금낭가(錦囊歌)》·《옥룡자유세비록(玉龍子遊世秘錄)》 등은 가사체로 된 풍수지침서이다.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풍수서가 나와 있으나 대표적인 한국의 자생풍수서로 《금부경(金符經)》⁸⁾을 들 수 있다. 기타 지리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대개는 앞서 나온 책을 베끼고 거기에 주석을 다는 형식을 취한 필사본이 많다.

7) 사람의 몸에 혈관이 있고 이 길을 따라 영양분과 산소가 운반되는 것처럼 땅에도 생기(生氣)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경락(經絡)과 같은 것이 땅에도 있다는 것으로, 경락은 혈관과는 달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몸의 기(氣)가 전신을 순행하는 통로로서, 지기(地氣)가 돌아다니는 용맥(龍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땅 속 생기의 존재 자체는 아직 증명되어 있지 않으나 그 존재가 절제되어야 설명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으며,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풍수지리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원리는 변화중심의 운동성에 따라 음양의 상징적 자연물인 산과 물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정(靜)하려는 산은 음(陰)으로, 동(動)하려는 물은 양(陽)으로 표현하고 ‘용(龍)’은 바로 산이나 산세를 지칭한다. 그리고 용맥(龍脈)이 조산(祖山)으로부터 혈장(穴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좋고 나쁨을 살피는 방법을 간룡법이라 한다. 용 속에는 감추어진 산의 정기(精氣), 즉 지기(地氣)가 유행(流行)하는 맥이 있어서 간룡(看龍)할 때에는 용(龍)을 체(體)로, 맥(脈)을 용(用)으로 하여 찾는다.⁹⁾ 명당의 요건에서 혈이라는 핵심에 해당하는 혈처, 즉 혈장(穴莊)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풍수지리에서는 명당 주위의 지형·지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가 풍수지리의 이해에 중요한 대목이 된다.

장풍법(藏風法)이란 명당 주위의 지세(地勢)에 관한 풍수이론의 통칭으로 정혈(定穴)은 결국 장풍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실제로 도읍이나 음택(陰宅) 또는 주택을 상지(相地)함에 있어 장풍법은 산지가 70%에 이르는 한국의 지형에서는 중요한 요체가 된다. 장풍은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左靑龍右白虎前朱雀後玄武)’라 하여 자침상의 실제방위론적으로 혈이 남향인 경우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의 네 가지 산, 즉 사신사(四神砂)에서 대종을 이룬다. 반면 상징적 방위로는 혈의 전면(前面)을 남으로, 혈후(穴後)를 북, 혈좌(穴左)를 동, 혈우(穴右)를 서(西)로 하여 사신방위를 설정한다.¹⁰⁾

8) 옥룡자의 금부경 필사본은 충북 보은군 마노면 관기리 경주김씨 계림군과 계보상의 현암 김광수 선생 문가에서 선대로부터 전수되어온 책이다. 이 책은 김광수 선생께서 풍수학자인 인산 윤갑원 선생에게 전하여졌는데 그 내용은 이미 윤갑원 선생께서 남양홍씨 문중에서 입수하여 발간한 도선통맥풍수내용과 일치함으로써 통맥풍수가 사대부가에서 구전심수로 전하여 온 한국의 자생풍수 이론임이 밝혀졌다.

9) 맥이란 사람의 몸에서 혈(血)의 이치가 나누어져 길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땅 속 용의 생기(生氣)가 그 이치를 나누어 지표면 부근에서 흐르는 것이며, 사람이 맥을 보아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처럼 용의 맥도 그 형체를 보아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것이다.

중국의 풍수지리에서는 산보다도 오히려 지형적 다우(多雨)지역에 의한 평양지에서의 물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많은 풍수서가 물을 얻는 득수법(得水法)과 물을 파(破)하는 득파법(得破法)에 많은 지면(紙面)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수지리가 흥성하였던 중국 북부지방은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득수법과 함께 바람을 갈무리하고 다스린다는 장풍법(藏風法)이 깊이 있게 다루어져 한국풍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평야지대의 득수법은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과 맞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수를 음(陰:人物)·양(陽:富)에 비정(比定)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따라 득수·득파법을 결코 무시하였던 것은 아니었다.¹¹⁾

물에서 탁취(濁臭)가 나거나 흐리면 안 되고 혈전(穴前)에서 유정(有情)하게 감싸 안으며 공손히 유장하게 지나가야 한다. 직급류수(直急流水)의 형태로 혈을 향하여 쏘는 듯 내지르는 것은 직수충살(直水沖殺)로 좋지 않다. 또한 산과 물(水)의 관계에서 산수(山水)는 일체로 음양배합의 논리를 적용하되 혈(穴)을 중심으로 산의 진행과 물의 진행방향은 역방향의 형세(逆勢)여야 남녀상배(男女相配)하고 음양상보(陰陽相補)하는 원리에 따라 산수가 상생하는 것으로 보아 길(吉)한 것으로 보았다.¹²⁾

반면 산과 물의 형태가 배합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따로 따로 있는 것처럼 좌선형국(左旋形局)에 좌선수(左旋水)와 우선형국에 우선수의 순세(順勢)이면 불길(不吉)한 것으로 보았다.

10) 현무는 주산(主山)으로 국면의 기준이 되고 주산은 혈장 뒤에 솟아 있는 높고 큰 산이다. 주작은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산은 안산 뒤에 있는 크고 높은 산이며, 안산은 조산과 혈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산으로 주인과 나그네가 마주하고 있는 책상 혹은 밥상과 같다는 의미이다. 현무와 주작의 관계는 주인과 나그네,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 사이로 인식되어 고저와 근원의 관계 및 조응의 관계로써 길흉관계를 설정한다. 청룡과 백호는 각각 동과 서에서 주산(主山)과 조산(朝山)처럼 혈을 옹호, 호위하는 형세를 취하는 산이다.

11) 크게 보아 물은 반드시 길한 방위로부터 흘러들어와 흉한 방위로 나가는 법이다.

12) 풍수론에서 龍과 水의 陰陽相補의 논리로 左旋局에 右旋水, 右旋局에 左旋水가 合法하다고 한다.

혈이란 풍수지리에서 생기(生氣)가 집중되는 지점이다. 혈(穴)과 경혈(經穴)은 서로 대응될 수 있는데, 주자(朱子)는 <산릉의장(山陵議狀)>에서 “이른바 정혈의 법이란 침구(針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일정한 혈의 위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호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¹³⁾

풍수지리에서는 혈을 제대로 잡아야 생기(生氣)의 감응과 주위사각(砂角: 山)의 조응(照應)을 받게 되며, 진혈(眞穴)을 잡지 못하였을 경우 생룡(生龍)은 사룡(死龍)이 되며, 길국(吉局)은 흉국(凶局)이 되므로 혈법(穴法)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물·바람·방위·사람이라는 5요소는 혈을 중심으로 상호영향력을 행사한다. 풍수의 좌향론(坐向論)은 360도 원주를 24방위로 배분한 방위에 음양과 오행을 배정하여 상생과 상극관계를 보는 지리철학적 이기법(理氣法)으로 시간과 공간상의 배분 및 변화의 과정과 좌향과의 길흉관계를 가늠하는 논리로써 24절기의 음양오행기에서 취용한 것이다. 원래 좌향이란 혈의 위치에서 본 방위, 즉 혈의 뒤쪽 방위를 좌(坐)로, 혈의 정면을 향(向)으로 한다는 의미이다.¹⁴⁾

좌향은 방향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한 지점이나 장소는 무수한 방향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이기론에 의한 선호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좌향은 취용하는 이론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하나의 건축환경이 특정한 좌향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바라봄의 향은 자침상(磁針上)의 실질적 절대향과 사신사방(四神四方)적 상징적 상대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3) 정혈은 사람의 경락에 존재하는 공혈(孔穴)을 뜻하며, 생리적·병리적 반응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침구는 이 경혈의부위에 실시하게 되므로 이 위치를 잘 알아 장부(臟腑)의 병을 치료한다.

14) 예를 들면, 북쪽에 내룡(來龍)을 등지고 남쪽에 안산과 조산을 바라보는 혈처의 좌향은 북좌에 남향이지만 풍수에서는 24방위명(方位名)을 따라 자좌오향(子坐午向)이라 부른다. 하지만 보다 넓게는 혈처의 좌향 뿐만 아니라 산(山)과 수(水)의 방위문제 전반에 관련이 된다.

절대향은 앞에서 언급한 24절기상의 기후개념으로 인간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천체, 특히 태양의 운행에 의하여 결정지어지고 시간성을 내포한다. 반면 상대향은 지세·시계(視界)·실존성·사회성을 지닌 것으로, 풍수지리의 좌향론은 절대향과 상대향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형태를 취한다. 실제로 간산(看山)하여 길지(吉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직접 길흉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분류의 필요성이 생긴다.¹⁵⁾

우주만물은 유리유기(有理有氣)하여 유형유상(有形有像)하기 때문에, 외형물체는 그 형상에 상응한 기상과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의 형기론에서는 산혈형체(山穴形體)와 보국형세(保局形勢)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정기가 땅에 응취(凝聚)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물의 형(形)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각이 지니고 있는 상(象)에 따른 음양오행기(陰陽五行氣)의 차이 때문이고, 이 기(氣: 理氣)의 상(象)이 형(形: 形氣)의 상(相)으로 나타나는 만큼 형(形)으로 물(物)의 원기(元氣)를 알아낼 수 있다는 입장은 때로는 물형론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는데, 주로 땅을 쓸 사람에게 관계되는 논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적선(積善)과 적덕(積德)을 행(行)한 사람에게 길지(吉地)가 돌아간다고거나,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거나(地各有主), 땅을 쓸 사람의 사주팔자(四柱八字) 즉, 본명궁(本命宮)이 땅의 오행과 서로 상생관계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 등은 택일(擇日)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풍수지리가 더 한층 일반대중에게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리체계는 편의상의 분류일 뿐 실제 간산(看山)에서는 모두 일체가 되어 판단에 사용된다.¹⁶⁾

15) 이때 산천의 형세를 인물금수(人物禽獸)라는 물형의 형상으로 의인화하여 판단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지세와 길흉을 논하기도 한다.

16) 형기론에서 전체의 국세(局勢)는 상극·궁핍·산발·고단함·무정함·쏘는 듯함·상충 등은 흉(凶)하고, 상생·상보·생기·변화·둘러싸임·유정함·순조로움·모여들 등 조화와 균형의 분위기를 지니야 길(吉)하다.

온화유순(溫和柔順)하고 부드러우며 결함이 없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주위환경, 살기(殺氣)를 머금지 않고 방위와 요곡(凹谷), 혹은 절(切)하지 않는 방위, 유장(有長)한 산의 흐름, 찌를 듯 하지 않는 산수형세(山: 龍沖殺, 水: 直水沖殺), 그러나 변화무쌍하여 결코 단조롭지 않은 산수의 배열, 이러한 자연의 조화에 적당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풍수적인 길지(吉地)이다.

풍수지리학은 일종의 생태론적·환경론적 토지관의 표출이며 경험적인 지리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풍수학의 기본원리가 음양론·오행설·역(易)의 체계라 하더라도 그 원리 역시 자연환경의 논리적 정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풍수지리학에 대한 철학적 반론 중에 풍수지리는 하늘에 맡겨 두어야 할 자연의 신비적 힘들을 조작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결여하게 된다는 비판적 관점¹⁷⁾이 있는데, 이는 현대 생태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2 風水의 歷史

풍수의 역사를 보면, 형기론적 취락입지에서 배산임수(背山臨水)·전저후고(前低後高)·전작후관(前窄後寬)·남록완사면(南麓緩斜面) 같은 곳은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민족들에게 공통된 길지였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의 지리관을 지녔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삼국 초기에는 자생적인 지리사상을 형성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이론으로 정립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는 없으나 고대의 천부지모사상(天父地母思想)에 음양론이 가하여지고, 여기에 사신(四神)으로 대표되는 구체적인 천문사상(天文思想)이 지도

17) 그러나 진정한 길지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여전히 하늘에 달려 있어 억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길지는 인자(仁者)와 효자(孝者), 직선자(積善者)와 적덕자(積德者)에게만 주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사상(地道思想)내지 지모사상(地母思想)으로 발전되면서 전국시대 말기부터 구체적인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기원전 5, 4세기경 도참비술적(圖讖秘術的) 사상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대(漢代)에 이르러 음양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으로써 풍수지리학이 정착되게 된다.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는 한층 발전하여 대가(大家)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때 집터인 양택(陽宅) 위주의 풍수에 묘터인 음택(陰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당·송·원·명·청대에도 수많은 풍수서와 유명한 풍수가가 출현하였다. 삼국시대에 중국의 풍수지리 이론이 도입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신도신앙·음양오행설, 그리고 점상술(占相術)·참위비기류(讖緯秘記類) 등이 수입되어 풍수지리와 유사한 관습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다. 고구려를 침공하였던 관구검(毌丘儉)의 묘를 보고 당시의 유명한 음양가가 ‘묘형(墓形)이 고독한 상형(相形)을 이룬 흉격(凶格)이기 때문에 장차 멸족의 화를 당하리라’는 예언 내용의 기록, 선덕여왕이 여근곡(女根谷)이라는 산 모양 때문에 백제의 매복군사를 발견하였다는 설화, 신라 제4대 탈해왕이 토함산 위에 올라 초승달 달처럼 생긴 지세를 보고 자기가 살터라고 생각하여 그곳을 사술(邪術)로 빼앗은 이야기, 고구려·백제의 고분벽화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 ‘고려사’의 끝부분에 실린 고려건국신화에서 신라의 감간(監干) 김팔원(金八元)과 왕건의 6대조 강충과 관련한 양택관련 기록, 강충의 증손 즉, 작제건(作帝建)의 아들이며 왕건의 아버지인 융(隆)과 관련하여 당나라의 일행지리법(一行地理法)을 배워 온 도선국사가 백두산에 올랐다가 곡령(鵠嶺)에 이르러 융의 새 집을 보고 나누었다는 일화 등이 그 예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라 원성왕 때에는 《청오경》이 수입되었다는 확실한 기록이 있어 풍수지리가 도선(道詵) 이전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나라로부터 본격적으로 풍수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도선에 의해서이다. 도선은 최치원(崔致遠)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선문구산파(禪門九山派)¹⁸⁾ 중 하나인 동리산파(桐裏山派)¹⁹⁾의 개조 혜철(惠哲)로부터 인가를 받아 전라남도 광양의 옥룡사(玉龍寺)에서 독자적인 선문을 개설하고 있던 승려이다. 그가 중국인 일행(一行)으로부터 직접 풍수지리를 전수받았다는 것은 일행과 도선의 생년몰상 연대로 보아 사실이 아니나, 대체로 그의 지리법을 일행문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²⁰⁾

일행은 위도를 측량하고 역법을 정리하기도 한 매우 합리적이고 실증



〈그림1〉 한국의 산맥(左)과 광주산맥도(右)

- 18)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형성된 선종(禪宗)의 아홉 파(派)로 가지산문(迦智山門), 실상산문(實相山門), 동리산문(桐裏山門), 회양산문(曦陽山門), 봉림산문(鳳林山門), 성주산문(聖住山門), 사굴산문(閻闡山門), 사자산문(師子山門), 수미산문(須彌山門)을 일컫는다.
- 19) 혜철(惠哲, 785~861)이 814년에 당(唐)에 가서 서당 지장(西堂智藏)의 선법을 전해 받고 839년에 귀국하여 곡성 동리산에 태안사(泰安寺)를 창건하고 선풍(禪風)을 일으킴으로써 형성된 파(派). 이 산문에 여(如, 생물년 미상)와 윤다(允多, 864~945), 도선(道詵, 821~898)과 경보(慶甫, 868~945)가 있음.
- 20)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 도선이 중국의 천자를 만났다는 것은 일행이 생존하였던 시대가 아닌 100여년 후의 천자를 도선이 만났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선의 풍수지리설도 극히 경험주의적 입장에 경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선과 그의 제자들은 한반도의 지형을 인문지리학적 시각에 가깝게 재해석하여 지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인 경동지괴(傾東地塊)와 백두에서 한라로 이어지는 산맥체계를 수모목간(水母木幹)으로 파악하였고, 수도의 위치가 동남방에 편재된 경주보다는 중부지방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고려 개국의 이념적·실리적 바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은 선종과 도선류의 풍수지리에 크게 힘입어 나라를 세운 만큼 그에 대한 경도는 지극하였고, 이후 고려시대를 통하여 풍수지리학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립하였다.²¹⁾

고려시대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예외없이 풍수지리설이 근저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수지리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의 과거제에 다양한 풍수지리학을 시험과목²²⁾으로 채택하였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3 形氣風水 立地에 對한 主要理論

(1) 吉相의 陽宅立地에 對한 形象과 形勢論

- 21) 태조의 <십훈요(十訓要)>는 풍수지리 중시의 대표적 사실(史實)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원의 개창에 관한 제1조로부터 모든 사찰입지를 도선이 정하여 준 곳이 아니면 쓰지 말라는 제2조, 서경(西京)을 귀하게 여기라는 제5조, 국토에 대하여 순역(順逆)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제8조 등의 해석은 철저하게 풍수지리적이다. 이후 성종과 현종의 동경(東京), 즉 경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문종 이후 꾸준하게 계속되어 온 남경(南京), 즉 서울에 대한 관심은 고려 말까지 계속되며, 서경전도론은 묘청의 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 22) 풍수지리에 대한 비중은 조선의 과거시험에 있어서 잡과(雜科)인 음양과(陰陽科)에 속하여 치루어졌는데 태조 원년인 1392년부터 칠과의 하나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모두 10개 과목으로 청오경(靑烏經)과 금낭경(錦囊經)은 배송강경(背誦講經:背誦이라고도 하며 외워서 시험보는 것을 말한다.)으로 실시되고, 나머지 8개과목인지리신법(地理新法), 명산론(明山論), 지리문정(地理門庭), 감룡경(感龍經), 의룡경(疑龍經), 작맥부(捉脈賦), 동림조당(洞林照膽),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임문고강(臨文考講:臨文講經이라고도 하며 경전을 펴 놓고 大義를 묻는 시험을 말한다.)으로 실시되었다.

양기론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길한 주거입지’의 형세를 말한다. ‘길한 양기·양택입지 형세’는 풍수지리 문헌상 이론적 고찰 결과와 같다. 고래(古來)로부터 ‘살기 좋은 터’를 찾으면서 생겨난 자생풍수의 원리와 부합되기도 하여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좋은 주거입지를 찾는 지표’이다. 양택입지에 관한 풍수서로 중국의 송(宋)나라 왕미(王徽)가 저술한 것으로 “황제택경”, 명대(明代)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작자 미상의 “양택십서(陽宅十書)”, 청(淸)나라 오자(吳子)가 쓴 ‘양택촬요(陽宅撮要)’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복거(卜居)’에서 풍수와 관련한 주택의 터 선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양택풍수서에서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전작후관(前窄後寬)의 3가지를 기본적인 양택의 입지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일광, 통풍, 토질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 밖에 햇볕이 잘 받아야 하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하며, 땅은 단단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목이 잘 자라야 하고 길한 양택입지의 형상으로는 원만하고 평탄하게 생겨야 한다(方正圓滿). 또한 평평하고 꽉 차야 하고(充滿平坦) 앞이 평탄해야 한다(前面充滿). 길한 택지의 모형은 원형의 택지, 앞이 좁은 사각형, 원형 돌출, 직사각형의 택지, 정사각형, 사각돌출형 등 형태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2) 陽基·陽宅論의 論理와 體系²³⁾

양기와 양택에 대한 이기풍수론과 형기풍수론에서의 공통적 입지요건을 보면,

첫 번째 요건으로 형국론(形局論)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형국론적으

23) 장정환, 전게서, pp.139~145

로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절터(寺刹地)는 배산임수(背山臨水)나 장풍득수(藏風得水地)인 양택지리로써 설명하고 있다. 사신사(四神砂)가 뚜렷이 환포(環抱)하고 주룡(主龍)인 북현무(北玄武) 뒤로는 후룡(後龍)의 조산(祖山)이 힘차게 내용(來龍)하고 있는 형국에 입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사정방(四正方)인 자오묘유방(子午卯酉方), 즉 동서남북방위에 수려(秀麗)한 미봉(美峰)이 토금목체(土金木體)²⁴⁾로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4방위가 모두 산봉우리(砂)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격론(砂格論)에서의 일반론이며 최소 3개방위에서 감싸주고 있으면 사격(四格)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중환의 택리지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 말한 여섯 개의 요구조건²⁵⁾이나 격암유록의 10승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지론의 전형적인 형국론에 있어서의 양택이론에 해당된다.

세 번째 요건으로 풍수지리에서는 명당지의 토질(土質)과 토색(土色)에 대하여도 정의되고 있는데 토색은 오색토(五色土)²⁶⁾로써 황색이 주색(主色)이어야 하며 토질은 비석비토(非石非土)²⁷⁾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오색토는 이기론적 정의이며 비석비토는 형기론적 정의로서, 토색은 주위 지반(地盤)의 모질토색(母質土色)에 따라 명당토색

23) 장정환, 전계서, pp.139~145

24) 토금목체라 함은 음양오행설의 오행을 산(山)의 생김새(形相: 山形)에 따라 다섯 가지의 형체로 구분한 것인데, 화체(火體)는 주로 고산(高山)으로 산봉우리가 뾰족하거나 암석이 풍화에 의해 깨지거나 찢어진 형태를 말하며, 수체(水體) 또한 주로 고산으로 능선의 기복(起伏)이 아주약해 잔잔한 물결모양을 이룬 능선에서 이루어진 봉우리를 말한다. 반면 목금토체는 산봉우리가 두툼하거나 산정(山頂)이 평평한 형체를 이룬 산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물과 부(富)를 상징하므로 사찰의 경우 유명한 고승이 배출되거나 신도가 늘어나 교세가 확장되어 재물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5) 수구(水口), 야세(野勢), 산형(山形), 토색(土色), 수리(水理), 조산조수(朝山朝水)를 말한다.

26) 음양오행설의 오행에서 방위에 따라 오행색상을 배정하고 있는데 北黑, 東靑, 南赤, 西白, 中央黃色으로 명당지의 형국에 있어 명당은 사방위(四方位)의 중심으로써 토색은 사방색을 떠도 중심색은 황색토이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27) 둘 같은데 둘도 아니며 흙 같은데 흙도 아니란 뜻이다.

(明堂土色)이 다른 것이지 반드시오색을 띠는 것은 아니며, 비석비토는 지리학에서의 말하는 모래(Sand) 입경인 2mm 이하에서 미사(微砂, Silt) 입경인 0.2mm 이상의 사이에 해당하는 사질(砂質)을 말한다.

네 번째 요건으로는 산곡(山谷)의 양기(陽基)는 산중평지(山中平地)로서 사면(四面:四神方)이 공위(拱衛)하며 공결요함(空缺凹陷)한데가 없고, 수구(水口)가 교고(交固)하고 형국(形局) 내는 개창(開暢)해야 한다. 즉 산곡에 있을지라도 평양(平洋)과 같이 지형이 관평(寬平)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니, 협착(狹窄)하여 사산(四山)이 양택을 고압(高壓)하거나 음(陰)하고 질색(窒塞)한 곳은 천옥(天獄)으로 흉지(凶地)이며, 협곡처(峽谷處)를 등지고 계곡수(溪谷水)가 상충(相沖)하는 양기, 양택지는 수살(水殺)로 인하여 흉지(凶地)이다.

다섯 번째 요건으로는 자연적 전저후고지(前低後高地)나 전착후관지(前窄後寬地) 형세이며 접근성이 좋되 경계가 분명하고 오물매립지(汚物埋立地) 혹은 충적지(沖積地)나 퇴적지(堆積地) 등은 좋지 못하다.

풍수지리학의 형기풍수론에서 다루고 있는 양기 양택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기·양택의 길지(吉地)는 산진수회(山盡水回)²⁸⁾하고 환포장풍(環抱藏風)으로 형성된 형국(形局), 즉 산이 다하고 물이 궁체(弓體)로 휘감아주고 청룡과 백호 등 사신사가 둘러 안고 있어서 지기(地氣)의 누설을 방지하고 외부의 흉살(凶殺)을 방어하여 국내(局內)에서 이루어지는 일편의 땅을 말한다. 다만 양기지(陽基地)는 장룡(長龍)으로 산진처(山盡處)에 혈처(穴處)가 넓고 물이 합취(合聚)하거나 만곡(彎曲)하며 사

28) 직역하면 산이 다하고 물이 돈다는 뜻으로서 풍수지리학에서는 정적(靜的)인 산을 음(陰)으로 동적(動的)인 물을 양(陽)으로 규정하는데 산이 다했다함은 즉 이어지던 산의 형체가 끝나는 곳에 물이 돌아 흐른다는 것으로 지리학적으로 산고수저(山高水低)의 지표상에서 당연한 이치이나 풍수지리는 이 같은 이치를 산음(山陰)과 수양(水陽)이 상호 음양배합(陰陽配合)하는 이치에 의해 지표형상(形相)이나 자연현상(現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각(砂角)도 크게 교결(交結)하고 조공(照拱)하며, 국세(局勢)가 넓고 관활(寬闊)하여 평화로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양기(陽基)는 일편(一片)의 평지(平地)로 평포(平鋪)된 곳에 물이 있고 국세(局勢)가 관활하여 평화로운 곳이니 양기는 일편으로 형성된 관평(寬平)한 땅을 말한다. 그러므로 양기지는 음택지(陰宅地)보다 역량(力量)이 크므로 국세(局勢)가 넓을수록 결작(結作)이 커서 상격(上格)은 수도(首都)나 대도시가 되고, 그 다음은 군읍(郡邑) 정도가 되며, 작은 것은 향촌(鄉村)이 되는 땅을 말한다.²⁹⁾

이를 다시 요약하면 공공다중(公共多衆)이 기거(起居)하는 넓은 택지, 즉 향촌이상의 넓고 평평한 택지를 양기지(陽基地)라 하고 개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양택지(陽宅地)이라 하며 양택(陽宅)은 건축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또 다른 측면의 개념에서 풍수가 좋은 땅을 구해서 지기(地氣)의 힘을 받아 인생의 복락(福樂)을 추구하는 방법이였다면, 양택 또한 좋은 집을 지어 그 힘으로 인생의 복락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양택(陽宅)이란 산사람이 거처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죽은 사람의 거처인 음택(陰宅)과 구별된다. 양택은 풍수적 방법과 함께 그 근원적 관념인 음양오행론,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자연과학적 지식, 심지어는 속신적인 민간신앙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주택건축의 규범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양택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³¹⁾

그런가하면 양기(陽基)라는 것은 산 사람의 주거지란 의미로써 생자(生者)가 사는 곳, 즉 개인의 가정 또는 생인(生人)의 집단인 부락이나, 도읍의 땅을 양택(陽宅) 또는 양기(陽基)라고 이름붙인 것이며, 처음부

29) 윤갑원, 도선통맥풍수지리, 지선당, 2008, p.286

30) 상계서, p.287

31) 강영환, 전계서, pp.197~198

터 택(宅)과 기(基)는 똑같은 사람의 주거에 사용된 문자이지만, 그 용어의 관습상 택(宅)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 기(基)는 이 택을 둘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인(生人)의 주거지인 토지 즉 양기에는 대체로 2개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國), 도(都), 주(州), 읍(邑)과 같이 민중의 생활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가옥(家屋)이 입지하는 택지를 말한다.³²⁾라고 개념에 대해 논하기도 한다.

또한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의 ‘복거총론(卜居總論) 제1편 지리(地理)’에서 양기풍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통괄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수구(水口), 야세(野勢), 산형(山形), 토색(土色), 수리(水理), 조산조수(朝山朝水)의 여섯 가지의 항목으로 요지를 설명하면서 장차 집을 지어 자손만대로 전하려면 지리에 능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³³⁾

이중환이 주장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항목들을 분석하여 보면 풍수지리의 명당론에 있어서의 형국(形局), 즉 지형의 형상(形相: 形勢)적 조건인 땅(地: 吉地)에 대하여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사고(南師古)는 “격암유록(格庵遺錄)”에서 십승지(十勝地)³⁴⁾에 대해 천지 대개벽이 일어날 때 재앙(災殃)을 피하여 살 수 있는 10군데의 지역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10승지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삼재불입지(三災不入之地)”라고 하여 전쟁, 흉년, 전염병 등 세 가지 악재(惡災)가 들어올 수 없는 땅을 십승지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깊은 산중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땅으로서 산지사방(山地四方)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즉 안쪽에는 넓은 들판이 있고 항상 물이 마르지

32)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pp525~527.

33) 이중환, 택리지, 신명출판사, 2000, pp.68~69

何以論地理 先看水口, 次看野勢, 次看山形, 次看土色, 次看水理, 次看朝山朝水.

34) 영월 정동 상류, 봉화 춘양, 보은 속리 난중향, 공주 유구 마곡, 풍기 차암 금계촌, 예천 금당동 북쪽, 함천 가야산 남쪽, 무주 무풍 북쪽 덕유산 아래 방음, 부안 변산 동쪽 호암 아래, 남원 운봉 두류산 아래 동점촌.

않고 수량(水量)이 풍부하며(得水)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는 폐쇄적인 자연지형적 조건을 갖춘 형국(形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풍수지리에서 다루고 있는 양기지(陽基地)에 대한 길(吉)한 형국을 보면,

첫째, 강물이 휘감고 돌아 보국(保局)을 이루는 강촌마을.

둘째, 해안선이 만(灣)으로 굽고 작은 하천이라도 통해서 살기 좋은 어촌마을.

셋째, 경작이 용이하여 큰 부(富)를 이룰 수 있는 평촌마을.

넷째, 평시나 난세(亂世) 모두 오래 살기에 알맞은 산촌지.

다섯째, 배산임수(背山臨水)로 작은 보국(保局)을 이루는 마을.

여섯째, 산맥과 강이 어우러져 큰 보국을 이루는 도읍지 등을 들고 있다.³⁶⁾

또한 양택(陽宅)에 대하여는 풍수지리와 관련지어 여러 고증(考證)기록³⁷⁾이 있으며 그 중에 “고려도경(高麗圖經) 권3 민거조(民居條)”에 다음과 같이 일반 백성들의 주택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형지세(地形地勢)를 중요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왕성(王城)은 크고 화려하지만 지세(地勢)가 평탄치 못하고 자갈과 산두둑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의 집들은 마치 개미굴이나 벌집모양으로 보이고 지붕은 띠로 덮었는데 띠의 길이는 두 서까래 사이를 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부잣집들은 기와로 지붕을 덮었는데 열 집에 한두 집들이 기와집이었다. 전하여 듣기는 ‘광대(창우: 倡優) 집에는 긴 장대를 세워 여염집(양가: 良家)과 구별한다’ 하였으나 지금 들

35) 정경연, 양택풍수, 평단출판사, pp. 76~79

36) 상계서, pp. 47~89

37) 고려사, 권122, 열전 제35, 김위제. 권28, 충렬왕 3년 7월. 권130, 열전 제43, 김준 등(다수 문헌)

으니 그렇지 않다. 대개 그 풍속이 귀신을 받들고 기양(祈禳)하는 기구(器具)들을 보다 좋게 하는 것뿐이었다.”³⁸⁾

양택에 있어서의 3대요소로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전착후관(前窄後寬)의 기본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입지조건으로는 따뜻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위환경이 좋아야 하며, 대소 빌딩사이의 주택을 피하고, 도로나 철도주변은 피해야 하며, 택지(宅地)의 토질(土質)은 생토(生土)이며 습기가 적당하고, 오물(汚物)매립지가 아니며, 사수(四宿)³⁹⁾가 뚜렷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⁴⁰⁾ 그리고 도로보다 낮은 양택도 흉택(凶宅)으로 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양택풍수론으로 가장 오래 된 “황제택경(黃帝宅經)”⁴¹⁾에서 주택의 오허(五虛), 오실(五實)을 다루고 있으며,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복거조(卜居條)’에서도 양택풍수의 입지에 대하여 적고 있다.

이상에서 논자는 양기, 양택과 관련된 일반적 입지론(立地論)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성과 사찰(寺刹) 및 성(城)에 대하여도 모두 생인(生人)이 기거한다는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양택의 범주(範疇)에 포함시켜 자연적 입지와 인문적 입지 및 가상(家相)의 구조형식 등에 대해서 종교와 철학, 경제와 사회문화, 군사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풍수지리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3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2000, pp40~42.

39)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말한다.

40) 윤갑원, 전계서, pp.294~299

41) 도교의 감여서(堪輿書), 간단히 택경(宅經)이라고 하며, 지은이는 3황5제시대의 한사람인 황제(黃帝)라고 하나 알 수 없으며 2권이 전한다. 송사(宋史)의 “예문지(藝文志)”에 상택경(相宅經) 1권이 있으나 이 책은 정황(鄭樵)의 상택법(相宅法)을 24로(路)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고전서” “도장” “도장집요”에 들어 있다.

2. 城南市の地理的現況考察

2.1 自然地理的現況

성남시의 지형은 검단산, 불곡산, 문형산을 잇는 동부의 광주산맥 지맥과 인능산, 청계산을 잇는 낙맥의 구릉지 및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발원 하여 수지구 풍덕천을 경유, 시의 중앙부를 관류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변은 하천 평야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척추 격인 태백산맥의 칠령을 기점으로 하여 서남 방향으로 뻗어 오면서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을 분수령으로 표고가 점차 낮아져 오다가, 검단산, 문형산, 불곡산을 낙점으로 급경사면을 형성하여 한강과 탄천변에 이르고, 역시 낙맥인 청계산, 백운산, 인능산을 잇는 남북 방향의 지맥으로 둘러싸여 남북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100m 전후의 야산이 동서로 뻗거나 평야에 돌출되어 있다.

성남시는 광주산맥의 말단에 위치하며 200~500m의 구릉성 산지가 서쪽과 동쪽에 남북으로 지난다. 동쪽에는 청량산(479m)·검단산(535m)·불곡산(312m)이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인능산(327m)·청계산(615m)·국사봉(540m)·바라산(427m)이 서울시, 과천시, 의왕시 등과 각각 접하고 있다.⁴²⁾

시의 중앙부에 탄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중앙에는 낮은 평야가 남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지형적 이유로 동쪽에는 대원천·야탑천·분당천이 서진하여 탄천에 합류하고 서쪽에는 동막천·운중천·삼적천 등이 동진하여 탄천에 합류한다. 이들 하천은 탄천에 합류하면서 주변을 침식하여 계곡평야를 형성하고 이들 하천과 저수지는 논과 밭의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기온은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연

42) 동·서 산의 표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평균기온은 $11.2^{\circ}\text{C}\sim 11.8^{\circ}\text{C}$, 1월 평균기온은 $-5.4^{\circ}\text{C}\sim -1.6^{\circ}\text{C}$, 7~8월 평균기온은 $24.5^{\circ}\text{C}\sim 25.7^{\circ}\text{C}$ 이며, 연강수량은 1,200mm 내외이다.

성남시의 위도 및 경도상의 위치는 동단이 동경 $127^{\circ} 11'$, 서단은 동경 $127^{\circ} 1'$, 남단은 북위 $37^{\circ} 19'$, 북단은 $37^{\circ} 23'$ 이다. 수리적 위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남시는 내륙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가 심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성남의 지형은 탄천이 도시의 중앙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탄천 유로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탄천의 지류 하천이 발원하며 성남시 전체의 경계를 이루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요(凹)형의 분지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성남시의 산지는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태백산맥의 철령 부근에서 갈라져 서남방향으로 뻗어오면서 서울 부근에까지 이르는 광주산맥의 지맥에 해당한다. 광주산맥은 경기도의 북동부와 동부에서 경기도의 최고봉인 화악산(華岳山)⁴²⁾을 분수령으로 고도가 점차 낮아져 서울 부근에서는 높이 600~900m 정도의 산봉우리로 구성된 산맥으로 이어지다 한강을 넘어서 낮은 구릉성 산지로 변화하는데, 성남시 동쪽의 검단산(黔丹山)과 문형산(文衡山), 불곡산(佛谷山)에 이르러 급경사면을 형성하여 한강과 탄천변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광주산맥의 낙맥에 해당하는 청계산(淸溪山), 백운산(白雲山), 인릉산(仁陵山)을 잇는 남북 방향의 산지와 함께 성남시를 둘러싸고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도시의 내부에는 높이 100m 전후의 구릉성 산지가 동서로 뻗거나 평야지에 돌출되어 있다.

성남시 서쪽의 산지는 청계산(淸溪山)을 중심으로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양재천 유역의 과천시와 안양천 유역의 의왕시가 이 서쪽 산지 너머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다른 행정 구역과 생활권역을

42) 동·서 산의 표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43) 표고는 1468m이다.

형성하고 있다. 성남시 동쪽의 산지는 해발고도 535m의 검단산(黔丹山)을 정점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서쪽에 위치하는 산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고도가 낮고 성남시 내부쪽으로 완만한 사면이 발달해 있다. 동쪽 산지의 너머는 경안천 유역으로 광주시가 위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높이 100m 이상의 산지로 구성되었고, 여기서 연장된 사면이 발달해 있다. 실제 성남시 전체 면적 141.82km² 중 49.5%에 해당하는 71.201km²가 높이 100m 이하의 구릉과 하천 평야 지대가 분포하고, 27.2%에 해당하는 38.582km²가 높이 200m 이하의 구릉지, 그리고 22.3%에 해당하는 31.540km²가 높이 200m 이상의 지역이다. 농경지나 취락의 입지로 적합한 평야 지대는 성남시 지역에서는 탄천 본류의 유로변에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탄천 본류가 흐르는 지점들의 해발고도는 20m 내외이며 하천 연안의 복정동, 시흥동, 여수동, 판교동, 금곡동, 운중동 일대가 성남시의 주요 농업 지대를 형성해 왔다.

성남시의 하천은 지방 하천인 탄천과 중천(中川)으로 준용 하천에 해당하며 탄천으로 유입되는 하폭 20m 이상인 13개의 지류 하천과, 하폭 20m 미만인 21개의 소천(小川), 하폭 10m 미만인 22개의 세천(細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천은 성남시 동서산록에서 흘러내린 세천과 중천을 합류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여 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이며, '숫내'라고도 부른다.

성남지역의 지질은 크게 선캠브리아기(precambrian period)의 경기변성암 복합체로 이루어진 변성암류와 신생대 제4기(Quaternary)에 형성된 충적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성남시 대부분의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경기변성암 복합체의 일부로서 주로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지역의 편마암류는 주로 흑운모호상편마암(黑雲母弧狀片麻巖, biotite banded gneiss)으로 되어 있고, 이 암체에 부분적으로 세립질 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花崗巖質片麻巖, granite gneiss), 우백질 편

마암(優白質片麻巖, leucocratic gneiss)이 협재하고 있다. 흑운모호상편마암은 형성 시기가 시생대(始生代)에 해당하고, 이 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화강암질 편마암은 이후 생성된 것이다.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沖積層, alluvium)은 성남시 지역의 대표적인 하계망을 구성하는 탄천과 지류하천의 주변에 퇴적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충적층은 대체로 수평에 가깝거나 기반암이 이루는 경사보다 완경사를 이루며 제4기 이전에 형성된 암석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제4기 충적층은 점토, 미사, 사질 등의 다양한 입도구성을 나타내며 다량의 쇄설물과 유기물 등이 미고결 상태로 놓여 있다.

성남 지역의 지질구조를 보면, 상대원동의 사기막골 동부에서 갈현동의 갈마치고개에 이르는 산지 일대는 반상변정질 편마암으로 되어 있고, 신촌동의 인릉산에서 상적동의 대왕저수지에 이르는 능선은 안상편마암으로 되어 있으며 궁내동의 남쪽 첫골에서 동원동의 낙생저수지 북쪽 산기슭에 이르는 능선은 우백질 편마암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탄천과 그 지천을 따라 발달된 충적암은 위의 모든 암층들을 복합적으로 덮고 있다. 기후조건으로 성남 지역은 한반도의 중부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심하고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뚜렷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현상을 보여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건조하다.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뻗은 두 산지 사이에 위치한 분지인 관계로 기온의 극차가 심하다.

다음으로 토양과 관련하여 하천 주변을 보면, 탄천 유역과 지류하천 주변의 경우 하천의 범람으로 퇴적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대부분 충적토(沖積土, A: alluvial soil)로서 배수가 잘 되어 비교적 비옥한 사양질(sandy loam) 내지 식양질(埴壤質, clayey loam)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 충적토로 이루어진 토양의 분포는 현재 분당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으로 탄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90% 정도가 편입되고, 여수동 일부와 복정

동, 신촌동, 사송동, 시흥동 일대에 흩어져 남아있는데 시설 재배지, 재래식 농지, 원예 작물 재배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륙의 평탄지토양은 수정구 신촌동, 시흥동 일대와 분당구 율동 등은 내륙의 평탄지를 이루고 있으며 회색토 또는 충적토로 배수가 약간 나쁜 미사질이 포함된 식양질과 사질양토가 분포한다. 이 지역은 대부분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대장동, 금토동 등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회색토와 충적토가 분포하며 배수는 양호한 편이나 자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약간은 척박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수정구 시흥동과 고등동 등 청계산 기슭으로는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토양은 식토(埴土) 내지는 식양토로서 평범한 편이다. 성남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임야의 경우 대부분이 암쇄토(岩碎土)와 화강암계의 산성암으로 형성되어 배수가 매우 양호한 사질 토양을 이루고 있으며, 암석이 그대로 노출된 지역은 청계산의 매지봉 주변에 띄엄띄엄 목격될 뿐이다.

2.2 風水地理學的 現況分析

성남시의 지형에 대해서는 자연지리학적 측면과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순수 지리학적 측면의 관점에서 성남지역이 속한 산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앞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태백산맥의 철령 부근에서 갈라져 서남방향으로 뻗어오면서 서울 부근에까지 이르는 광주산맥의 지맥세 하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광주산맥은 경기도의 북동부와 동부에서 경기도의 최고봉인 화악산(華岳山)⁴⁴⁾을 분수령으로 고도가 점차 낮아져 서울 부근에서는 높이 600~900m 정도의 산봉우리로 구성된 산맥으로 이어지다 다음 <그림7>의

44) 표고는 1,96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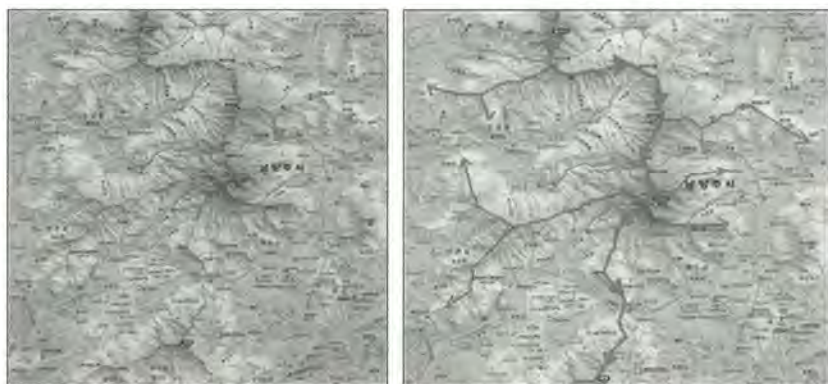
우도(右圖)에서와 같이 한강을 넘어서 낮은 구릉성 산지로 변화하는데, 200~500m의 구릉성 산지가 서쪽과 동쪽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남북의 장축으로 지나는데, 한줄기는 성남시 동쪽의 검단산(黔丹山)⁴⁵⁾과 문형산(文衡山)⁴⁶⁾, 불곡산(佛谷山)⁴⁷⁾에 이르러 급경사면을 형성하여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한강과 탄천변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지맥줄기는 광주산맥에서 낙맥하여 서쪽은 청계산(淸溪山), 백운산(白雲山), 인릉산(仁陵山)을 잇는 남북 방향의 산맥의 사이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성남지역은 서울시, 과천시, 의왕시 등과 각각 접하고 도시의 내부에는 높이 100m 전후의 구릉성 산지가 동서로 뻗거나 평야지에 돌출되어 있다. 시의 중앙부에 탄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중앙에는 낮은 평야가 남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지형적 이유로 동쪽에는 대원천·야탑천·분당천이 서진하여 탄천에 합류하고 서쪽에는 동막천·운중천·삼적천 등이 동진하여 탄천에 합류한다. 성남의 하천지형은 탄천이 도시의 중앙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탄천 유로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탄천의 지류 하천이 발원하며 성남시 전체의 경계를 이루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요(凹)형의 분지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탄천의 수원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발원 하여 수지지구 풍덕천을 경유, 시의 중앙부를 관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변은 하천 평야지로 형

45) 표고는 535m이다.

46) 문형산(文衡山)은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광주시 사이에 있는 높이 496.7m의 산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광주시 오폭읍의 경계로 산세를 이루고 있다. 해발고도 496.7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산줄기의 서쪽으로 새나리고개가 위치하며 이 고개의 북쪽으로는 고든 골고개, 갈마치 고개를 지나 같은 광주산맥에 속하는 검단산과 남한산맥으로 분류되는 남한산과 청량산의 남한산성 성역(城域)으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일명 '맹산'이라 부르면서 큰 매지봉, 작은 매지봉으로 나뉘어 부르는 영장산(靈長山)으로 이어져서 새마을고개와 태현을 지나 불곡산으로 넘어간다. 문형산의 동쪽으로는 두리봉(해발고도 277.3m)이 위치하고 있으며 봉정상에서 바라보면 팔당호로 연계되는 경안천 유역이 분지 같은 산세를 이루고 있다. 문형산은 광주시 오폭읍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산이다.

47) 표고는 31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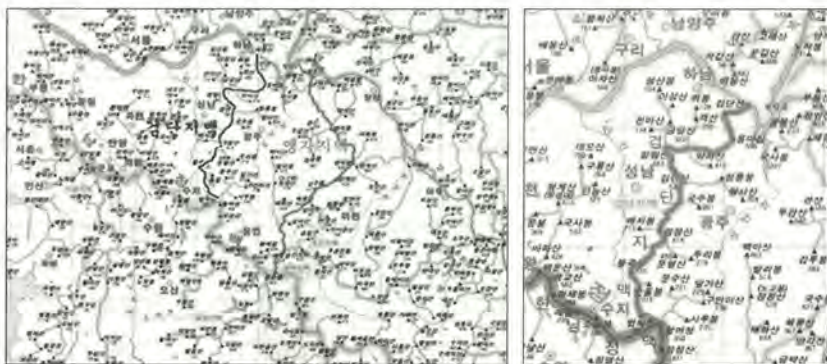
(그림2) 광주지맥도의 진행방향

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 현대 자연지리학적 관점이었다.(그림5) 그러나 전통 풍수지리학적으로 성남시의 지형은 현대 자연지리학적 관점과는 상반된 논리로 산맥세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성남지역은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남정맥의 검단지맥을 타고 형성된 도시로 본다. 성남시의 지세는 탄천이 중앙부를 북류하고, 그 좌우에 지류가 발원하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남쪽으로 볼록한 모양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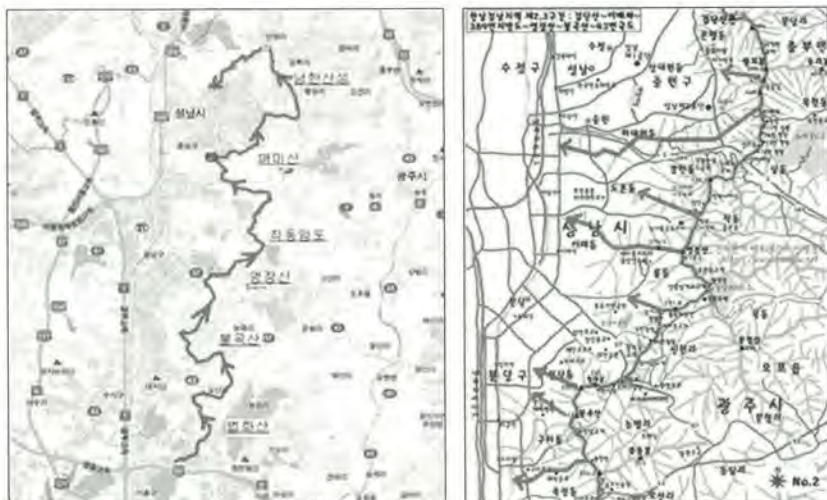
풍수의 산용세적으로 성남시의 동쪽은 우백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광주시와 경계가 되는데,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검단산, 이배재·갈마치·태재 고개, 불곡산 등의 검단지맥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좌청룡에 해당하는 서쪽은 경기도 과천시·의왕시와 경계가 되는데, 청계산의 여러 봉우리와 학현(학고개)·바라산 등 역시 북진하는 한남정맥상에서 나누어진다. 백호쪽의 동쪽 산지는 전반적으로 청룡쪽의 서쪽 산지에 비해 평균 고도가 낮고 완만한 사면이 발달해 있다.(그림4, 5참조) 성남시의 풍수적 수계망은 동·서 양쪽의 산록 중앙부를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탄천이 간수(幹水: 主水脈)로써 관통하

고 있다.(그림5의 右圖에서 청색사각) 이 하천이 성남시로 흘러 들어왔다가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형세를 띠고 있으며, 그 좌우에 비교적 넉넉한 평야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탄천 주변에는 높이 100m 내외의 야산들이 솟아 있으며,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형(南高北低形)을 이루고 있고 탄천의 흐름은 남출북류형(南出北流形)을 이루고 있다. 북쪽은 인릉산과 청량산 줄기 등에 의해 서울특별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경기도 하남시와 접하게 되며, 남쪽은 바라산과 불곡산 줄기 등에 의해 용인시 수지출장소와 광주시 오폭읍에 접하고 있다. 결국 성남시는 둔전의 지형도(그림6)에서 보듯이 탄천의 유입부와 유출부 일대를 제외하고, 좌청룡과 우백호의 수사맥(手砂脈)을 제외한 일편상의 크고 작은 평포지를 중심으로 한 분지 형태내에서 양기지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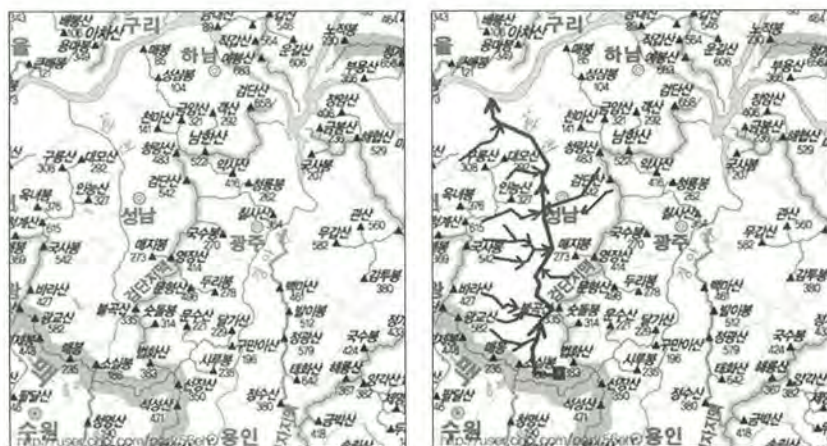
이러한 지형조건은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 당시 시가지 입지의 채택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는 탄천과 동쪽 산지 사이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근래에 판교신도시 개발, 미금역 역세권, 그리고 그 일대의 개발로 인해 탄천의 서부지역은 현재 매우 왕성하게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성남시의 주요 하천으로는 한강으



〈그림3〉 한남정맥(左)에서 분지된 검단지맥(左·청색, 右·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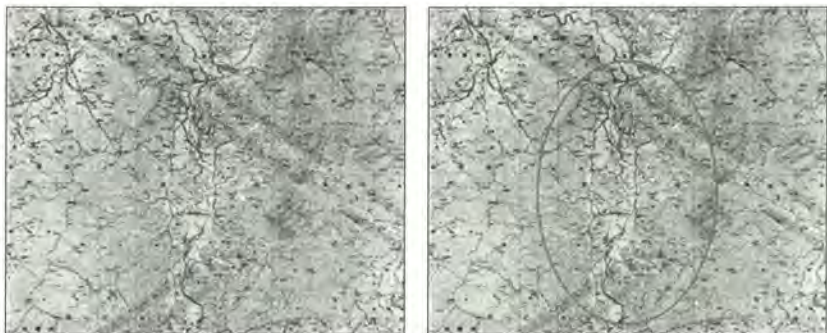


〈그림4〉 성남지역 우백호(검단지맥: 左)와 백호의 수시맥(手砂脈: 右)



〈그림5〉 성남의 주수脈인 탄천과 龍虎上의 수맥(枝水脈)의 수맥흐름도

로 유입되는 탄천을 간천(幹川: 主水脈)으로 하여 22개의 세천(細川)과 17개의 소천(小川)이 동막천·분당천·운중천·금토천·야탑천·여수천·대원천·단대천·상적천 등의 중천과 합수하여 2차 수계를 형성하



〈그림6〉 성남의 둔전과 둔전상의 위치(右圖 적색원)

여 흐르거나 또는 독립된 1차 하천으로 탄천에 유입된다. 그러나 분당 신시가지 건설사업으로 분당지역의 세천은 물론이거니와 소·중천의 형세가 많이 변하였다.

2.3 城南市에 對한 風水論의 提言

성남시 지역을 풍수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산세와 수세에 의한 풍수적 형세론적 측면과 지리적 입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경제지리학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 즉 용세론적 측면에서 성남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지맥은 광주산맥이 아니라 한남정맥에서 분지된 검단지맥하에서 주어진 요곡상의 평포지라고 할 수 있다. 성남지역이 검단지맥상에 입지해 있다는 풍수적 근거는 몇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산맥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의 〈그림1〉의 좌도(左圖)에서 보듯이 한국의 산맥은 대부분 남남내지 남서방향(중국방향)으로 진행되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산맥은 〈그림1〉의 우도(右圖)나 〈그림2〉에서 보듯이 남서방향으로 행진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다음 〈그림7〉의 우도를 보

면 청색의 광주지맥은 한강을 만난다. 용의 진행은 <그림1>의 좌도(左圖)인 한국의 산맥진행도와 마찬가지로 간룡을 중심으로 지룡은 좌우로 펼쳐지며 본신용을 따라 진행하며 호위하는 형세를 취하는 것이 산맥의 일반적인 진행형태이다.

따라서 광주산맥은 남서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강너머 적색으로 표시된 검단지맥을 보면 좌우의 호위지룡이 광주산맥방향인 북동방향으로 역세(逆勢)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룡(主龍: 幹龍)의 진행방향을 좌우호위용이 어떤 형태로 감싸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산맥의 근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맥의 근원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남지역은 광주산맥상의 요곡평포지가 아니라 검단지맥상의 요곡평포지를 호위산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풍수결록에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거나 용이 다한(盡) 곳에 혈(穴)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다음 <그림7>의 우도에서 보듯이 광주지맥과 검단지맥이 다한 곳에 한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풍수이론을 충실히 입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성남지역이 요곡평포지로 검단지맥상에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논리가 풍수론의 산수일체계(山水一體系)이다. 이는 용(陰)이 있는 곳에 물(陽)이 있고 산의 근원과 함께 물의 발원이 시작된다는 논리이다.

앞의 <그림1>의 좌도에서 보듯이 한국의 산맥사이로 물의 발원(사각 청색 표시)이 있고 용의 진행과 함께 물 또한 일체를 이루며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의 우도상(右圖上)에서 성남의 주수맥(主水脈)인 탄천의 발원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법화산 근처(사각표시 점)에서 발원하여 수지 지구 풍덕천을 경유, 성남시의 중앙부를 북남으로 관류하여 한강으로 유

입되는 수세(水勢)를 지닌다.

이는 용의 근원이 한남정맥에서 분지된 검단지맥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을 호위하는 주용세와 좌우의 호위산세는 광주산맥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수세는 우측 백호에 해당하는 검단지맥상의 법화산(383), 불곡산(312), 영장산(414), 검단산(535), 청량산(479)과 좌측 청룡에 해당하는 매봉(235), 광고산(582), 바라산(427), 국사봉(540), 청계산(615), 인능산(327), 대모산(292) 등의 주요 산을 중심으로 발원하여 중앙부의 탄천으로 유입됨을 알 수 있다.(그림5참조) 또한 성남지역의 중앙부로 좌우의 주요산봉을 중심으로 산의 능선에 해당하는 가지용인 수사맥(手砂脈)들도 함께 분지되어 진행함으로써 성남지역내의 길기(吉氣)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부(富)의 상징성인 물의 진행이 직류로 급히 유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상에서 분석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 산수(山水)의 이치에 따라 성남지역의 배후는 남을 좌(坐)로 하거나 우측의 검단지맥을 좌(坐)로 하여야 한다.

풍수론적 좌향논리에 의하면 성남지역의 도시건설과 모든 행정관청 및 주요 건물들을 남좌북향(南坐北向) 내지는 동좌서향(東坐西向)의 산



〈그림7〉 요곡상의 성남지형(左)과 광주산맥 및 검단지맥의 진행도(右)

수세로 구획·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⁴⁸⁾

그러나 향방향(向方向)으로 내수(內水)가 직거(直去)하면 부(富)의 유실(遺失)을 의미하므로 남좌북향보다는 동좌서향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풍수론의 절대원칙인 산을 등지고(背) 물이 따라준다는(臨)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절대원칙을 따른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성남지역을 호위하고 있는 주요산의 형태를 풍수오형체로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체형(水體形)의 산세와 목체(木體) 및 금체형(金體形)의 산형으로 예술과 문화(水體), 인물(木體), 부(富)의 상징성(金體)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시정을 계획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第Ⅲ章 結論

성남시 서쪽의 산지는 청계산(淸溪山)을 중심으로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양재천 유역의 과천시와 안양천 유역의 의왕시가 이 서쪽 산지 너머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다른 행정 구역과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성남시 동쪽의 산지는 해발고도 535m의 검단산(黔丹山)을 정점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탄천을 향하여 검단지맥상의 지룡(枝龍)인 수사맥(手砂脈)을 여러 갈래로 형성하며 서쪽에 위치하는 산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고도가 낮고 성남시 내부쪽으로 완만한 사면이 발달해

48) 현재 성남시청은 北坐南向으로 건립되어 있어 풍수론적으로 逆坐로 풍수론적으로 違法한 坐向으로 건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읍동의 새마을 연수원 진입로와 같이 산의 龍脈을 훼손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는 풍수론적으로凶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위법으로 山水의 이치를 거슬렀던 龍脈의 복원이 있어야 한다.

있다. 동쪽 산지의 나머지는 경안천 유역으로 광주시가 위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높이 100m 이상의 산지로 구성되었고, 여기서 연장된 사면이 발달해 있다.

실제 성남시 전체 면적 141.82km² 중 49.5%에 해당하는 71.201km²가 높이 100m 이하의 구릉과 하천 평야 지대가 분포하고, 27.2%에 해당하는 38.582km²가 높이 200m 이하의 구릉지, 그리고 22.3%에 해당하는 31.540km²가 높이 200m 이상의 지역으로 풍수론적으로 산수반반(山水半半)인 평강세(平綱勢)의 지형에 속한다. 따라서 농경지나 취락의 입지로 적합한 평야 지대는 성남시 지역에서는 탄천 본류의 유로변에 대상으로 분포하고 탄천 본류가 흐르는 지점들의 해발고도는 20m 내외로써 풍수론적으로는 용맥선상의 산의 개념에 들어간다.⁴⁹⁾

성남시의 하천은 지방 하천인 탄천과 중천(中川)으로 준용 하천에 해당하며 탄천으로 유입되는 하폭 20m 이상인 13개의 지류 하천과, 하폭 20m 미만인 21개의 소천(小川), 하폭 10m 미만인 22개의 세천(細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시 총 면적대비 대·소하천이 많다는 것은 풍수론적으로 청룡과 백호내의 수사지룡(手砂枝龍)이 많아 분수맥(分水脈)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탄천⁵⁰⁾은 성남시 동서산록에서 흘러내린 세천과 중천을 합류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여 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으로 용인 죽전지구와 성남의 구미동, 금곡동을 지나는 동안은 굴곡이 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직선에 가깝도록 북쪽으로 흐르다가 약간 서쪽으로 휘어져서 한강에 유입된다.⁵¹⁾

탄천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동막천을 합류하고, 초림동에서 분

49) 하천 연안의 복정동, 시흥동, 여수동, 판교동, 금곡동, 운중동 일대가 전통적으로 성남시의 주요 농업 지대를 형성해 왔다.

50) '숫내'라고도 부른다.

51) 총연장 32.55km, 최대 하폭515m, 유역 면적 30,307ha로 제법 규모가 큰 지방 하천이다.

당천(-shotneon)을 합류하며, 판교동에서 운중천과 금토천을 합류한다. 그리고 분당구 야탑동을 지나며 야탑천과 여수천을 합류하고, 중원구 성남 동에서는 상적천을 합류한다.

마지막으로 탄천은 수정구를 지나며 각각 대원천과 단대천, 독정천, 그리고 보통천을 합류한 후 서울시 서초구에서 양재천을 합류하여 한강에 이른다. 풍수론적으로 작은 지류는 산수일체로 흐르다 지맥(地脈)이 다한 곳에서 합수(合水)하게 되는데 합수처는 전통적으로 농업지대나 양기지로 배산임수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 왔다.

기후조건으로 성남 지역은 한반도의 중부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심하고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뚜렷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현상을 보여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건조하다. 지형적으로 좌우용호(左右龍虎)에 해당하는 남북으로 뻗은 두 산지 사이에 위치한 분지인 관계로 기온의 극차가 심하다.⁵²⁾

성남 지역은 우리나라의 3대 다우 지역 중의 하나인 한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⁵³⁾

성남 지역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여 겨울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불어 오는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많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번두리에 위치하여 고온 다습한 남풍계의 바람이 많이 분다. 편서풍대에 속하지만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대륙성 기후의 영향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계절풍이 우세하다. 계절풍의 교체기인 봄철과 가을철은 풍향에 뚜렷한 특징은 없으나 악천후가 아닌 때에는 편서풍이

52) 기온은 2010년 현재 12.8℃로 한반도의 종파 횡의 평균기온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낸다.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은 25.7℃이며,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은 -1.6℃로 낮아 성남시의 연교차는 27.3℃에 이른다. 평균 최고기온은 18.1℃이며, 평균 최저기온은 8.2℃, 최저극값은 -12.1℃이다.

53) 성남지역의 2010년 강수량은 1,318mm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다. 6~9월의 여름철 강수량은 전체 강수량의 71.2%를 차지하며, 12~3월의 강수량은 6.4%에 불과하여 여름철의 우계와 겨울철의 건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온대계절풍 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주로 분다.⁵⁴⁾

이와 같은 성남시의 기후조건은 풍수론적으로 좌우용호의 산세와 수원(水源)의 발원지인 배후산세가 멀고 비교적 낮음으로 계곡풍과 북서 건방풍의 유입으로 변화가 극심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 및 계절에 따른 바람의 영향에서 잘 알 수 있다.

토양과 관련하여 하천 주변을 보면, 탄천 유역과 지류하천 주변의 경우 하천의 범람으로 퇴적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대부분 충적토(沖積土, A: alluvial soil)로서 배수(排水)가 잘 되어 비교적 비옥한 사양질(sandy loam) 내지 식양질(埴壤質, clayey loam)로 구성되어⁵⁵⁾ 있어 양택지의 토질로 풍수론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는 좌우용호맥상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삭박(削剝)과 세탈(洗脫)의 침식결과로 흘러 쌓인 토양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륙의 평탄지토양은 수정구 신촌동, 시흥동 일대와 분당구 을동 등은 내륙의 평탄지를 이루고 있으며 회색토 또는 충적토로 배수가 약간 나쁜 미사질(微砂質)이 포함된 식양질과 사질양토가 분포하고 대부분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대장동, 금토동 등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회색토와 충적토가 분포하며 배수는 양호한 편이나 자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약간은 척박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나 도시주택지의 토질로는 풍수론적으로 양호하다. 또한 수정구 시흥동과 고등동 등 청계산 기슭으로는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토양은 식토(埴土) 내지는 식양토로서 평범한 편에 해당한다.

54) 태풍이 불 때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며 특히 늦겨울에서 초봄으로 이어지는 2~4월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55) 하천 충적토로 이루어진 토양의 분포는 현재 분당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으로 탄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90% 정도가 편입되고, 여수동 일부와 복정동, 신촌동, 시흥동, 시흥동 일대에 흩어져 남아있는데 시설 재배지, 재래식 농지, 원예 작물 재배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남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임야의 경우 대부분이 암쇄토(岩碎土)와 화강암계의 산성암으로 형성되어 배수가 매우 양호한 사질 토양을 이루고 있으며, 암석이 그대로 노출된 지역은 청계산의 매지봉 주변에서 일부 목격될 뿐으로 흉암석(凶巖石)에 의한 풍수형기(風水形氣)적 흉기(凶氣)의 흉살(凶殺)에도 안전한 편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산세와 수세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분지형 지대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산세와 수세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분지형 지대에 속한다. 또한 성남지역은 국토의 혈맥(血脈)이랄 수 있는 교통입지에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유리한 입지에 있다. 그러므로 도로를 물로 보는 풍수의 수리적 이치를 활용하여 동서남북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물을 산으로 보고 물을 부(富)와 재물의 상징으로 보는 풍수적 원리를 활용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정보산업과 유통망을 활용한 물화(物貨)의 중심지로 경제성 있는 성남의 미래가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산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풍수적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과 예술과 문화산업이라는 특화된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성남의 미래가치를 더욱 부가(附加)할 때 한국에서 가장 경제자립도가 높고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 김가임, 상가부동산의 풍수입지에 관한연구,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현호, 風水害 多發地域에 對한 風水地理論의 研究, 서경대학교 석사논문

문, 2012

김석주, 양택과 풍수, 우석, 2003

박봉주, 실전풍수입문, 동학사, 2000

박시익, 풍수지리와 건축, 서울:경향신문사, 1997

박호성, 자연의 인간, 인간의 자연, 후마니타스, 2012

백의준, 한국전통취락입지의 지리학적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29집,
2001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유적, 2008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연구 제19호, 2012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연구 제20호, 2013

신평 역주, 설심부, 관음출판사, 2001

오상익, 장경, 동학사, 2002

오준석 외 9인, 부동산 시장분석론, 학연문화사, 2010

윤갑원, 도선통맥풍수, 미래, 2010

이광규, 도선통맥지리, 지선당. p.304 외 서경대 석사논문, 전원주택의
풍수입지에 관한연구, 2012.

이상문, 생태도시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진화, 토지와 기술 제
19권 제3호, 한국토지공사, 2006

이중환, 택리지, 신명출판사

이창석, 부동산학 개론, 형설출판사, 2011

이승노, 풍수론적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
논문, 2014

장정환, 자연지형의 변화현상과 원리 그리고 풍수지리의 만남, 한국풍수
지리감정원, 2013

장정환, 청오경, 미래, 2009

장정환,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고시학회특강자료, 2010, 2.

정경연, 양택풍수, 평단출판사, 2008
 정인석, 인간중심 자연관의 극복, 나노미디어, 2006
 주남철, 한국의 건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천인호, 부동산풍수론, 효민디엔피, 2007
 촌산지순 저, 정현우 역, 「한국의 풍수」, 서울: 명문당, 1996
 최창조, 한국의풍수사상, 민음사, 1984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1, 민음사, 1997
 Basic 지리 용어사전, (주)신원문화사, 2002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성남학’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차례 ◆

1. ‘성남학’의 의미
2.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기본 현황
3. 성남학연구소 연혁
4. 성남학연구소 사업 성과
5. 성남학의 발전 과제

1. ‘성남학’의 의미

가. 성남학이란?

지방자치제가 1995년 6월 27일 시행되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축제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광자원화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

하여 이제는 해당 지역에 관한 학문적 성찰로 이어져 대학에 지역학 학과목이나 학과의 개설까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한국학, 서울학, 인천학, 충남학, 천안학 등의 지역관련 학문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중이고, 경기 지역에서도 용인학, 성남학, 평택학, 안산학 등 지역 명칭을 사용한 학문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성남학’은 바로 우리 고장 성남에 대한 총체적 학문을 일컫는다. 우리 고장 성남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등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관심분야를 감싸 안는 주제이다. 과거에 향토사라고 불리던 명칭으로도 민속, 지명유래, 전설, 설화, 인물, 역사 등을 다룰 수는 있으나 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의미에서 ‘성남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 성남의 역사적 배경

성남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한 돌마(突馬), 낙생(樂生), 대왕(大旺), 세촌(細村) 등이 1973년 7월 1일자로 성남시로 승격되어 2014년 현재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와 48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성남’은 남한산성 남문 아래에 있어 붙여진 것으로 ‘성내미’ 혹은 ‘성나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1946년 광주군 중부면에 성남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성남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행정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¹⁾

1961년에는 예비역 육군 대령 김창숙에 의하여 ‘모란개척단’이 만들어져 현재 모란시장 주변의 황무지 개간 및 단대천 제방 쌓기 자활사업이 시작되었고, 1969년 8월 1일에는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가 설치되었으며, 1970년 1월 24일 광주대단지사업소가 설치되어 서울시의 무허가주택 강제철거를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1) 윤종준, 한춘섭, 『내고장 성남』 6차 개정판, 성남문화원, 2013. 3. 29

1969년 5월부터 71년 8월까지 서울에 살던 철거민 126,215명이 경기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시 일대)로 강제 이주됐다. 인구는 14만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1971년 6월 조사 당시 취업대상자의 5%만이 단지 내에서 직업을 가질 정도로 지역경제기반조차 없었다. 하지만 살 곳을 찾던 각 지역 빈민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1971년 8월경의 거주인구는 15~17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 회수를 위해 서울시는 용지 처분을 서둘렀고, 1971년 총선이 끝나자 서울시는 분양중 전매 금지와 함께 높은 가격의 토지대금 일시상환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은 1971년 8월 10일 최소 3만 ~ 최대 6만에 이르는 대규모 쫓겨나기를 열고, ①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 것, ② 살인적인 불하 가격 결사반대, ③ 공약 사업 약속 말고 사업하고 공약할 것, ④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 것, ⑤ 이간 정책 쓰지 말 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방문하기로 약속한 서울시장이 오지 않자 흥분한 주민들은 성남사업소, 출장소, 파출소 등 평소에 반감을 지닌 관공서를 파괴·방화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기동경비대와 투석전을 벌이며 대치했고, 차량을 이용한 서울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택식 서울시장은 당일 투쟁위원회 간부와의 협상에서 구호양곡 확보, 생활보호자금 지급, 도로 확장, 공장 건설, 세금 면제 등을 시급히 합의하였고, 오후 늦게 이 소식을 들은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광주대단지사건 과정에서 검거된 총 22명의 주민은 징역 2년 이하를 선고받았다.²⁾

광주대단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사업이었으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대규모 도시 빈곤층의 생존위협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

2)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종준, 한춘섭, 『내고장 성남』 6차 개정판, 성남문화원, 2013. 3. 29

준 빈민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그 당시 내무부 지역개발담당관이었으며, 광주대단지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우리나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선(先)개발, 후(後)입주 원칙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죠.”³⁾

지금 성남시는 옛 광주대단지와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으로 분당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현재 분당·판교·위례신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인구는 98만 명으로 전국 10위권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다. 성남학 관련 선행연구

성남학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에 문수진 교수의 연구가 있었다. 『성남문화연구』 제18호에 수록한 「성남학 연구의 현주소」에서 성남시의 성립배경과 역사적 성격을 내용으로 하는 전반적인 역사 개관과 성남문화원의 설립,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향토문화연구소의 활동은 다시 (1) 성남문화연구 편찬, (2) 학술회의 및 학술토론회 (3) 출판 및 문화유적 발굴 성과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성남학은 성남의 역사성을 밝히고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성남학의 성립요건이라고 하였다. 문화원 설립의 연륜이 일천한데 어느 곳 보다도 열성적인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이 성남학연구의 과제로서 성남시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 중앙일보 2013년 4월 2일, 「고건의 공인 50년(35) 71년 광주대단지 사건 ②」

2.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기본 현황

가. 목적

연구소는 성남문화원의 정관 제4조(사업), 제48조(규칙 제정)의 규칙에 의하여 추진하는 향토문화의 발굴·조사·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족문화창달과 성남문화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

1. 지역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2. 향토사에 관하여 성남문화원이 위탁하는 사업
3. 기타 목적 관련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개소일: 1993년 9월 20일

라. 위 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26번지, 성남문화원 2층

마. 조 직: 원장(문화원 대표)

사무국장(문화원 행정사무 총괄)

총무팀장(문화원 행정실무 담당)

소장(1인, 연구소 업무 총괄)

상임연구위원(1인, 연구소 학술분야 총괄)

연구위원(10인 내외)

바. 연구위원

- 원장: 김대진(문화원 대표, 전 성남시의회 의장)
- 소장: 한동익(소장, 향토사, 성남시 세거문중협의회장)
- 상임위원: 윤종준(성남서현문화의집 관장, 한국사)
- 연구위원: 전봉구(동서울대 건축과 교수, 건축학)
- 조남두(신구대 교수,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교육행정학)
- 최만순(부원장, 도시공학)

- 서평일(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사)
- 김주홍(LH공사 차장, 역사고고학)
- 김용호(서울시사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한국사)
- 정태열(한국 풍수지리감정원 부원장, 민속학)
- 홍대한(숙명여자대학교 건축환경디자인연구원, 한국미술사)

사. 주요사업

- 학술회의 : 연 1회 정기 개최(현재까지 19회 개최)
- 학술토론회 : 비정기적 개최(현재까지 국내외에서 11회 개최)
- 연구위원 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 『성남문화연구』 : 연1회 발간
- 각 문중별 인물사, 장묘문화 관련 자문
- 성남시청의 향토사 관련 자문

3. 성남학연구소 연혁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는 1992년 10월 10일 당시 풍생고등학교 국어교사이던 한춘섭 전 원장이 <향토문화연구소 설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되어 이듬해인 1993년 3월 10일 향토문화연구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남문화원 정관 제4조(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향토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남문화원 부설 기구로 설립하였으며, 그 해 9월 20일 성남문화원 이사회에서 인준되었다. 현재의 '성남학연구소' 명칭은 2013년 12월에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1993. 9. 20 성남문화원 이사회에서 부설기구로 인준

1993. 11. 16 영창대군 묘지석 반출 반대 결의문 채택
1994. 5. 20 『성남문화연구』 창간호 발행,
- 1995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국립공원 지정추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학술세미나 개최,
 의병기념탑, 만세운동기념탑 건립 등을 추진
1996. 10. 10~11(2일간) 제1회 국제학술회의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
 명> 개최
1997. 3. 20 천림산봉수터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현재 복원 추
 진 중
1998. 11. 향토사료관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착수
2001. 2. 20 성남향토문화총서 1권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발
 행. 마을지 편찬사업으로 이어져 연차적으로 9권까지 발행
 하게 됨.
2003. 12. <성남금석문대관>(상, 하) 발행
2005. 6. 20 <관교 신도시 지명 제정> 용역 사업 수행
2005. 7. 1 성남시향토유적 제1호인 강정일당이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
2006. 4. 25 광주문화권협의회 창립(광주, 성남, 하남 3개문화원 참여)
2008. 7. 5 <성남문화원30년사> 발간 및 기념식
11. 4 동천 남상목 의병장, 이달의 독립 운동가 지정
2010. 4. 25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2009년도 기호일보에 38
 주간 연재
7. 5 <성남인물지>(광복이전 편) 발행
2011. 7. 4 제9회, 학술토론회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
 상>
2012. 7. 4 제17회 학술회의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 9. 20 성남문화해설사(5기) 양성 교육, 찾아가는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 2013. 7. 4 제18회 학술회의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제6기 성남문화해설사양성교육
- 11. 『남한산성일대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국가보훈처 수원지청 지원)
- 2013. 12. 연구소 명칭을 '성남학연구소' 로 변경
- 2014년 1월부터 현재 성남학아카데미 특설강좌 운영 중
 - 3월 10일 제12대 김대진 원장 취임
 - 9월 19일 제19회 학술회의 개최
 - 9월 20일 <성남문화연구> 제21호 발간

그 외 향토문화유적 지정 청원(성남시향토유적 제1호~제10호까지의 학술적 연구와 지정을 청원,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선생 묘역 지정 청원)

4. 성남학연구소 사업성과

초대소장은 이창열 원장이 겸직하였고, 1994년 5월 20일, 『성남문화연구』 창간호를 발행하여 2014년 9월 현재 21호까지 발행되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남의 향토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다.

1~2대 소장을 원장이 겸직하다가 1995년부터는 전문 교수진이 소장을 맡게 되어 신구대학의 전보삼 교수가 제3대 소장으로 위촉되었고 그 후 2년의 임기로 새로운 연구소장이 활동하였다.

이때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을 '국립공원지정' 을 추진하여 성곽 안

쪽 행정구역이 광주에 속해 있지만 광주보다 앞서서 남한산성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남문화원이었다. 그리하여 1996년 10월 10일~11일(2일간)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이듬해 역시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개최되면서 해마다 향토사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금년에 제19회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학술세미나 개최, 의병기념탑,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등을 추진하는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남문화원과 광복회 성남지회가 광복절 경축식을 단독으로 거행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성남시청에서 시장이 주관하는 기념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3.1만세운동기념식 개최, 만세운동기념탑 건립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 항일의병기념탑 건립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 천림산 봉수터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남시 향토유적 1~14호 중 1호부터 10호까지의 지정에 있어 학술적 근거를 성남학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성남학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성과는 그대로 시민교육에 활용되었다. 현재 성남문화원과 서현문화의집에서 4년째 성남학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연간 48주 동안 다양한 주제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학술회의 발표

성남학연구소의 연간 주요 사업가운데 학술회의는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주제로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한다.

1996년 10월에 개최된 제1회 국제학술회의는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한·중·일 학자들이 이틀간에 걸쳐 열띤 학술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한산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였던

시기였다. 성남문화원^o을 중심으로 경기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친 것이 오늘날 세계유산 지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0월에도 이들간에 걸쳐 <남한산성과 삼학사>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남한산성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총 19회에 걸쳐 개최된 학술회의 주제 가운데 4회가 남한산성과 관련이 있으며 3회부터 6회까지는 성남지역의 역사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경기도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된 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경기도기념물 제84호 白軒 李景奭과 성남시향토유적 제6호 금릉 南公轍,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4호 문정공 한계희 신도비, 아천부원군 이충(경기도기념물 제116호 수내동 한산이씨묘역), 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 성남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성남 지역의 독립운동을 밝히려는 학술회의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2003. 9. 27),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2010. 8. 15)가 이루어져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대 규모였음이 밝혀졌다.

성남시의 현대사에서 암울하던 시기에 대한 재조명 또한 이루어졌다.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2004. 12. 15)은 성남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부측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음을 밝혀낸 성과였다. 또한 <성남 모란의 과거와 현재>(2009. 5. 29)역시 모란시장과 그 주변이 번성하게 된 배경이 1960년대 초에 전개된 '모란개척단'의 자발적인 잘 살아 보기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제11회 학술회의는 판교에 위치한 중종반정공신인 연성군 이곤 묘표

에 새겨진 <삼죽오>를 주제로 하여 남한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삼죽오 문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밖에 <판교의 문화와 전통>(2007. 10. 11), <판교·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2008. 10. 17) 등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으로 판교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요 공공시설물과 도로명을 제정할 때 성남학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학술토론회 및 세미나

학술토론회와 세미나 역시 학술회의와 큰 차이는 없으나 학술토론회는 주로 향토 역사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많았다. 특히 학술회의는 시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수행되었는데 비해 학술토론회는 역사인물 관련 문중이나 외부 기관의 후원으로 개최된 경우이다.

개최 순서와 상관없이 유사한 주제별로 보면 송산 조건 인물연구(성남시향토유적 제3호), 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향토유적 제6호), 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향토유적 제7호), 전주이씨 신종균 이효백 연구(향토유적 제8호), 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국가보훈처 선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향토유적 제9호) 조선 초기 평양서운 김순성 묘역의 가치, 덕수 이씨 의정공파 세거연구(향토유적 제10호) 등 성남시 향토유적 1~14호 중에 10건이 성남학연구소의 학술토론회를 통해 고증이 이루어졌다.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성남지역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한성 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등의 학술토론회는 국가보훈처나 경기문화재단 등의 외부기관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한 것이다.

경기도기념물 제179호인 천립산 봉수터는 전국 700여 곳의 봉수터 가운데 가장 원형이 잘 남아 있는 봉수터이다. 천립산 봉수터의 위치 고증

과 복원 사업 역시 성남학연구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1999),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시민종합 토론회(2006),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워크숍(2006), 〈한국의 봉수40선〉, 〈복수복원종합보고서1,2〉 등은 전국의 봉수 200여 곳을 현장 답사하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다. 한중문화교류

성남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심양시와의 문화교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성남의 역사인물인 둔촌 이집 선생의 효행과 지조를 기리는 백일장을 조선족 동포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편,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조선족문학회 회원들과 우의를 다지고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연례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행사는 현재 중국 정부 측의 동북공정 등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조선족 사회에 대한 한글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라. 성남문화연구

『성남문화연구』는 1호부터 금년도 21호까지 총 1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성남 지역에 관한 역사, 문화, 예술, 지명, 문화유산 등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단, 분류에 있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김창환	‘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Ⅰ)’	사회 경제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사회 경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사회 경제 복지
허창무	‘성남과 심양간 자매도시 결연의 역사적 의의와 21세기를 향한 협력강화 방안’	정치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문화
지교현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	복지
전보삼	‘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사회
이수철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	사회 경제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사회 경제 문화
이상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경제 문화
손환일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사회 문화
곽정근	성남시 주민 중심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사회 도시문제
최만순	성남시 도시 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 정책 방향 연구	사회 문화
전봉구	성남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사회 문화
김창환	‘성남시 모란 지역의 상가 기능에 관한 연구’	경제 문화
소진광	‘성남의 산업구조’	경제

문화와 예술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성남 漢詩 동인 [시집] 자료 고찰’	문학
한춘섭	‘학고(鶴阜) 권오선 文士의 한시 연구’	문학
	박태현 작곡가의 예술활동 연구	문학 음악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현영조	환경과 문화관점에서 본 도시공간 연구	문화시설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문학
	성남의 문인과 작품세계	문학
권 일	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축제
홍성일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음악, 교육
이수철	지방화 시대에 문화적 요구의 대응을 위한 성남문화원의 역할	문화단체
허창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문화시설
어순영	전재열(全在烈), '한국 민속 공연장 시설기준을 위한 기초적 연구'	문화시설
신익철	'판교와 한시'	문학
채수명	탄천문화 창출방법론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지역문화
	모란시장문화 창출방법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지역문화

지리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김창환	'성남시의 지형환경 연구'	자연지리
박상규	'성남지역의 지명성격 고찰, 백제어와 고구려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인문지리
	'城南市 地名研究, 壽井區 高登洞 '도랑터' 를 中心으로	인문지리
	'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인문지리
김기빈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인문지리
	'성남시 관내 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	인문지리
	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2)	인문지리
	성남지역의 「地名偶合」 또는 「예언성」 지명의 사례 연구	인문지리
한동익	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인문지리
	성남지역의 지명유래에 나타난 역사	인문지리

전통민속, 역사인물(집성촌), 설화와 전설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장철수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민속 신앙
장삼현	'성남의 세거성씨와 인물고', 분묘를 중심으로	집성촌 인물
	'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인물
전보삼	벽암 각성선사의 생애와 사상'	집성촌
최종민	'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민속
	널다리 쌍용줄다리기의 내용과 의미	민속 놀이
	지역사회 喪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민속
김덕목	성남의 무속신앙	민속 신앙
문수진	'성남시의 집성촌 연구'	집성촌
	조선 초기 성남의 인물 검토	인물
	조선의 건국과 광산김씨의 성남세거	집성촌
	덕수 이씨 문중의 가계와 세거연구	집성촌
서종원	관교 쌍용거(巨) 줄다리기 재고찰	민속 놀이
허홍식	낙생지역 연안이씨의 세거와 중요 자료	집성촌
한춘섭	'둔촌 이집의 연구'	인물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인물
	龜川君 생애에서 얻어진 시문 연구	인물 문학
	성남의 충효 인물 조사	인물
	'한국여인의 표상(여류문사 강정일당 작품세계)'	인물 문학
	'삼봉 이극중의 인물 알기'	인물
	'송산 조건 인물 연구(송산 조건 인물 연구)'	인물
	'廣李' 문중 무인 열전'	인물
김미란	'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	인물 문학
민병하	'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	문학 인물 사상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최영희	'갑자사화와 광이(甲子士禍와 廣李)'	집성촌 인물
천화숙	조선후기 강위의 개화사상	인물 사상
한동익	울리마을 구비문화 연구	구비문화
	성남의 백제 전설 · 설화	구비문화
	'율동 청주한씨 가계정리'	집성촌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Ⅰ	전통
	성남지의 왕실문화의 연구Ⅱ	전통
백남옥	'조선후기 금릉 남공철의 정치운영론'	인물
천은복	성남지역의 불교의례 연구	전통 종교
윤종준	명선 · 명혜공주에 대한 고찰	인물
	평양서운 김순성의 관직이력에 대한 고찰	인물
	신종군 이효백의 시대적 배경	인물 역사
	남상목 의병장의 의병활동	인물
	덕수이씨 의정공파의 국가 공헌	인물 역사
이성무	'성남문화와 백헌 정신'	인물 사상
신원봉	'백헌 이경석의 노점정신'	인물 사상
이은순	'백헌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인물 역사
강혜선	'백헌 이경석 시세계 연구'	인물, 문학
문수진	'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제도 인물
지교현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인물
이서행	'공직부패와 청백리 윤리'	인물 제도
박순임	'이증의 한시 연구'	인물 문학
정은경	'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증의 활동'	인물 정치
지교현	'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 독립운동'	인물 사상
문수진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인물 사상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박순임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인물 문학
지교현	‘금릉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	인물 학문
이장희	‘정조 순조연간의 학풍과 남공철의 위상’	인물 학문
박상건	‘남이흥장군의 생애와 충장정신(忠壯精神)’	인물
정성희	‘정묘호란 시기 안주성 전투와 남이흥 장군’	인물
유주희	‘이극중의 생애와 정치활동’	인물
김문택	‘탄천 이지직의 관직생활과 청백리’	인물
배 성	‘이극규의 생애와 정치활동’	인물
김학수	‘이극기의 가계와 관직활동’	인물 집성촌
이용규	‘신종균 이효백의 가문과 생애’	인물 집성촌

역사와 문화유산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조유전	분당지역의 선사문화 시론	역사—선사시대
	‘유적, 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古代歷史)’	역사—선사시대
양기석	백제사 속의 성남	역사—삼국(백제)
서정석	위례성, 한산, 한성에 대하여	행정구역명칭 변화
최맹식	백제 한성시기 기와에 관한 소고	고고유물
김기섭	백제의 건국과 영토확장	역사
백남욱	‘백제의 초기 강역에 관한 연구’	역사
	백제 초기의 영역확대와 지방통치	역사
	‘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역사
	‘백제 한성시대의 도성에 관한 연구’	역사, 고고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역사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백남옥	'고려말과 조선초의 성남지역에 관한 고찰'	역사
	'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역사
	백제 한성시대의 남한산성	역사, 고고, 사적
문수진	나말여초의 지배세력과 성남	역사-고려
	'고려말기 정세'	역사-고려
	'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	역사-조선 전기
	양란의 극복과 성남지역	역사-조선중기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모란시장	역사-조선후기
박병련	'조선 전기 士林(動舊) 갈등과 사림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정당화'	조선 전기
윤종준	조선의 유형 집행과 양녕대군 이제의 광주 안치	조선 전기, 법률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구한말, 의병
	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조선 전기, 탄천 역사
	모란의 과거와 미래	현대
	덕수 이씨 의정공파의 국가 공헌	조선 중기
이형구	영창대군 묘지명 발견과 영창대군 략사	조선중기-문화유산인물
한춘섭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구한말
	'모란지역의 향토사 정리'	현대
	'근현대 성남의 력사 試論'	근현대사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향토사
	성남지역 서원, 사당	문화유적
천화숙	'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기지역'	일제강점기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玉卿'	일제강점기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MCA의 운동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정은경	근대 성남지역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근대
	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조선후기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서승갑	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일제강점기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교통망에서 본 판교'	조선시대, 교통
	'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략'	구한말, 의병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김상기	'남상목 선열의 의병운동의 역사적 배경'	구한말
윤종준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구한말, 의병
한춘섭	'성남3.1운동 정신의 계승'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한동익	'성남지역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윤종준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구한말, 의병
서승갑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손환일	조선시대 경기도 성남지역 금석문의 서체	문화유산-금석문
	경기도 성남지역 조선시대 석비의 표제양식과 서체고찰	문화유산-금석문
김위성	성남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연구	문화재 일반
윤종준	천림산 봉수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봉수 운영의 실태	천림산 봉수
김주홍	'천림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천림산 봉수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	천림산 봉수
조병로	'조선시대 천림산봉수의 연혁과 위치'	천림산 봉수
	'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천림산 봉수
이 재	'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천림산 봉수
방상현	'천림산 봉수군 신분과 생활'	천림산 봉수
이존희	'조선시대 봉수제의 운영과 문제점'	천림산 봉수
백종오	조선시대 봉수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	천림산 봉수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남도영	'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	천림산 봉수
김주홍	성남지역의 선현묘역(Ⅰ)－청주한씨	문화유산－분묘
유준기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항일독립운동사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항일독립운동사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항일독립운동사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항일독립운동사
이만열	신간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	항일독립운동사
김인식	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항일독립운동사
조성운	일제하 광주(성남)지역 신간회지 조직과 활동	항일독립운동사
성주현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인물들	항일독립운동사
하동근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현대사
박태순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현대사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문화유적, 삼족오
한춘섭	'연이, 연성군의 가계연구'	문화유적, 삼족오
이민식	'연성군 문중의 금석문 분포현황과 성격'	문화유적, 삼족오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의 양식·문양·서체에 관하여'	문화유적, 삼족오
	연성군 이곤 묘비 삼족오의 위상과 가치	문화유적, 삼족오
허홍식	'삼족오의 동북아시아 기원과 사상의 계승'	문화유적, 삼족오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문화유적, 삼족오
윤선영	'판교지구 문화유적 발굴의 성과'	문화유적－일반
안성민	'판교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문화유적－일반
김주홍	'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보존의 방향'	문화유적－일반
윤종준	'성남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문화유적－일반
손환일	'율동 청주한씨 세장지의 석조물'	문화유적－분묘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손미숙	'한지원 묘역의 석물 고찰'	문화유적-분묘
권영애	'한명옥 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	문화유적-분묘
이재목	'한전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	문화유적-분묘
손미숙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 조성물의 중요성과 가치	문화유적-분묘
손환일	조선초기 <김순성 묘비> 서체의 중요성과 가치	문화유적-분묘
	조선 중기의 서체-덕수이씨 의정공파	문화유적-분묘
이희순	조선 초기의 서체-덕수이씨 의정공파	문화유적-분묘
손미숙	조선 중기 묘역의 석물 고찰-덕수이씨의정공파 묘역	문화유적-분묘
손환일	'신종균 이효백 묘소의 조성물'	문화유적-분묘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문화유적-콘텐츠
장철수	'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문화유적
최은수	'복식류에 표현한 금박에 관한 소고'	무형문화
손환일	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	문화유산

남한산성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	사상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사상
	'남한산성 문화유적의 보존과 현안에 대하여'	문화재보존
	'남한산성 문화재 현황과 보존책에 관한 연구'	문화재보존
백남옥	'고대 남한산고'	역사
조병로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I)'	산성시설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II)'	산성시설
	'17, 8세기 남한산성의 재수축에 관한 일고찰'	산성시설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허창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사상
장철수	'남한산성 백제 시조 溫祚王廟의 건립과정'	사상 제례
	'남한산성 현절사의 건립과정'	사상 제례
이 영	남한산성의 원형경관 복원에 대하여	문화재보존
장삼현	'남한산성과 의리사상에 대한 연구'	사상
박상규	'삼전도 대청황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보존책에 관한 연구'	문화재보존
한춘섭	'남한산성 가톨릭 순교사 고찰'	종교 사상
	'삼학사의 시문학 고찰'	사상 문학
김창환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지리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활용
조유전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비교 연구'	역사
김기빈	'남한산성의 문루,루정,사찰 등의 명칭에 대한 소고'	역사 문화재
조유전	발굴조사를 통해 본 남한산성 행궁지	문화재
정성권	남한산성 유적 발굴 성과	문화재
백남옥	'백제한성시대의 남한산성'	역사
조병로	'최근에 발견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문화재, 금석문
진 완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역사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사상
장 결	'병자호란과 조선'	역사
박상규	'지명어를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인문지리
차용걸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학술
손옥량	'동북 역대산성의 흥망성쇠 약술'	학술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활용
소전부사용	'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성과'	학술
유승국	'남한산성과 삼학사의 절의정신'	사상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천문갑	'삼학사의 민족정신과 그의 기념비'	사상
전보삼	'한·중 사행로 답사 보고'	학술
정옥자	'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사상
장철수	'조선 현실사의 건립배경'	사상
장옥홍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학술
강상순	'삼학사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	학술 사상
지교현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사상
한춘섭	큰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	종합

교육과 정신문화, 문화일반		
연구자	논문 제목	관련 주제
조남두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조사	취학전 교육
	성남지역 다문화 교육 조사 연구	다문화 교육
	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평생교육
박순임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시민교육
어순영	'민족문화선양에 관한 소고'	시민역사교육
전보삼	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찰	정신문화
한춘섭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찾기	
한동억	성남지역의 역사와 충절	
지교현	'성남「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허창무	'가칭『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CD-Rom)』의 研究 계획'	
문수진	성남학 연구의 현주소	
최만순	성남시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연구	
현영조	'판교의 전통적 경관에 관한 연구'	

마. 개발로 사라진 전통마을을 마을지에 되살려내다.

(1) 마을지 만들기 사업

경기도 광주군의 한적한 농촌사회가 1960년대 말, 서울시의 철거민 강제 이주 사업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이 발생되고, 1990년대 분당신도시와 최근 판교 신도시 건설 및 위례신도시 건설로 이어지면서 전통마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원주민들에게 계승되어 오던 전통문화 또한 말살되고 말았다.

이에 성남학연구소는 사라져 가는 마을의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마을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향토문화총서>시리즈로 발간하였다.

이 사업은 성남학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전 준비회의와 평균 5회 이상의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총 9종의 마을지를 발행하였다.

이 사업은 곧 조선시대에 편찬하였던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다양한 지리서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정신을 이어 받아 현대의 우리 고장 역사, 행정, 지리, 문화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⁴⁾

성남문화원이 발행한 마을지는 다음과 같다.

- 성남향토문화총서1,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2001년 2월 20일 발행
- 성남향토문화총서2, 『판교마을지』, 2001년 12월 31일 발행

4) 『돌마마을지(하)』 발간 회의 자료, 성남문화원, 2008. 3. 13(목) 10:30

- 성남향토문화총서3, 『관교마을지』, 2002년 12월 31일 발행
- 성남향토문화총서4, 『대왕마을지』, 2004년 12월 30일 발행
- 성남향토문화총서5, 『복정 · 태평마을지』, 2005년 12월 20일 발행
- 성남향토문화총서6, 『금광 · 단대 · 상대원마을지』, 2006년 12월 30

일

- 성남향토문화총서7, 『돌마마을지(상)』, 2007년 12월 30일 발행
- 성남향토문화총서8, 『돌마마을지(하)』, 2008년 11월 28일 발행
- 성남향토문화총서9, 『낙생마을지』, 2009년 11월 30일 발행

(2) 마을지 편찬 사업의 성과

마을지 편찬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민속 문화 발굴과 보존 전승 : 판교지역에 전승되어 오다가 중단된 ‘쌍용거울다리기’, 이매동의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구미동 ‘오리뜰 농악’ 등 도시화의 물결 속에 사라져 가는 민속문화를 발굴 복원하였고, 지속적 전승을 위한 보존회 결성에 기여함.

(2) 지명유래 조사

① 전통마을에 전승되어 오는 지명유래 조사는 신도시 건설 후 공원, 학교, 교량, 육교, 도로 등의 지명을 제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됨—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에서 판교신도시 주요 도로 및 시설물 명칭 제정 용역 수행, 여수동 보금자리 주택단지 명칭 제정 등⁵⁾

② 잘못된 지명을 바로 잡는 길잡이(맹산의 본래 명칭은 영장산임)

③ 새로운 역사적 사실 확인—탄천 지명유래에 동방삭설화는 잘못

5) 성남문화원, 『판교마을의 생활문화지도』, 2004. 2. 27

성남문화원, 『판교신도시 마을 및 시설 이름붙이기』, 경기도 · 성남시 · 한국토지공사, 2006. 7

된 것이며, 숲과 관련이 있음. 김유신 장군의 성부(星浮)설화의
현장이 경주가 아니라 성남 성부산(星浮山)임을 밝혀냄

(3) 집성촌과 역사인물 조사 : 마을지 편찬을 통해 역사 인물 발굴. 성
남시향토유적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인물 지정, 동천 남상목 의병대장
(국가보훈처에서 2008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2010년
『성남인물지』 800여명 소개 자료 발행. 1991년 순직한 이상희 공군대위
등 역사인물 발굴, 성남시 세거문중협의회 결성.

(4) 『성남시40년사』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2013년 7월 1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성남시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성남시사편찬
위원회> 발족(2012년 5월)

이상에서와 같이 성남지역의 마을지 편찬 사업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
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생활상 등을 후
대에 전해주는 인문지리서 성격을 띄고 있으며, 마을의 지명과 시설물
명칭 제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
나 봉사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도시에 외부로부터 이주
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고향 만들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원주민
들에게도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 지역문화 전승 및 보급 사업

(1) 성남문화해설사양성교육

성남학연구소는 2013년까지 성남문화 해설사를 1기부터 6기까지 양
성해 왔다.

이는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어르신 일자리창출 등의 공모사업을 통
해 이루어졌다.

2012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문화학교 사업으로 진행된 제5기 해설사 교육은 24주간에 걸쳐 강의와 현장답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활동하는 해설사는 80여 명이며, 성남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및 경찰서, 시청, 구청, 군부대 등에 '내 고장 바로 알기' 교육 강사로 활동한다.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은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 현장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이루어지고, <내 고장 성남> 등의 교재와 시청각자료 등을 활용해서 이루어진다.

(2) 성남학아카데미

40여년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도시발전사의 모델이 된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고 전통문화를 찾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 일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성남학연구소는 2010년 '향토문화아카데미'를 처음 개설하여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어 2011년에 서현문화의집은 <성남학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남문화의집에는 2012년부터 <인문학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013년도에 경기일보와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 <우리문화>에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성남학'의 위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2014년부터 연구소 명칭을 <성남학연구소>로 변경하면서 성남문화의집과 서현문화의집 모두 강좌명을 성남학아카데미로 개편하였고, 시민을 위한 특설강좌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분기별 12주, 연간 총 48주로 편성되고 새로운 주제를 강의하는 한편 분기별로 1회의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4년간 강의주제는 중복되는 주제가 거의 없었고, 현장 답사 또한 (1)항상 새로운 코스

를 기획하여 (2)정확한 일정 시간 운영과 (3)전문해설서비스 (4)현지 최고의 미각 (5)성남시와 관련이 있는 타 지역 유적지 발굴 등으로 처음 출석인원 8명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50명 정도가 등록하여 수강하는 강좌로 자리 잡았다.

성남학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우리고장 성남의 시 승격 40년의 역사와 그 이전의 시대에 대한 향토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신도시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의 뿌리 깊은 전통을 알리고, 고령화 되는 사회에 역사와 인문학을 통한 삶의 보람을 찾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5. 성남학의 발전 과제

성남학은 인문, 지리, 역사, 환경, 교육, 산업 등의 제반 분야를 포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성남이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성남학이 지역학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빠른 정보의 유통과 다민족 사회,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지역문화, 향토문화, 전통문화가 다문화 가족들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고령화 사회의 여가문화와 경제 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발생된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과 예산확보 또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해외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문화강좌의 개설이 필요하고, 성남시로 전입해 오는 타지역 출신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의 운영도 절실하다.

이것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성과로 진행이 가능하다.



부 록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현황
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 연혁
성남문화연구 1~19호 연구 논문 총목록
성남향토문화총서 1~9
학술회의 1~18회 연구 논문 총목록
학술토론회 1~11회 연구 논문 총목록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현황

▶ 개 소 일 : 1993년 9월 20일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26번지. 성남문화원 2층

▶ 조 직 : 원장(문화원 대표)

사무국장(문화원 행정사무 총괄)

총무주임(문화원 행정실무 담당)

소장(1인, 연구소 업무 총괄)

상임연구위원(1인, 연구소 학술분야 총괄)

연구위원(10인 내외)

▶ 연구위원

• 원 장 : 김대진(문화원 대표, 전 성남시의회 의장)

• 소 장 : 한동익(소장, 향토사, 성남시 세거문중협의회장)

• 상임위원 : 윤종준(한국사)

• 연구위원 : 김웅호(서울시사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김주홍(LH공사 차장, 역사고고학)

서평일(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전 한신대 교수)

전봉구(동서울대 건축과 교수, 건축학)

정태열(한국풍수지리감정원 부원장)

조남두(신구대 교수,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교육행정학)
최만순(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 도시공학)
홍대한(숙명여자대학교 건축환경디자인 연구위원)

▶ 주요사업

- 학술회의 : 연 1회 정기 개최(현재까지 19회 개최)
- 학술토론회 : 비정기적 개최(현재까지 11회 개최)
- 연구위원 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 『성남문화연구』 : 연1회 발간(현재까지 21호 발행)
- 각 문중별 인물사 관련 자문
- 시청의 향토사 관련 자문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혁

1992. 10. 10 한춘섭 원장이 풍생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일 때 <향토문화 연구소 설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1993. 3. 10 향토문화연구소 창립총회 개최
성남문화원 정관 제4조(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향토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남문화원 부설 기구로 설립.
1993. 9. 20 성남문화원 이사회에서 인준
1993. 9. 21 향토문화연구소 개설(현판식), 초대소장 이창열 원장이 겸직
1993. 10. 21. 제1차 연구위원 회의 개최
- 향토문화 연구논문 공모
- 연구소 사업과 활동방향 협의
1993. 11. 16 제2차 연구위원 회의 개최
- 영창대군 묘지석 반출 반대 결의문 채택
- 향후 지역 문화재 보호방안 협의
1994. 5. 20 <성남문화연구> 창간호 발행,
그 이후로 올해 까지 19호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행하여
총 연구논문이 138편에 달함.
- 1995 제3대 소장 전보삼 교수 위촉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국립공원 지정추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학술세미나 개최, 의병기념탑, 만세운동기념탑 건립

등을 추진 하던 중,

1996. 10. 10 · 11(2일간) 제1회 국제학술회의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개최.
1997. 3. 20 천림산봉수터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현재 복원을 추진 중
- 1998 제4대 한춘섭 소장 위촉
1998. 11. 향토사료관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착수
- 1999 제5대 소장 조병로 교수 위촉
2000. 10. 30 제5회 학술회의 〈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회〉 개최
- 2001 제6대 백남옥 소장 위촉
2001. 2. 20 성남향토문화총서 1권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발행. 마을지 편찬사업으로 이어져 연차적으로 9권까지 발행하게 됨.
- 2003 제7대 천화숙 소장 위촉
2003. 12. 24 〈성남금석문대관〉(상) 발행
2004. 12. 15.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학술회의 개최
- 2005 제8대 소장 조유전 교수 위촉
2005. 6. 20 〈판교 신도시 지명 제정〉 용역 사업 수행
2005. 7. 1 성남시향토유적 제1호인 강정일당이 한춘섭 원장 청원으로, 문화관광부 선정 '이달의 문화인물' 로 선정
2006. 3. 9 제10대 한춘섭 원장 취임
- 제9대 소장 손환일 교수 위촉
3. 27 성남시 향토유적 제7호 지정, 광주이씨 묘역군 청원
4. 25 광주문화권협의회 창립(광주, 성남, 하남 3개문화원 참여)
2006. 5. 16~17 천림산 봉수지 원형복원을 위한 워크숍
7. 4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 시민 종합토론회
8. 30 「성남 천림산 봉수」 종합보고서 발간

2007. 5. 20 한중 문화교류 - 삼죽오 문화 -
2008. 2. 제10대 소장 문수진 교수 위촉
2007. 7. 20 「한국의 봉수 40선」 발간
2008. 7. 5 <성남문화원30년사> 발간 및 기념식
11. 4. 동천 남상목 의병장 11월, 이달의 독립 운동가 지정
2010. 3. 7 제11대 소장 전봉구 교수 위촉
3. 8 제11대 한춘섭 원장(연임)
4. 25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 / 2009년도 기호일보에 38주간 연재
7. 5 <성남인물지>(광복이전 편)
2011. 7. 4 제9회, 학술토론회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9. 20 『성남문화연구』 제18호 발간
10. 25 제16회, 학술회의 <스마트 성남, 도시 만들기>
12. 7 제10회, 학술토론회 <덕수이씨 의정공파 세거 연구>
2012. 1. 19 제12대 한동익 소장 위촉
7. 4 제17회 학술회의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9. 20 <성남문화연구> 제19호 발간
- 성남문화해설사(5기) 양성 교육
- 찾아가는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2013. 7. 4 제18회 학술회의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 제6기 성남문화해설사양성교육
9. 20 『성남문화연구』 제20호 발간
11. 『남한산성일대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국가보훈처 수원지청 지원)
2013. 12. 성남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 9.19. 제 19회 학술회의 개최
9. 20. 『성남문화연구』 제21호 발간

그 외 향토문화유적 지정 청원(성남시향토유적 제1호~제10호까지의 학술적 연구와 지정을 청원,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선생 묘역 지정 청원)

인문학아카데미, 성남학아카데미 강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성남문화연구

1994년도 1호

인쇄일 : 1994. 5. 10

발행일 : 1994. 5. 20

발행인 : 이창열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창환(金昌煥)－城南市의 地形環境 研究
- 박상규(朴相圭)－城南地域의 地名性格 考察, 百濟語와 高句麗語의 人 要素를 中心으로
- 어순영(魚順英)－民族文化宣揚에 관한 小考
- 이형구(李亨求)－永昌大君 墓地銘 發見과 永昌大君 略史
- 장삼현(張三鉉)－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墳墓를 中心으로
- 전보삼(全寶三)－碧巖 覺性禪師의 生涯와 思想
- 한춘섭(韓春燮)－城南 漢詩 同人 [詩集] 資料 考察

1995년도 2호

인쇄일 : 1994. 12

발행일 : 1994. 12

발행인 : 이창열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창환(金昌煥)－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 박상규(朴相圭)－城南市 地名研究, 壽井區 高登洞 '도랑터' 를 中心으로

- 백남옥(白南郁)－百濟의 초기 疆域에 관한 研究
- 어순영(魚順英)·전재열(全在烈)－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 전보삼(全寶三)－南漢山城의 民族精神 研究
- 한춘섭(韓春燮)－모란地域의 鄉土史 정리

1995년도 3호

인쇄일 : 1995. 12. 10

발행일 : 1995. 12. 20

발행인 : 이형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창환(金昌煥)－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I)
- 박상규(朴相圭)－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 백남옥(白南郁)－고대 남한산고
- 소진광(蘇鎭光)－성남의 산업구조
- 장삼현(張三鉉)－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 장철수(張哲秀)－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 전보삼(全寶三)－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 한춘섭(韓春燮)－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 허창무(許昌武)－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 조병로(趙炳魯)－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I)

1996년도 4호

인쇄일 : 1996. 12. 30

발행일 : 1997. 1. 20

발행인 : 오세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허창무—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 장철수—南漢山城 百濟 始祖 溫祚王廟의 建立過程
- 백남옥—百濟 漢城時代의 都城에 관한 연구
- 조병로—17, 8세기 南漢山城의 再修築에 관한 一考察
- 장삼현—南漢山城과 義理思想에 對한 研究
- 박상규—三田渡 대청황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보존책에 관한 연구
- 전보삼—南漢山城 文化財 現況과 保存策에 관한 研究
- 한춘섭—남한산성 가톨릭 殉敎史 고찰
- 김창환—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 소진광—南漢山城의 가치와 활용방안

1999년도 5호

인쇄일 : 1999. 12. 30

발행일 : 2000. 1.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백남옥—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考察
- 조병로—朝鮮後期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II)
- 장철수—남한산성 현절사의 建立過程
- 전보삼—南漢山城 文化遺蹟의 保存과 懸案에 대하여
- 조유전—南漢山城과 北漢山城 比較 研究
- 한춘섭—遁村 李集의 研究
- 최종민—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 천화숙—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기 지역
- 소진광—『삶의 질』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 허창무—城南과 瀋陽間 姉妹都市 結緣의 歷史的 意義와 21世紀를 향한

1999년도 6호

인쇄일 : 1999. 12. 30

발행일 : 2000. 2. 29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백남옥—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 김기빈—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 천화숙—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玉卿
- 한춘섭—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 허창무—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 장철수—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 박순임—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지교현—『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
- 소진광—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 전보삼—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2000년도 7호

인쇄일 : 2001. 2. 10

발행일 : 2001. 2. 20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조병로—朝鮮時代 天臨山烽燧의 沿革과 位置
- 백남옥—조선후기 金陵 南公轍의 정치운영론
- 김기빈—남한산성의 門樓·樓亭·寺刹 등의 명칭에 대한 小考
- 한춘섭—近現代 城南의 歷史 試論

- 지교헌—성남 「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 허창무—가칭 『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CD-Rom)』의 研究 계획

2001년도 8호

인쇄일 : 2001. 12. 20

발행일 : 2001. 12. 3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조유전—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古代歷史)
- 백남옥—高麗末과 朝鮮初의 城南地域에 관한 考察
- 문수진—성남시의 集姓村 研究
- 김기빈—성남시 관내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 研究
- 지교헌—“삼학사전”과 향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 천화숙—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MCA의 운동을 중심으로
- 한춘섭—학고(鶴臯) 권오선 文士의 漢詩 연구

2002년도 9호

인쇄일 : 2002. 12. 20

발행일 : 2002. 12. 3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백남옥—‘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 문수진—羅末麗初의 支配勢力과 城南
- 조유전—發掘調査를 통해 본 南漢山城 行宮址
- 정은경—19세기 城南地域의 농민항쟁
- 서승갑—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 한춘섭-박태현 작곡가의 예술 활동 연구
- 김기빈-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 研究(2)
- 한동억-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 박종민-넋다리 쌓용줄다리기의 내용과 의미

2003년도 10호

인쇄일 : 2003. 9. 20

발행일 : 2003. 9. 2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기빈-성남지역의 「地名偶合」 또는 「豫言性」 지명의 사례연구
- 박종민-지역사회 喪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 백남옥-百濟 初期의 領域擴大와 地方統治
- 서승갑-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 전보삼-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찰
- 정은경-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 한동억-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 한춘섭-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2004년도 11호

인쇄일 : 2004. 9. 20

발행일 : 2004. 9. 2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내 용

- 채수명-탄천문화 방출방법론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 천화숙-조선후기 강위의 개화사상
- 한동억-율리마을 구비문화 연구

- 한춘섭—龜川君 생애에서 얻어진 詩文 研究
- 허홍식—樂生地域 延安李氏의 世居와 重要자료
- 현영조—환경과 문화관점에서 본 도시공간 연구

2005년도 12호

인쇄일 : 2005. 9. 10

발행일 : 2005. 9.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조유전—분당지역의 선사문화 시론
- 김덕목—성남의 무속신앙
- 채수명—모란시장문화 창출방법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 천은복—성남지역의 불교의례 연구
- 한동억—성남지역의 왕실문화의 연구II
- 한춘섭—성남의 忠孝 인물 조사

2006년도 13호

인쇄일 : 2006. 9. 10

발행일 : 2006.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내 용

- 손환일—연성군 이곤 묘비 삼족오의 위상과 가치
- 문수진—조선 초기 성남의 인물 검토
- 이형구—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 김주미—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 최명숙—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 윤종준—조선의 유형 집행과 양녕대군 이제의 광주 안치

2007년도 14호

발행일 : 2007. 9. 20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한춘섭—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찾기
- 손환일—조선시대 경기도 성남지역 금석문의 서체
- 문수진—양란의 극복과 성남지역
- 이 영—남한산성의 원형경관 복원에 대하여
- 윤종준—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 최명숙—성남의 문인과 작품세계

2008년도 15호

발행일 : 2008. 9. 20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손환일—경기도 성남지역 조선시대 석비의 표제양식과 서체고찰
- 윤종준—천림산 봉수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봉수 운영의 실태
- 김위성—성남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연구
- 최명숙—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 조남두—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 이수철—지방화 시대에 문화적 요구의 대응을 위한 성남문화원의 역할

2009년도 16호

발행일 : 2009. 9. 20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문수진—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모란시장

- 손환일—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
- 조남두—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조사 연구
- 윤종준—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 조남두—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 권 일—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홍성일—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2010년도 제17호

발행일 : 2010. 9. 20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한동익—성남지역의 역사와 충절
- 백종오—조선시대 봉수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
- 김주홍—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
- 윤종준—명선·명해공주에 대한 고찰
- 강진갑—성남지역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 이수철—‘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

2011년 제18호

발행일 : 2011. 9. 20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한동익—城南의 百濟 傳說·屑話
- 김주홍—南漢山城의 先賢墓域(Ⅰ) - 淸州韓氏
- 서종원—판교 쌍용거(巨) 줄다리기 재고찰
- 문수진—성남학 연구의 현주소
- 최만순—성남시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연구

- 조남두—성남지역 다문화 교육 조사 연구

2012년 제19호

발행일 : 2012. 9. 20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정성권—남한산성 발굴성과 고찰
- 전봉구·윤종준·김주홍·송원흠—城南 天臨山 烽燧 整備·復原을 爲 한 基礎 調査 研究
- 한춘섭—성남 관할의 서원(書院)·사당 조사 자료
- 한동익—城南지역의 先賢 墓域 II(덕수이씨)
- 조남두—성남지역 특수교육 실태 연구
- 권 일—‘성남아리랑’의 가치와 작품성에 관한 연구

2013년 제20호

발행일 : 2013. 9. 25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 손환일—조선 후기 김의신의 해서법
- 문수진—한국의 근대화의 성남지역
- 서평일—「성남 인물지」에 대한 고찰
- 윤종준—조선의 강무장 운영과 성남
- 이용재—성남을 소재로 한 문학 소고
- 최만순—성남시 도시성장을 위한 문화여가산업 육성방안 연구

성남향토문화총서

성남향토문화총서1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성남시 민간신앙 조사보고서

인쇄일 : 2001. 2. 10

발행일: 2001. 2. 20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쇄 : 동아인쇄

- 제1편 조사개요
- 제2편 마을신앙
 - 마을신앙의 성격과 의미
 - 수정구의 마을신앙
 - 중원구의 마을신앙
 - 분당구의 마을신앙
 - 조사 결과의 분석
- 제3편 가정신앙
 - 가정신앙의 성격과 의미
 - 수정구의 가정신앙
 - 중원구의 가정신앙
 - 분당구의 가정신앙
 - 조사 결과의 분석

- 부록 : 성남지역 민간신앙 일람표

성남향토문화총서2

판교마을지

발행일 : 2001. 12. 3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삼문인쇄

내 용

- 제1장 판교의 자연환경
 - 자연적 위치
 - 지질과 지형
 - 기후
 - 면적
 - 판교의 지명유래
- 제2장 판교의 역사
 - 지방사의 개념과 자료
 - 판교의 역사적 개관
 -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판교
 - 조선시대의 장시와 낙생장
 - 판교인물
-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 판교의 의식주 생활
 - 세시와 놀이
 - 일생의례
 - 판교의 민간신앙

- 제4장 판교마을의 실태조사
 - 판교 마을의 개황
 - 판교 마을 개발의 문제점
 - 판교 조사 마을의 지역 특성
 - 판교 조사 마을의 실태

성남향토문화총서3

판교마을지

발행일 : 2002. 12. 3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삼문인쇄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2장 전근대사회 판교지역의 지리
-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 제4장 판교 지역의 문학
- 제5장 판교 지역의 실태 1(삼평동, 백현동, 궁내동)
- 제6장 판교 지역의 실태 2(운중동, 석운동, 대장동, 하산운동)
- 부록 판교 및 성남의 인물 연구사 정리

성남향토문화총서4

대왕마을지

발행일 : 2004. 12. 3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동아인쇄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2장 대왕마을의 자연, 인문환경
- 제3장 문화유적에 나타난 대왕마을
- 제4장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 제5장 자명으로 풀어 본 대왕마을
- 제6장 대왕마을의 일상사적 접근

성남향토문화총서5

북정, 태평마을지

발행일 : 2005. 12.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예나루

- 제1장 들어가는 말
 - I. 북정동
 - II. 창곡동
 - III. 태평동
- 제2장 마을의 역사
 - I. 북정동
 - II. 창곡동
 - III. 태평동
- 제3장 마을의 문화유적
 - I. 북정동
 - II. 창곡동
 - III. 태평동

- 제4장 마을의 정치, 경제, 사회
 - I. 마을의 정치와 사회
 - II. 마을의 주요기관과 시설
 - III. 마을의 생업과 경제
- 제5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 I. 의식주 생활
 - II. 세시풍속
 - III. 일생의례
 - IV. 민간신앙
 - V. 놀이와 여가생활

성남향토문화총서6

금광, 단대, 상대원마을지

발행일 : 2006. 12. 3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한누리미디어

- 제1장 마을의 역사
 - 1. 상고시대부터의 전래 역사
 - 2. 근대화 이후의 마을 역사
- 제2장 상대원동 마을지
 - ◎ 마을의 역사와 지명 및 세거성씨
 - 1. 금광동
 - 2. 상대원동
 - 3. 신흥동
 - 4. 단대동

5. 산성동

6. 양지동

7. 은행동

◎ 광주군 동족집단 상황

• 제3장 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유산

1. 지리적 환경

2. 문화유적

3. 행정구역의 변천사

4. 도로 등 생활환경

• 제4장 마을의 주요기관과 사회적 기능

1. 주민자치와 동사무소

2. 행정기관

3. 보건 및 의료기관

4. 사회복지기관

5. 교육기관

6. 문화정보기관

7. 체육 및 공원시설

8. 산업경제와 생활

• 제5장 전래풍속(傳來風俗)

1. 풍속에 대한 총설

2. 세시풍속

3. 민간요법

4. 먹거리

5. 전통상례

6. 놀이

7. 전통혼례

8. 기타풍속

• 제6장 성남시 재개발 현황과 방향

1. 주택재개발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성남시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4. 결론

성남향토문화총서7

돌마마을지(상)

발행일 : 2007. 12. 3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대창

내 용

- 제1장 돌마 지역의 역사와 문화
 1. 성남지역의 역사와 돌마
 2. 돌마지역의 문화유산
 3. 돌마지역의 민속
- 제2장 돌마면의 지명유래
 1. 하대원동의 유래
 2. 갈현동
 3. 도촌동
 4. 여수동
 5. 야탑동
 6. 이매동
- 제3장 돌마면의 세거성씨

1. 하대원동
2. 갈현동
3. 도촌동
4. 여수동
5. 야탑동
6. 이매동
- 제4장 성남의 경제활동 현황
 1. 성남의 경제연혁
 2. 성남의 경제 현황
 3. 성남 경제의 미래
 4. 성남경제 관련 단체 및 기타 소개
- 제5장 마을의 주요 기관과 사회적 기능
 1. 마을의 조직
 2.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현황
 3. 행정기관
 4. 의료 및 복지기관
 5. 교육기관
 6. 문화예술기관
 7. 기타

성남향토문화총서8

돌마마을지(하)

- 분당동, 서현동(율동마을), 수내동, 정자동 -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11. 28

- 윤종준 '돌마 지역의 역사와 문화'
- 한동익 '돌마면의 유래'
- 한동열 '세거성씨와 인물'
- 전봉구 '마을 주요 기관(1)'
- 김형진 '마을 주요 기관(2)'

성남향토문화총서 9

낙생마을지

발행일 : 2009. 11. 3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한누리미디어

- 제1장 낙생면의 역사와 문화 _ 문수진
- 제2장 낙생지역의 문화유산 _ 윤종준
- 제3장 낙생마을 지명 _ 한동익
- 제4장 낙생지역 세거성씨 집성촌 및 인물조사 _ 정재영
- 제5장 마을의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_ 전봉구
- 제6장 마을의 주요기관 _ 이보영

학술회의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발행일 : 1996. 10. 9

발행인 : 이형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6. 10. 10 ~ 11

장 소 : 시민회관 소강당

▶ 첫째 날(1996. 10. 10)

- 백남옥－백제한성시대의 남한산성
- 조병로－최근에 발견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 진 완－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 전보삼－남한산성의 민족정신
- 張 杰－병자호란과 조선
- 박상규－지명어를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 차용걸－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 小田富士雄－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성과
- 孫玉良－동북 역대산성의 흥망성쇠 약술

▶ 둘째 날(1996. 10. 11)

- 소진광－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 종합토론

제2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남한산성과 삼학사

발행일 : 1997. 10. 9

발행인 : 오세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7. 10. 9 ~ 10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첫째 날

- 유승국—남한산성과 삼학사의 절의정신
- 千文甲—삼학사의 민족정신과 그의 기념비
- 전보삼—한·중 사행로 답사 보고
- 정옥자—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 장철수—조선 현절사의 건립배경
- 張玉興—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 한춘섭—삼학사의 시문학 고찰

▶ 둘째 날

- 姜相順—삼학사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
- 지교현—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 종합토론

제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발행일 : 1998. 10. 16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8. 10. 16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둔촌선생에 대한 자료 모음
- 민병하-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遁村先生의 性理學的 地位)
- 최영희-갑자사화와 광이(甲子士禍와 廣李)
- 한춘섭-한국여인의 표상(여류문사 강정일당 작품세계)
- 김미란-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姜靜一堂의 生涯와 文學)

제4회 학술회의 논문집

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奭과 金陵 南公轍

발행일 : 1999. 10. 14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1998. 10. 14 ~ 15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첫째 날

- 이성무-성남문화와 백헌 정신
- 신원봉-백헌 이경석의 노점정신
- 이은순-백헌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 강혜선-백헌 이경석 시세계 연구
- 부록

▶ 둘째 날

- 이장희-정조 순조연간의 학풍과 남공철의 위상
- 지교헌-금릉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
- 박순임-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 부록

제5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희

발행일 : 2000. 10. 30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0. 10. 30

장 소 :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

- 문수진—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 지교현—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 독립운동

제6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중

발행일 : 2001. 12. 1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1. 12. 11

장 소 : 주택전시관 대강당

- 정은경—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중의 활동
- 박순임—이중의 한시 연구

제7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

발행일 : 2002. 9. 6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2. 9. 6

장 소 : 성남시민회관 소강당

- 이서행—공직부패와 청백리 윤리
- 문수진—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 한춘섭—
- 지교현—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제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발행일 : 2003. 9. 27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2. 9. 27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유준기—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 박민영—성남지역의 의병 행쟁
- 서승갑—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 한상도—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제9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발행일 : 2004. 12. 1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4. 12. 15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손정목—8.10사건의 경위 - 서울시의 입장에서
- 하동근—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 박태순—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제10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남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

발행일 : 2005. 10. 14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5. 10. 10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박상건—남이흥(南以興)장군의 생애(生涯)와 충장 정신(忠壯精神)
- 정성희—정묘호란 시기 안주성 전투와 남이흥 장군
- 한춘섭—삼봉 이극중의 인물 알기
- 유주희—이극중의 생애와 정치활동

제11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삼죽오와 성남문화

발행일 : 2006. 10. 1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6. 10. 14

장 소 : 분당구청 대 회의실

- 손환일—연성군 이곤 묘비 삼죽오의 위상과 가치
- 이형구—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죽오 신앙에 대하여
(발해 연안 鳥類 숭배 사상과 聯關하여)
- 허홍식—삼죽오의 동북아시아 기원과 사상의 계승
- 김주미—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제12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판교의 문화와 전통

발행일 : 2007. 10. 11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7. 10. 11

장 소 : 분당구청 대 회의실

- 현영조—판교의 전통적 경관에 관한 연구
- 서승갑—조선시대 교통망에서 본 판교
- 신익철—판교와 한시
- 최은수—복식류에 표현한 금박에 관한 소고

제1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판교·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8. 10. 17

- 윤선영—판교지구 문화유적 발굴의 성과
- 안성민—판교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 김주홍—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보존의 방향
- 윤종준—성남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1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남 모란의 과거와 현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9. 5. 29

- 윤종준—모란의 과거와 미래
- 이수철—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 이상열—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 손환일—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제15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0. 8. 15

- 이만열—신간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
- 김인식—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 조성운—일제하 광주(성남)지역 신간회지 조직과 활동
- 성주현—일제한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인물들

제16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Smart 성남, 도시 만들기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1. 10. 20

- 확장근-성남시 주민 중심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 최만순-성남시 도시 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정책 방향 연구
- 전봉구-성남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현영조-남한산성의 전통적 경관과 고건축

제17회 학술회의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 기조발표-조유전
- 양기석-백제사 속의 성남
- 서정석-위례성, 한산, 한성에 대하여
- 최병식-백제 한성시기 기와에 관한 소고
- 한동익-성남지역의 지명유래에 나타난 역사

제18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원의 위상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3. 7. 4

- 기조발표 : 이남규-한성백제 연구의 최신성과
- 주제발표 : 최병식-서울 강남 대모산성의 역사적 성격

정재윤－近肖古王代 百濟의 위상

진영욱－판교 삼국시대 유적발굴의 성과와 특징

제19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성남시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 방안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4. 9. 19

- 기조발표 : 한동익－성남시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 방안
- 주제발표 : 손환일－성남시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 전승 과제
허미형－성남시 문화유적의 현주소
서광일－성남시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과 전승

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제1회 토론회 발표논문집

松山 조견(趙狷) 인물 연구

발행일 : 1999. 7. 22

발행인 : 남선우

편집인 : 평양조씨 송산공5파종회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9. 7. 22

장 소 : 성남삼원부페

- 문수진—고려말기 정세(高麗末期 政勢)
- 한춘섭—송산 조견 인물 연구(松山 趙狷 人物 研究)
- 부록—송산 조견 선생의 자료모음

제2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

발행일 : 2004. 2. 2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4. 2. 25

장 소 : 낙생농업협동조합 강당

- 허홍식—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 한춘섭—연이, 연성군의 가계연구
- 손환일—연성군 이곤 묘비의 양식·문양·서체에 관하여
- 이민식—연성군 문중의 금석문 분포현황과 성격

제3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

발행일 : 2005. 11. 2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5. 11. 25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김문택—탄천 이지직의 관직생활과 청백리
- 배 성—이극규의 생애와 정치활동
- 김학수—이극기의 가계와 관직활동
- 박병련—조선 전기 士林/勳舊 葛藤과 士林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政當 化
- 한춘섭—‘廣李’ 門中 武人 列傳

제4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전주이씨 신종군 이효백 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2. 27

- 이용규—신종군 이효백의 가문과 생애

- 윤종준-신종군 이효백의 시대적 배경
- 손환일-신종군 이효백 묘소의 조성물

제5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4. 4

- 김상기-남상목 선열의 의병운동의 역사적 배경(기조강연)
- 윤종준-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 서승갑-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략

제6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8. 10. 10

- 문수진-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
- 손환일-율동 청주한씨 세장지의 석조물
- 손미숙-한지원 묘역의 석물 고찰
- 권영애-한명옥 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
- 이재목-한전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
- 한동익-율동 청주한씨 가계정리

제7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9. 8. 15

- 한동역—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 윤종준—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 서승갑—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 강진갑—성남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제8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조선 초기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9. 11. 18

- 문수진—조선의 건국과 광산김씨의 성남세거
- 윤종준—평양서윤(平壤庶尹) 김순성(金順誠)의 관직이력에 대한 고찰
- 손미숙—평양서윤 김순성 묘역 조성물의 중요성과 가치
- 손환일—조선 초기〈金順誠 墓碑〉서체의 중요성과 가치

제9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한성 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1. 07. 04 내 용

- 김기섭—백제의 건국과 영토 확장
- 백남욱—백제 한성시대의 남한산성
- 강나리—남한산성 역사주제 공원 개발과 세계유산

제10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덕수 이씨 의정공파 세거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1. 12. 06

내 용

- 문수진—덕수 이씨 문중의 가계와 세거연구
- 윤종준—덕수 이씨 의정공파의 국가 공헌
- 손환일—조선 중기의 서체
- 이희순—조선 초기의 서체
- 손미숙—조선 중기 묘역의 석물 고찰

제11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중 · 韓文學交流의 成果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3. 5. 20

내 용

- 리창인—전통문화 교류의 참신한 모습
- 최룡관—시조 우물을 파주고, 물이 넘치게 한 사람
- 림금산—중 · 한 문화교류의 의미

- 김재국-중·한 시조문학사에 남긴 성과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시민 종합 토론회

발행일 : 2006. 7. 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6. 7. 4

장 소 : 성남문화원 3층

-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인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해 타 지역 봉수 터를 답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과 동시에 시민들의 봉수 원형 복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활용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토론회

성남지역 3.1만세운동 기념 학술토론회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일 : 2008. 3. 1

- 기조연설/ 한춘섭-성남3.1운동 정신의 계승
- 서승갑-성남지역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 한동역-성남지역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학술세미나 논문집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발행일 : 1999. 10. 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1999. 10. 1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남도영—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현황
- 이존희—조선시대 봉수제의 운영과 문제점
- 조병로—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 이 재—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 김주홍—천림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 방상현—천림산 봉수군 신분과 생활

강정일당 추모 詩 낭송집

발행일 : 2005. 7. 7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 재덕을 겸한 비범한 여류문인으로 평가받는 성남의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 구송 문학으로서 낭송자와 청중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강정일당의 문학을 감상하며, 서로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낭송회의 낭송집

강정일당 향토인물에 대한 추모 강연회

발행일 : 2005. 7.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 성남시 승격 32주년을 기하여 성남시민들에 의해 추앙된 향토유적 제1

호 강정일당의 인물, 사상, 작품에 대한 연구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발행일 : 2006. 5. 15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연구소

발표일 : 2006.5.16~5.17

- 성남시 금토동 관내에 조선 초기 봉화터로 사용되던 천림산 봉수지의 복원과 한국 봉수에 관한 연구, 조사 자료집

韓 · 中 文化交流

발행일 : 2007. 5. 20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인 : 한춘섭

- 손환일-삼족오(三足鳥) 문양의 시대별 변천
- 김주미-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형성과 展開
- 정 무-심양 서탑지역의 유래
- 이행준-중국 태양조

편집위원

김대진(성남문화원 원장)

홍대한(숙명여자대학교)

최만순(문화학교 교장)

김웅호(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한동억(성남학연구소 소장)

정태열(한국풍수지리감정원 부원장 겸 수석연구원)

윤종준(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정진(성남문화원 사무국장)

성남문화연구

제21호

인쇄 : 2014년 9월 10일

발행 : 2014년 9월 20일

발행인 / 김 대 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

전화 / (031) 756-1082, 1028

팩스 / (031) 756-1056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culture.or.kr>

e-mail / culture1082@hanmail.net

편집 · 기획 / 김정진 · 허지연

제작 / 한누리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5(서교동) 서운빌딩 202호

전화 / (02) 379-4514, 4519

팩스 / (02) 379-4516

※ 이 책은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THE JOURNAL OF SEONG-NAM CULTURE

Vol.21 September 2014

Contents

Hong, Dae-han / A Study of produced when a rock cliff Buddha of the Manggyeongam Temple and purpose.

Choi, Man-soon / The Analysis of Place Folk Tales Type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 Seong-Nam City

Kim, Woong-ho / Military Drill and Seongnam during the form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Han, Dong-eok / Reillumination of the Hanseong Baekje & Namhansanseong Fortress

Jung, tae-yeal / The Seongnam from the viewpoint of Pung-soo(Feng-shui) Geography.

Yoon, Jong-jun / Performance and mission of the Seongnam study 20th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SEONGNAM STUDIES

6926, Shinheung1-dong, Sujeong-gu, Seongnam-City, 461-161, KOREA

